



11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11호

(루계 제793호)

차례

그이끼원 원언하신다(시)	김 덕 선(3)
원혈의 그 자옥은(시)	김 길 성(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이 나라 어머니들이(시)	리 명 근(4)
별채상에서 내가 산다(시)	리 정 녀(5)
주체문학의 대강	(6)
7.27과 함께 사는 삶 외 1편(시)	한 동 선(6)
원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네(가사)	김 령(7)
단편소설 해빛삼천리	허 문 길(8)
◦ 언제나 발이 닳도록	리 규 렬(18)
가 세상에 내 어머니 제일입니다	문 기 창(18)
◦ 마음속에 설레네 전호가의 소나무	량형익, 량원익(19)
혁명화된 군인가정 (혁명일화)	(19)
약속 외 2편(시)	함 영 근(37)
화선시초(시초)	고 근 화(39)
영원히 빛나라 아침의 나라 인민공화국이어! (평론)	리 근 세(20)
《조국찬가》와 같은 시대의 명작을! (반향)	문 용 철(23)
무궁토록 번영할 선군조국에 대한 찬가 (반향)	김 해 월(24)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 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
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단
편
소
설

그날처럼...	오 광 천(25)
시대가 주는 이름	박 동 칠(47)
밝은 앞날 (과학환상소설)	엄 호 삼(70)
사랑의 대지 (실화문학)	리 성 식(60)
어느 평범한 일요일에 (수필)	변 영 옥(68)

◇ 평 론 ◇

뜨거운 심장에 매아리치는

영원한 삶의 행진곡	안 희 열(43)
우리 시대 청춘의 이상과 애정륜리문제	최 언 경(57)

~~~~~ 시 ~~~~~

어머니유서	리 광 선(56)
탄전마을녀인들 외 2편	류 정 실(65)
안해에게 보내는 편지	리 신 환(66)
그림같은 묘향산 외 3편	최 희 정(67)
원형주로우에서	송 명 근(76)
나는야 세포처녀 (가사)	리 은 향(76)
나는 신청한다(시초)	백 리 향(77)
상 식	(24), (69), (80)

표지2면: 《조국찬가》 (노래)

3면: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선전화)

그이께선 선언하신다

김 덕 선

원수님께서 전연초소에 찾아가시면
병사들 그이 품에 와락 안기며 감격의 눈물 흘린다

그 어느 현지도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도 모두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 흘린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경상유치원아이들
로병대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어느 회의장에서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모두가 그이 품에 안기며 눈물 흘린다

그이께선 이때마다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환히 웃고계신다
허나 그이의 가슴에 차오르는 격정
심중에 느끼시는 깊이깊은 사색

수령님과 장군님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뜨거운 눈물 흘리랴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자신의 사명감을 심중에 깊이 새기시는 그이

그이께선 그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신다
눈물을 감추지 말라 그 눈물 마음껏 터치라

그 눈물 없다면 그 그리움이 없다면
어이 수령님의 전사 장군님의 제자이랴!

자신께서도 그 그리움으로
마음속 뜨거운 눈물 흘리시며
이 나라 천만사람들의
친아버이가 되신 그이

그이께선 마음속으로 뜨거이 웨치신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아이들 나의 인민이여
굳게 믿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수령님과 장군님 바라시던것 내 기어이 안아오
려니

이제 세계는 보게 되리라
수령님을 그리는 인민의 눈물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눈물
그 눈물이 무엇이었던가를!

그리고 그이께선 선언하신다
우리의 눈물은 이 세상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것
그것은 우리의 승리 강성국가이다
영원한 영원한 그리움이다!

선혈의 그 자욱은

김 길 성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권동지를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 어려와라
압제의 첩쇄엔 마치가 되고
혁명투쟁엔 불이 되신 그 기상

갇은 악형의 고문장
그이를 서슬푸른 못판자우로 떠밀며
놈들은 어리석게 지껄어댔다
혁명가도 사람이니 삶이 귀중할테지
저 못판자만은 감히 밟지 못하리라

허나 주저없이 다가서는 그이앞에는
저 못판자를 딛고넘어
가야 할 조국땅 방방곡곡

만나야 할 혁명동지들
조직해야 할 혁명조직들이 안겨왔거니

첩쇄에 묶인 손을 쳐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그는 걸었다
압제의 첩쇄를 풀어헤칠 조국땅
잔디푸른 봄들판을 걸어가듯
신념의 한자국... 투쟁의 한자국...

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
그는 웃으며 걸어갔다
겨레가 걸어갈 피바다천리
조선이 헤쳐갈 불바다만리 앞장에서
조국해방의 새날을 당겨 자욱자욱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향해 걸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수난당한 내 나라의 비운을 생각하여 남편의 희생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던 나의 어머니,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온 냇과 육신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자식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로고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울인 효성이 열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으로도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것으로 될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즐기치게 관통한 냇은 애국이었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수 있는 육친적권리마저 희생시켰다.》

이 나라 어머니들이

리 명 근

아가를 품에 안고
한껏 행복에 웃는 어머니
학교 가는 자식을 내려주며
애뜻한 눈길 떼지 못하는 어머니

그 모성에 넘치는 어머니들의
그 모성애를 다 안겨주시는
원수님사랑에 목이 메여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 드리는 그 마음

서해의 파도길을 넘어
열점의 섬초소에서
병사들 먼저 안아주신 어린이
그 자리에 제 자식을 세워보며
뜨거움에 젖는 어머니들

온 마을이 온 거리가
원수님 만나뵙고 돌아온
소년단대표들을 둘러싸고
감격에 넘친 이야기 끝없고

그래서 어머니들 물어봅니다
사랑이란 정말 무엇입니까
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원수님 아이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정은

모성애를 넘어선것이어서
어머니들도 못 찾는 대답입니다

새로 건설된 유치원도 찾으시고
로라스케트 타는 아이들도 만나주시고
새집에 이사온 아이들도 축복해주신
원수님의 그 품은
파연 어디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꿈만 같이 야영소에서
원수님 모시고 사진찍는 아이들
그속에 제 자식도 세운것 같아
이 나라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울던 그날은

어쩌면 어쩌면
자식에 대한 사랑
어머니사랑이 뜨겁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뜨거우신 원수님사랑

자식들의 행복한 오늘도
꿈많은 래일도 다 맡기고
어머니들이 감사의 절을 드리나니
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세상에서 내가 산다

리 정 너

별천지

별세상

꿈에조차 가 못 본 별천지 별세상에

내가 왔습니다

우리 삽니다

이름도 정다운 은하과학자거리

밤하늘의 은하수 땅우에 내린듯

온통 별천지 별세상

그래서 거리이름도

은하과학자거리라 불렀습니까

어제는 대동강기슭에

창전거리 솟아 불빛세계를 펼치더니

오늘은 여기 룡성땅에

행복의 은하과학자거리를 펼쳐

밤하늘의 은하수조차 부러워 내려앉은 거리

정녕 이것이

우리 사는 거리

우리 사는 집이란 말인가

꿈에서조차 그려 못 본 생활이

나를 안아세워준 은하과학자거리

나의 집

너무도 희한한 광경을 두고

사람들은 별천지 별세상이라고 하였지만

누가 그 별천지 그 별세상에서

살아보았습니까

누가 그 행복을 누려보았습니까

보십시오

잔디푸른 거리에 줄지어선 가로등

그것은 땅에서 쳐다보던

하늘에 빛나던 별 별 별...

보십시오 은하유치원마당가

물놀이장의 미끄럼대는

은하수 기울어 쏟아놓은듯 별이 란무하는 물놀이장

창턱에 내려앉은 은하수도

정갈한 장판에 내려 어리광치듯

방안에도 온통 별의 천지 별의 세상

손잡이에도 별이 땀혀 웃고

부엌의 수도물조차도 은하수를 쏟아내는듯

밤은 깊어 밤은 깊어도

창가에서 새날을 맞고싶은 밤

하늘의 은하수도 내 집 창가에서

하늘을 두고 땅에 내려 함께 새우자고

이 가슴의 하늘에 내려 빛나는 밤

어찌 나만이 우리 집만이라

온 집 온 창문 온 거리가

마음의 창문을 열고 우러르는

원수님 계시는 당중앙창가

꺼질줄 모르는 그 빛발의 가닥가닥이

잇달아 더욱 불밝은 창가에서

목메여 목메여 울리는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이 제일 높고

별이 제일 먼곳에 있는줄 알았건만

정녕 아닙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의 하늘아래

그 별천지에서

그 별세상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우리거니

오, 별천지 별세상

대원수님들의 념원이며 리상인

그 별천지 별세상에서 내가 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펼쳐주신 사랑의 세상

세상에 둘도 없는 별세계 별세상에서

인민이 삽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문작가가 창작한 문학작품만으로는 문학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사람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요구하며 작품에 대한 감상만이 아니라 직접 창작에 참가하려는 지향도 가지고있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선구자이며 믿음직한 작가후비이다. 군중문학창작의 새로운 고조기를 마련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군중문학소조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적열정을 비상히 양양시키는것이다. 문학통신원들은 오늘의 벽찬 현실을 직접 창조하고있는 생활의 주인공이며 낡은 창작경향에 물들지 않은 신진창작력량이다.》

7.27과 함께 사는 삶 외 1편

—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서 —

한 동 선

여기선
누구나
돌아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세여본다
렬사들의 그 나이...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직 뺨붉은 그 나이
낮설지 않아라
어쩌면 내 아들딸만 같은 얼굴들...

죽어
죽어서
렬사로 불리울줄 알고서
그대들은 백병전에 나갔던가

살아
살아서
가고싶었던 길 뒤에 두고
맞받아 죽음으로 나아간
조국방위전의 령사들이여

삶이 구만리같은
아까운 그 젊음에도
한치의 땅을 위해서도
기꺼이 젊음을 바치며
육탄되어 화점을 막던 그 순간에조차

묘주도 없을것을 탓하지 않은
조국의 영용한 아들딸들이여
그대들이 흘린 피 점점이 어린
꽃 한다발 정히 놓고
내 삼가 머리를 숙이나니

아,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그 정깊은 마음으로 꾸려주신
석박산기슭의 이 려사묘에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내 왔는가
어느 혈친을 찾아서 우리모두 왔는가

속삭이고싶어라
렬사들을 부르며 찾으며
그대들 지켜낸 공화국땅에
무명전사 무명영웅은 있을지라도
그대들은 무주고혼으로 영원히 외로울 일 없으리라
위대한 우리 당이
성스러운 우리 조국이
그대들의 묘주가 되었으매!

위인의 거룩한 자옥이 찍혀진 이 마루에서
바라보라 려사들이여
최후승리를 굳게 믿는 그옥한 눈동자로
무궁한 세월을 넘어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추모의 꽃물결을...

아! 아!

하늘도 땅도 다 그리안으신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은
꽃나이에 떠나간 그대들앞에

만대자손을 안겨주시었구나
7.27과 함께 사는 삶을 주시었구나

내 누리는 행복

세월은
갔는가
왔는가

바위도 불타던 고지와 고지
피로 물든 락동강과 해안포진지에서
전우의 시신앞에 군모를 벗던
그 비장한 순간이 여기에 있다

귀중한 전우의 마지막길이지만
조총 한방도 아껴야만 했던
총탄대신
눈물과 복수를 재워 방아쇠를 당기던
영결의 그 순간이 여기에 있다

넘어넘어 60여년 세월속
그날의 그 전장들을 더듬어더듬어
쓰러진 아들의 시신을 다시금 안아온듯
안아다 다시금 고이 잠들게 하려는듯
어머니조국은 람홍색기발에 휩싸안았구나

저 기관단총에선
아직도 단내가 풍기고
군모에선 아직도 초연내가 풍기는데
아들은 정녕 숨을 거두었던 말인가
기폭마저 비분에 흐느끼며 몸부림치는듯

그 젊은 가슴이 뿔어낸 선혈에 물들어
붉디붉은 이 화강석의 령구앞에

나는 조객이 아니다!...
이 땅 이 제도를 위해
목숨도 서슴지 않은 렬사들앞에
새삼 뉘우쳐지는 한 생각
내 잠시라도 잊은적 있었던가 이 피값을...

아! 창조로... 회열로...
들끓는 나의 삶아 사는 보람아
내 누리는 행복을
선렬들 목숨으로 안아왔거니
값비싼 이 기억만은 흐리울수 없어
그 비장한 순간을 영원히 멈춰세웠구나
추모탑아래 화환진정대조각은...

조국이어
이 땅에 준엄한 그 시각이 다시 온다면
저 군모 눌러쓰고
저 기관단총 틀어잡고
한목숨 바침에 내 주저없으려니

자자손손!...
세세년년...
저 기발 날리며 승리펼칠 만대에
시시각각 깨우치라 세대의 임무를

오, 세월은
갔는가
왔는가

가 사

원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네

김 령

먼바다 섬초소를 찾으시여도
새거리 살림집 찾으시여도
아이들 제일먼저 안아주시네
허리굽혀 귀속말도 들어주시네
아 수령님처럼 장군님처럼
원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네

서로 먼저 안기고싶어
그이 품에 달려와 매여달리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네

품에 안고 사진도 찍어주시네
아 수령님처럼 장군님처럼
원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네

바다가야영소도 아동공원도
세상에서 으뜸가게 세워주셨네
선군조선 기둥이라 말씀하시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 축복하시네
아 수령님처럼 장군님처럼
원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네



허 문 길

1

해외교포들과의 사업을 맡아보는 정용진부장이 어버이수령님을 뵈오러 온것은 오후 다섯시경이었다.

꽤 물कु는 날씨였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팔죽같은 땀이 돌고 가슴이 뻘뻘 달아오른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도 오히려 열풍이 되어 습기와 열기를 몰아와 온몸을 찻찻하게 해준다.

북더위치고도 제일 그악스러운 말복계절이라 만물은 마치도 가마안에서 찌낸듯 시들고 늘어지고 청정한 기운을 잃어버린것 같다.

수령님께서는 토막시간을 내시여 시험포전에 계시었다.

《한소나기 쏟을려나?》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혼자소리로 외우시며 자루긴 호미를 잡으신 손에 힘을 주시었다.

수령님결에는 정원의 시험포전을 맡아보는 홍근풍이 자주 땀에 젖은 수령님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넘보며 부지런히 이랑에서 흘러내린 흙을 파올리고있었다.

갈로 엮은 농립모밀로 구슬땀이 도글도글 굴러내리고 속내의가 화락하게 땀에 젖어올랐으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퍼붓는 피약별과 내기라도 하시듯 열풍에 고시랑거리는 콩포기들의 복을 돌구시며 줄기와 가지며 잎새들을 주의깊게 살피시었다.

대가 실하고 가지가 많고 꼬투리가 다람다람 많이 열린 콩포기들을 보시는 그이의 안팎에는 시종

흐뭇한 미소가 감돌고있었다.

몇해전에 지방의 어느 한 농업대학 연구사가 재래종콩보다 훨씬 수확량이 많은 콩종자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수령님께서는 콩종자개발에 일생을 바쳐온 학자를 친히 만나주시고 애국자라는 고귀한 칭호로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농업과학원에서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자신께서도 시험포전에 심으시고 애지중지 키워오고계신다.

농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전에 자신께서 직접 재배경험을 터득하고싶으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첫째에 콩꼬투리는 재래종보다 어방없이 많이 달리기는 하였으나 초가을에 잡아들면서 줄기와 가지들이 콩꼬투리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부러지는통에 콩알이 잘 여물지 못하여 천알당수확고가 폭 떨어졌다.

농업과학원에 알아보시니 거기도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래 올해에는 줄기와 가지를 충실히 하기 위한 방향에서 카리비료의 시비량을 늘িয়ে 두벌김매기 때부터 주기 시작하시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콩대가 싹해지고 가지와 잎새들도 충실히발아니라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어내리어 이 8월 염천에 다른 작물들과 나무잎새들은 더위를 타지만 이 콩포기들은 푸르싱싱하였다.

줄기와 가지가 이쭝되면 재래종콩보다 세배되는 꼬투리가 랑패없이 여물게 할것 같다.

그렇게만 되면 다섯톤은 문제없을것 같다.

다섯톤이라는 수자는 벌써 수십년세월 시험포전을 가꾸어오고있는 저 홍근풍의 타산이니 정확할 것이다.

콩이 정보당 다섯톤이면 대단하다.

콩이 그 정도로 나와준다면...

우선 인민들의 식탁을 기쁘지게 할수 있다. 콩으로 만든 된장, 간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름까지 푹푹히 들어가면 아무 찬거리도 맛갈스럽고 영양가도 높기마련이다.

지금은 콩이 부족해서 도토리를 많이 쓰는가 하면 밀이나 강냉이까지 된장원료로 쓰니 짧고 쓴맛을 피할수 없다.

된장, 간장뿐이라.

콩이 풀리면 아이들이 콩우유도 마음껏 마시게 할수 있다.

영양분석을 해보면 콩우유가 소젖에 못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이 종자를 심어 콩창고를 가득 채워놓으면 탁아소나 유치원아이들은 물론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우유를 마음껏 공급할수 있다.

기초식품공장들을 도와 군들에 지금부터 건설해야 한다.

콩우유생산기지도 지방에 더 꾸리는 사업을 미리 미리 밀고나가야 할것 같다.

수령님께서는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인민을 위한 한몫을 따라 그냥 즐거운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수령님, 이제 손을 떼십시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홍근풍이 고랑에서 일어나 수령님의 옆모습에 걱정어린 눈길을 보내다가 간청하였다.

《어, 뻘소. 잠간이면 끝내겠는데...》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현현한 어조로 대답하시며 그냥 고랑을 타고나가시였다.

부관의 뒤에서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걸오던 정용진은 긴 호미를 잡으신 수령님을 뵈옵자 자기도 모르게 한달음으로 다가왔다.

《수령님! 이 복더위에 이렇게...》

정용진은 그이의 옆에 다가오자 이렇게 급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그제야 수령님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이목구비가 콧킴킴하고 시원스럽게 생긴 정용진을 돌아보시였다.

《정부장이 왔구만. 가만, 저기 느티나무밑에 가서 땀을 좀 들이오. 마지막이랑이요. 내 얼른 끝내고 그리로 가겠소.》

수령님께서는 이 더운날 넥타이까지 받쳐 땀뻘뻘하게 여름철양복차림을 한 정용진의 차림새를 여겨보시며 가까이 있는 느티나무를 가리키시였다.

《수령님, 남은 이랑은 제가 하겠습니다. 땀을 들이십시오.》

정용진은 서둘러 호미를 찾아들고 황황히 수령님께서 잡으신 고랑에 들어섰다.

《아바이도 수령님을 모시고 밭에서 나가십시오.》

부관도 이렇게 한마디하면서 홍근풍에게 호미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제야 수령님께서는 허리춤에 있는 수건으로 존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으시였다.

《허, 우리 신사부장이 호미를 드는건 좀 어물리지 않는다.》

반자루도 안되는 품을 들고 주석네 콩밭길을 다 매주고 왔노라고 소문내자는게 아니요. 어서 호미를 내놓소, 팬히 옷을 땀지 말고...》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통조어린 말솜에 진정을 담으시며 산뜻한 회색양복차림에 가벼운 향수내까지 풍기는 정용진을 만류하시였다.

정용진은 수령님께서 무척 아끼시고 중히 여기시는 일꾼이다.

박식하고 언변이 좋고 필력도 뛰어나고 외교에도 능한 다재다능한 일꾼이다. 생활에서는 솔직하고 소탈하고 스스럼없이 무척 정이 간다.

그런가하면 타고난 끼끗한 용모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어떤 상대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방스러운 틀거리로 하여 교포들과 외국인들속에 잘 알려진 로련한 일꾼이다.

수령님께서는 정용진의 자질과 성품을 사랑하시여 젊은 시절부터 품을 들여 키우시여 책임일꾼으로 내세우시였는데 언제나 맡겨진 사업을 손색없이 감당하여온다.

《수령님, 제 이래봐도 오가산 막바지에서 감자를 심어먹으며 뼈를 굳혀온 감자바우입니다.》

《허허, 정부장이 화전을 두지며 살아온 두메산 끝내기라는걸 내가 몰라서... 아무튼 좋소. 땅내가 다 빠지지 않았는지 어디 솜씨를 봅시다, 허허...》

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정용진은 용기를 얻어 호미질을 시작하였다.

정말 수령님앞에서 솜씨자랑을 하고싶은 동심같은 심리가 발동되었던지 다부진 콩포기들을 이쪽저쪽으로 솜씨있게 제끼며 살진 이랑을 다기차게

히벼갔다.

수령님께서도 아직도 손에 잡혀있는 정용진의 호미질솜씨를 굽어보시다가 또 한번 크게 웃음을 날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정용진이 자신의 곁에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계시다가 다시 콩술에 허리를 묻으시었다.

《과시 농사군자식이 맞구만. 하기는 사람이란 누구나 땅과 벗하구 살아야 하오. 땅에다가 자기 땀을 묻기도 하고 땅기운을 쏘이기도 하구. 그래서 예로부터 문장가들이 땅을 가리켜 하는 아주 유식한 말이 있지.》

《예, 어머니대지라고 불러옵니다.》

《그렇지, 어머니대지.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있구. 그럴사한 말이요. 참으로 땅이야말로 만물의 어머니지. 콩이 어쩡소?》

《예?...》

너무도 무더운 복더위속에서 시험포전에 땀을 뿌리고계시는 수령님을 뵈고 커다란 놀라움에 휩싸여있던 정용진은 수령님께서 불쑥 꺼내신 물음을 받고 서야 자기가 가꾸고있는 콩포기들을 여겨보았다.

실한 줄기와 가지마다 다람다람 열린 콩꼬투리들을 살펴보자 대번에 그의 큰 눈이 멍그래졌다.

한두포기가 아니라 시험포전의 콩들이 하나같이 일매지게 푸르싱싱하고 풍만하다. 소시적에 산골에서 주로 콩과 감자를 심어본 정용진은 난생 이렇게도 소담한 콩포기를 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정용진은 잠시 호미질을 멈추고 이 찌는듯 한 더위속에서도 가지가 부러지도록 맺힌 콩꼬투리를 떠안고 굳건하게 서있는 콩대들을 신기하게 보며 무덤 감개에 젖어들었다.

《수령님! 저는 이렇게 대가 굵고 꼬투리가 많이 달린 콩을 처음 봅니다. 이쯤되면야 열톤은 넘어설것 같습니다.》

《허허... 정부장이 대포를 쏘는군. 이 정도를 놓고 열톤을 부르기는 일러. 음, 내 저 흥동무와 짐작을 해봤는데 그 절반은 문제없을것 같아.》

《그건 기적입니다. 옛날 콩농사 하면 정당 5백키로, 잘돼야 6백~7백을 불렀습니다.》

《하, 정부장이 콩농사에는 그닥 문의한이 아니구만. 그래, 그렇단 말이요.》

수령님께서도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며 흐뭇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래서 말이요, 내 정부장이 오기 전에 혼자 궁냥을 하던중이었소.

콩농사를 이쯤하면야 남을 쳐다볼것도 없고 콩걱정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요. 농장마다 열정보가량씩 떼서 콩을 심어보자, 그러면 나라적으로는 얼마나 나오는가, 그가운데서 절반은 기름과 된장생산에 돌리고 나머지를 가지고서는 콩우유를 만들어 먹이자는거요. 내 여든해 살아오면서 소원이 두루두루 많은데 그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와 기름을 마음껏 먹이는거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다 포동포동하게 키워내는거요. 이제 이 콩이 그 소원을 풀어줄것 같구만. 어쩡소, 정부장, 내 꿈이?...》

《수령님!》

정용진은 자기도 모르게 목메여부르며 부지불식간에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한가지 일을 궁리하여도 인민을 위하여 시작하고 만가지 일을 하여도 인민을 위하여 벌려나가는 우리 수령님!

수령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저 인민이 꼭 차있구나!

수령님의 꿈속에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이 송이송이 꽃피고있구나!

정용진은 뜨거운 감동에 젖어 말쑤드리었다.

《수령님, 저는 수령님의 소원이 꼭 성취되리라는걸 믿습니다. 수령님께서 마음쓰시는 일이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허허, 무슨 소리... 돌아보면 해놓은 일보다 소원으로 남아있는 일이 더 많다오. 하여튼 정부장이 좋은 소리 해주니 나도 기분이 좋구만.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소동도 이런 식으로 제압해야 하오. 빈소리로 허장성세하지 말고 실속있게 우리 주먹을 버려 맞아서 이겨야 하는거요. 내 자주말하지만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야. 자, 이젠 김도 다 뻗으니 손두 씻구 찬물 한그릇 마시며 땀도 들이거요. 정부장이 이렇게 선통이 없이 달려왔을 때는 무슨 긴한 일이 있어 왔겠는데. 거, 최금호라는 기업가일때문이 아니요?》

수령님께서 이렇게 시원스러운 어조로 화제를 돌리시자 금시 정용진의 서글서글하던 얼굴이 흐려지고 고개가 떨어졌다.

정용진이 이렇게 수령님께 찾아뵈는다는 기별이 없이 달려온것은 사실 긴한 일이 생겨났기때문이었다.

그 긴한 일이란 수령님께서 헤아려주신것처럼 최금호라는 교포기업가때문이었다.

열흘전에 평양비행장에 멀리 대양너머에서는 백발의 한 로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내렸다.

그는 이미 부호로 공인되어있는 흔치 않은 교포기업가였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행사를 코에 걸고 《제재》요, 《검증》이요 하면서 국제적인 판도에서 포위환을 형성하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는 시기에 용감하게 《제재》의 울타리를 뚫고 날아든것으로 하여 최금호의 우리 공화국방문은 주재국을 떠날 때부터 세인의 관심을 모아왔다.

최금호는 주재국의 비행장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막아나서는자들에게 조선사람다운 담력을 가지고 배짱드세게 선언하였다고 한다.

《길을 비키지 못할가. 지금 못된 놈들이 작당하여 내 고향을 삼키겠노라 덤벼들고있다. 헌데 조선사람인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향집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만 있겠는가. 나는 고향땅에 최많은 인생이다. 떠난 길은 하루길이었으나 찾아가는 길은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내 이제야 철들어 조상 잇고 살아온 불륜죄를 씻고저 하는데 왜 이리도 다사다난한가. 네놈들 조선사람 숯보지 말아. 이 최금호 간다면 가는 사람이다. 김장군 뵈오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이렇게 거물급기업가답게 세상을 들썩거리며 조국에 들어선지 벌써 열흘이 되어온다.

수령님께서는 느티나무밑에 가시여 긴 나무결상에 앉으시였다. 그리고는 부판이 가지고온 부들부채로 바람을 일구시며 정용진의 긴장된 모습을 인자한 눈길로 더듬으시였다. 정용진은 눈길을 다소 곳이 땅에 떨군채 자못 무거운 기색으로 부판이 갖다준 부들부채를 짹 틀어잡고 송구스럽게 서있을 뿐이었다.

《말해보오, 무슨 일이요?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모레쯤에 시간을 내겠다고 했더라?...》

수령님께서는 먼저 조용한 음성으로 정용진의 착잡한 속을 다독여주시듯 말씀하시였다.

《예.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때문에...》

정용진은 피로운 심정으로 마디마디 가까스로 이어가다가 끝내 뒤말을 흐리마리하고말았다.

《하하, 정동무도 우물쭈물할 때가 있구만. 정동무가 여간 배짱꾸러기가 아니라고 남조선출판물들에도 여러번 들락날락하던데... 앉소, 앉으시오.》

수령님께서는 분명 정용진이 대단히 난처한 문제를 들고왔다고 판단하시였으나 크게 내색하지 않고 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제야 정용진은 자리에 앉으면서 자못 죄스러운 어조로 보고드리였다.

《사실 최금호기업가가 래일 아침에 조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래일 아침에?... 힘들게 찾아온 고국인데 그렇게 빨리 떠나다니... 그러니...》

수령님께서는 자못 놀라마지않으시며 만면에 미소를 거두시였다.

《...》

《떠나가겠다는거지. ...》

수령님께서는 못내 서운하신 어조로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되뇌이시였다.

정용진의 고개가 더욱 아래로 떨어졌다.

그의 두툼한 입술새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다.

수령님께서는 정용진의 모습에서 전에없이 소심해진 기색을 측은한 눈길로 살피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뭘, 동무들이 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든건 아니요? 그동안 동무들의 사업정형을 보면 다른 문제가 없었던듯싶는데... 내 동무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고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잘 맞아주어야 하오,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무들은 그들앞에서 조국을 대표하거던. 그들이 원한다면 끊어진 혈육의 인연도 이어주고 그들의 원을 풀어주는데서 절대로 린색하지 말아야 하오. 개중에는 죄를 짓고 달아나 오랜 세월 고민하다가 걸음이 무겁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어찌겠소. 죄는 지나간 일이니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속크게 품어주어야 하오.》

《수령님, 저희들이 확실히 최금호기업가와와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올 때 나쁜 놈들이 몰려들어 길을 막으니 길을 비켜라, 김장군 뵈오러 간다고 호통을 쳤다는 사람이 아닌가. 비행장에서 내놓았다는 그 배짱있는 선언도 마음에 흠뻑했는데...》

수령님께서는 저즈기 실망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정용진은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입술만 감

빨았다.

그럴수록 수령님의 심중에 그늘을 지워드리고 떠나가는 최금호가 야속스럽게 그지없었다.

그리고 최금호와의 사업을 수령님의 뜻대로 폭이 넓고도 아량있게 하지 못하여 예정된 방문일정까지 당겨서 떠나게 한 자신이 수령님앞에서 죄송스럽게 그지없었다.

원래 정용진은 최금호의 조국방문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그의 접견요청에 대하여서는 보고하지 못하고 망설여왔었다.

최근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접경으로 치닫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엄중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통의 몸으로 불철주야로 사업하고계시었던 것이다.

정용진은 거듭되는 최금호의 제기를 어제 저녁에야 다른 사업을 보고드린 끝에 조심스럽게 내비치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에 용감하게 조국의 대문을 두드렸는데 만나주는게 도리라고 대범하게 받아주시었다.

최금호의 조국방문일정이 끝나는 차례로 시간도 푼푼히 내보겠노라고 각별한 은정을 베푸시기도 하시었다.

그래 정용진은 오늘 발걸음도 가볍게 그가 류숙하고있는 양강도호텔에 나갔다.

헌데 안내일군이 뜻밖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최금호가 래일중으로 조국을 떠나겠다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놓도록 데리고온 비서에게 이미 지시하였다는것이였다.

최금호를 만나서 방문일정을 당기는 리유를 여러말로 물어보았으나 그는 무겁게 한마디 할뿐이였다.

《저는 가야 합니다.》

안내일군에게 그동안 최금호에게 심적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엄하게 따져물었다.

그 일군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노라고 대답하였다.

정용진은 수령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나서 한통의 두툼한 문건철을 드리었다.

그안에는 최금호의 조국방문과 관련된 자료가 자상히 기록되어있었다.

《음, 그렇게 됐단 말이지.》

수령님께서서는 정용진으로부터 문건을 받아드시고

는 혼자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시계를 보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였군. 10분후에 군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니 이만합시다. 어찌겠소. 떠나가겠다는 사람의 길이니 굳이 막지 말아야지. 험치 않은 길을 험치 않게 왔다가 방문일정까지 당기면서 떠나가는 사람의 속이 아무튼 편치 않을거요. 그러니 동무들이 나무람을 하지 말고 속을 잘 풀어주도록 하시오. 그 무슨 옥땀한 한이 있는것 같으면 그것도 시원히 풀어주어 거뜬해서 돌아가도록 해주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절절히 당부하시고 몇걸음 옮기시다가 다시 정용진에게로 돌아서시였다.

《그 사람에게 내 인사도 전해주오. 그가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량심과 본분을 지키고저 모태기고 있고 이번 조국방문에서도 조국을 돕기 위해 마음을 쓴데 대하여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노라고 전하시오.》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집무실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였다.

정용진은 수령님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리고나서 오래도록 자리에 굳어져있었다.

전예없이 수령님께서 옮겨가시는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갑자기 느티나무의 잎새에 숨어서 복더위에 지쳐 숨을 돌리고있던 매미들이 약속이나 한듯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였다.

《땀- 땀- 땀-》

창비린 그 소리가 정용진에게는 구슬픈 가락으로 들렸다.

3

군사위원회는 밤이 썩 깊어서야 끝났다.

일군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치르시고 잠시 휴식을 하고나신 수령님께서서는 고요가 깃든 집무실을 조용히 거닐고계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제》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정책적대응조치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놈들은 지금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을 걸고 전세계적인 판도에서 《제제》의 포위환을 좁혀놓고 우리 공화국과의 일체 경제적인련계를 차단하면서 공화국을 아예 질식시키려 하

고있다.

심지어 관광은 물론 일반러행자들마저 평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외교적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제는 《제재》가 풀릴 때까지 공화국과의 경제적연계를 가지는 일체 국가, 기업소, 개인들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제재》를 가하는 전대미문의 극악한 책동으로 제놈들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며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려고 꾀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적연계가 확대되어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사실상 적지 않은 장애와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도 우리의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압력소동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열띤 논의에 매듭을 지으면서 간곡한 어조로 강조하시였다.

《동무들, 동무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으로부터 제국주의의 〈제재〉소동에 보다 강한 맞대응으로 짓눌러버리자고 한결 같이 주장하고있는데 배짱도 좋고 의기도 좋고 담력 또한 좋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를 무서워할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것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우리 혁명의 불변의 가치라는것을 잊지 마시오.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적들을 반격할수 있는 대담무쌍한 제안을 내놓던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을 다시 떠올리시였다. 그리고는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더듬으시며 사색의 심연을 조용히 헤쳐어 가시였다.

하지만 아까부터 무엇인가 놓치고만 빈구석이 있는듯싶어 그냥 허우룩한 심정이시였다.

문득 오후시간에 찾아왔던 정용진의 시원스러운 얼굴에 그려졌던 무거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래, 그렇지. ...)

그와 포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그이의 만면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화전을 뚜저먹던 오가산 막바지의 감자바우가 공

화국의 당당한 일군으로 자라났다.

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자랑이 아닌가.

어찌보면 그것은 우리 혁명의 목적이기도 하다.

가난하고 억눌렸던 인민에게 이 땅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심어주고 이 땅을 책임진 주인된 사명감을 지닌 일군으로 내세우는것이 우리의 혁명이다.

그렇다면 정용진부장의 운명은 우리 혁명의 정당성을 립증하는 증견이며 그 당사로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가지쳐가는 사색에 잠겨계시다가 너무도 비약하는듯싶은 자신의 논리적귀결에 또다시 즐거운 미소를 담으시였다.

문득 다른 모습이 정용진의 자신만만한 모습과 엇갈리며 그이의 흉중을 아프게 찔렸다.

(그렇지. 최금호... 돈부자이면서도 죄많은 인생이라고 속죄의 한숨을 털어보지 못하고 미구하여 어머니조국을 구슬프게 떠나야 하는 운명...)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지시여 집무탁에 무겁게 놓여있는 두툽한 문건을 손에 드시였다.

뚜껑을 번지니 백발의 로인이 수심에 잠긴듯한 눈으로 그 무슨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은듯 쳐다보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무엇인가 애끓는 호소가 어린듯싶기도 하고 혹은 그 어떤 편민을 불러일으키는듯싶은 로인의 사진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시였다.

그리고는 열두시를 알리는 탁상종의 음악소리를 들으시며 그 인간의 한생의 만단사연이 웅축되어있는 폐지들을 넘기기 시작하시였다.

...

(출생년도가 1912년이라, 임자년이라구... 허허... 그러니 바다 건너에서 동갑이가 찾아왔군. ...)

수령님께서는 두번째폐지에 있는 두번째 행을 더듬으시다가 이렇게 혼자소리로 뇌이시며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최금호의 고향은 북변의 바다가마일이였다.

해방이 되자 건국사업에 나섰다가 당시 도공산당 책임자와 대판들이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빌미가 되어 종당에는 서울에 갔다고 한다.

《그래, 해방후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 그때 공산당안에 있던 당직을 세도자리로 생각하는 나쁜 놈들때문에 38도선을 넘은 사람들이 여럿이었지. 이 사람도 그런자들의 희생물이였는가.》

수령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워졌다.

준엄한 년대들이 이렇게저렇게 달라지는 최금호

의 운명에 어울려들어 그이의 눈앞에서 흘러갔다.

...

하지만 권세가들은 서울에서도 좌익조직의 상좌에 틀고앉아 못된짓을 더욱 파렴치하게 벌리고있었다.

정치적야심가들이 정의와 원칙을 주장하는 최금호를 꾀게 봐줄리가 만무였다.

그자들과 리념적으로, 조직적으로 결렬되자 최금호는 자기의 정치활동에 쓰디쓴 막을 내리고 기업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리승만일당의 감시와 핍박이 그의 걸음걸음에 감겨들었다.

살을 피하니 이리와 맞다는 격이다. 그놈들은 《이단자》가 되어버린 최금호를 제놈들의 무리에 끌어들여 반복, 반공모략의 더러운 제물로 만들어 보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큰 감투로 당겨도 보고 《남파간첩》이라고 감옥에 처박기도 하였다.

최금호에게는 떠나온 북쪽땅도, 몸을 담게 된 남쪽땅도 더는 정을 붙일수 없는 한서린 땅이 되고 말았다.

《에잇, 살아가는게 시끄럽다! 씨원스럽게 이쪽저쪽 눈치보지 말고 떠나자. 내게도 에덴동산이 차례질지 뉘 알라!》

이국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에덴동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기대와 실망, 성취와 좌절, 고독과 설움, 주림과 헐벗음...

인생의 수난이 파도치듯 지겨운 운명을 간단없이 후려때렸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음에는 오세안주로, 거기서 다시 북아메리카지역으로 지구를 한바퀴 휘돌며 삶을 위한 처절한 모지름이 눈물겹게 이어졌다.

방랑객의 설움에 지치고 멎들어 두번세번 대양의 검푸른 파도가 소란스럽게 울부짖는 절벽우에 서서 구차스러운 인생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릴 결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멀리 저한끝에서 손저어부르는 혈육들이 그의 발목을 거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살아보자, 어찌하든 살아보자! 초라한 내 인생이대로 끝내버리면 세상은 너무도 공평치 못한게 아니냐. 살자, 살아서 이 최금호 세상에 빠져나온 흔적이라도 남기자!》

마침내 그는 한 젊은 미망인인 교포녀성이 사장으로 있는 자그마한 원유가공회사에 정착하게 되

었다.

불행은 사람을 현명하게 하며 고난은 인간을 강하게 버려준다고 한다. 인생의 풍파많은 길에서 삶을 위한 의지가 백배하여진데다가 원체 명민하고 명석한 두뇌회전덕분에 미구에 회사의 전무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몇해가 지나 녀인의 끈덕진 요청과 만리타향에서 업혀진 한피줄이라는 동포애의 후더운 정에 끌려 그와 결혼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내 돈으로 기어이 거들먹거리는 양놈들의 건방진 코대를 꺾어놓으리라. 이제 네놈들이 조선사람이 무서운줄 알게 되리라.》

야망과 배짱으로 돈자리를 넓혀나가는 새로운 피어린 싸움이 벌어졌다.

기업경쟁이자 자본주의생리이기도 한 그 전쟁판에서 승리하는 길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잠시 눈팔고있어도 코뎀우고 귀베가는게 자본사 회다.

그러나 끝내 최금호는 무서운 담력과 지칠줄 모르는 근기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의 회사는 일약 그 나라의 원유업계에 커다란 영향권을 행사하는 대기업으로 번창해졌고 최금호는 거부가 되었다.

하지만 돈난가리우에 올라앉았다 해도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

맘편히 살아갈 《팔자》를 찾은것도 아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워지는 조국이 그를 괴롭혔다. 살기가 좋다고 조국이 되는것도 아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인간이 되는것도 아니었다.

올해에는 가리라, 내년에는 기어이...

한해두해 미루어오던 고향길이 10년으로, 20년으로 이어져갔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가슴에는 고향을 잃고 다시는 그 땅에 들어설수 없는 나그네의 설움과 눈물만이 넘실거렸다.

아메리카지역은 물론 동남아시아며 유럽지역이며 출장길에 펄펄 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자기를 어서 오라 부르는듯싶어 조국대표부의 정문에 저도 모르게 다가선적이 그 몇번이었던가.

(아서라, 네 무슨 체면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라죽속임도 속이구 박쥐살이 하다가 조국땅이 소리치며 살만 하니깐 기신기신 찾아드느냐. 사람의 법도가 돼있는것이냐. 더구나 한생토록 나라 등저은 죄많은 이놈을 어떻게 고향이 받아준다더냐?)

그렇게 돌아설 때면 눈이 뿌에서 공화국기발을
우러러 통한을 터뜨리곤 하였다.

(아, 고향아, 가고싶은 내 조국아, 내 죽어 빠
도 묻힐수 있다면 대양이 막아선들 어때랴. 천만산
악이 가로선들 어때랴. 바다는 헤엄쳐건느고 산은
기어넘더라도 가지 못할가.)

수십년세월 안타깝게 조국의 대문을 마음속으로
두드려온 최금호에게 용기를 백배해준 사변이 터
졌다.

조국땅에, 고향땅에 전쟁의 구름이 몰려가는것
이다.

량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제국주의의 오만한
공세에 맞받아일떠선 조국땅을 불안스럽게 보면서
걱정하고 넘려하고있다.

공화국의 존재가 《태풍전야의 사상루각》이라
는것이다.

(가자! 가자! 나도 조선사람이다! 대양너머에 있
다고 해서 고향의 재난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
야 내 무슨 조선사람이라.)

자기 손발처럼 믿고 아끼는 비서를 내세워 3국에
가서 조국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보았다.

그런데 비서가 꿈같은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오라! 어머니는 제 품을 찾아드는 자식의 죄를
묻지 않는다.》

!...

최금호가 근 50년만에 고향땅을 찾아간다는 소
식이 전해지자 세상여론이 야단스럽게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놀라움!

희유!

협박!

지지!

주재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매일같이 당장 회사가
기우뚱거린다고 떠들었다.

그의 앞길에 천근만근 차단봉을 가로질러놓고 움
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금호는 복잡다단한 싱갱이끝에 끝내 조
국으로 향한 하늘길에 오르게 되었다.

...

수령님께서는 삼정도 지나간지 이숙하였으나 그
냥 문건의 폐지들을 천천히 넘기시며 한 인간의 파
란곡절 많은 운명사를 더듬으시었다.

문건에는 최금호의 조국체류와 관련하여 그의 극
적인 심리를 엿볼수 있는 대목들도 짚막짚막히 적
혀있었다.

· 전쟁시기 미제의 폭격만행에 비명횡사한 부모
들의 묘소에 가서 슬프게 울었다.

(내가 불효막심하다. 돈벌이에 눈이 꺼매서 50년
이 다 되어서야 부모님령전에 제주를 붓다니...)

· 평양의 거리를 저녁마다 걸어다니며 웅장하게
일떠선 건물들과 기념비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
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소리처럼 말하곤 하였다.

(아, 내가 죄많은 놈이다. 조국땅이 이렇게도 천
지개벽하였는데 난 이 땅을 위해 땀 한방울, 피 한
방울 흘린게 없구나. 돈 한푼도 바친게 없으니 이
훌륭한 거리를 밟고다닐 체면이 없어.)

· 신미리에 있는 애국렬사릉에 가서 한 통일애국
투사의 묘비를 부여잡고 오래도록 울었다.

《난 이분을 잘 안다우. 현대 이분은 너무도 젊
은 나이에 요절하였지만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데
난 돈벌레가 되어 기나긴 인생살이를 곡절많이 엮
어오는구려. 아, 성형, 죄많은 최금호 당신에게 뭘
로 속죄할고.》

· 어느 해외동포가 기증한 병원을 돌아보고 최금
호는 크게 흥분하였다.

《난 참 량심없는 인간이다. 조국에 오면서 빈손
으로 오다니... 이 나라에 태를 묻었을진대 내 혼에
는 이 나라의 정기가 사라진지 오랫동안.》

...

수령님께서는 이 대목을 훑어가시다가 혀를 차시
며 한마디 하시었다.

《원, 안할 걱정... 빈손에 오면 어땠다구... 이러
게 곡절많게 지내다가 그래두 제집이라구 찾아온
게 다행이지. ...》

그이께서는 다소 격한 어조로 뇌이시며 인차 그
폐지를 넘기시었다.

그러나 수령님의 속을 쓰리게 하는 이야기는 다
음폐지에도 있었다.

오늘 아침 최금호는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작
별을 고하면서 돈봉투를 꺼내놓았다고 한다.

《애들아, 난 래일 아침에 평양을 떠나려고 한
다. 언제 온다 기약할수 없지만 내 꼭 돌아오련다.
이걸 애비의 성의로 알고 받아다오.》

현대 아들, 며느리는 돈봉투에는 눈 한번 주지
않고 사절하였다.

《아버지, 이걸 거두어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돈
으로 일일천추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기다리지 말거라 하며 애끓는 한숨을 남기고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간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수 있다

고 생각합니까? 열여섯살 나이까지 속이고 전선에 나갔다가 락동강에서 돌아오지 못한 형님의 피를 이 돈으로 보상할수 있습니까?》

《음—》

최금호의 두터운 입술새로 부지중 피를 토하는듯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 할말이 없구나... 하지만... 애들아, 이 죄 많은 애비도... 좀 생각해주려마. 너희들은 남의 처마밑에서 비를 긋는 방랑객의 눈물을 생각해본적이 있느냐?》

수령님께서서는 이 대목에 이르러 가슴에 쿵 쑤셔드는 모진 아픔을 느끼시며 문전에서 눈길을 드시었다.

(음— 이전 아버지를 믿고 하는 자식의 말이라지만 너무 야박하구나... 원, 사람들두. 하필이면... 아! 나라의 분렬과 수난많은 과거사가 배설해놓은 이 눈물겨운 한을 언제가면 다 가서낼가.)

수령님께서서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시었다. 방안의 공기가 무거워진것 같으시었다.

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사에 비긴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이의 심중을 괴롭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쓰파의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눈을 감으시었다.

최금호... 교포기업가의 불안에 젖은 초상이 뇌리에 떠올랐다.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련민의 정이 그이의 가슴을 가득 채우며 밀물처럼 그냥 밀려들었다.

음, 정말 최금호의 혈불이들이 남의 처마밑에서 비를 긋는 방랑객의 구슬픈 설음을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짐작할수 있을가.

최금호는 수난의 력사가 뿌려놓은 불행한 과거의 사생아이다. 그가 지금 뭘 생각하고있을가? 고통에 몸부림치고있지 않을까?...

이 깊은 저녁도 그 쓰라린 상처를 헤집으며 잠들지 못하고있을 그 인간의 처량한 모습이 측은하게 그냥 가슴에 젖어들었다.

《동갑이, 미안하오. 하지만 그래 후손들의 감정도 리해하여주오. 아마도 그네들이 당신의 탈가로 해서 마음속의 상처를 입었을테지...》

수령님께서서는 지나간 혁명의 년대들을 거슬러오르시며 마음속으로 속삭이시었다.

《나라가 분렬되니 새라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났지.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부모들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넘겨쳐우는 일이 드문히 있었다오. 내가 기회가 있을적마다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사람

들의 감정을 휘어잡는 일이 워낙 전쟁을 이기는 일보다 더 힘들었다우...》

수령님께서서는 쓰파에서 일어나시여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며 그냥 최금호의 쓰라린 마음을 위로해주시며 심중의 고백을 괴롭게 터치시었다.

말년에 이르러 드디어 찾아온 조국— 한생토록 가슴에 묻어놓고 일구월심 고향땅에 대한 향수를 안고 모진 고뇌를 겪다가 이런저런 바람새를 다 뿌리치고 달려온 고향길.

온갖 궤방군들이 제재요, 벌칙이요, 뭐요 하면서 팔꿈치를 잡고 뒤다리에 매달릴 때 주먹으로 땅을 치며 불호령을 내렸다는 그 격노한 인간이 혈불이들의 지청구 몇마디에 누대기처럼 엉망이 되어 조국의 품에서 슬피 울고있다.

수령님께서서는 넘겼던 폐지들을 다시 번져 훑으시었다.

그이의 눈길은 한대목에 이르시여 멈추시었다.

그것은 최금호가 주재국을 떠나올 때 출발에 앞서 앞길을 가로막는 기사들과 기자의 탈을 쓰고 까다롭게 걸고들며 까부는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가들에게 던진 선언이었다.

마디마디에 거부다운 자존심과 조선사람다운 담기를 짊어보게 하는 소리였다.

《길을 비키지 못할가. 지금 못된 놈들이 작당하여 내 고향을 삼키겠노라 덤벼들고있다. 헌데 조선사람인 내가 어떻게 네놈들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불나기 시작한 고향집을 팔짱끼고 구경한단 말이냐. 이 최금호 간다면 가는 사람이다. 네놈들 조선사람을 숙보지 말아! 내 이제야 철들어 조상 잇고 살아온 불륜죄를 씻고저 하는데 왜들 이리 소란이냐. 김장군 뵈오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평생 꺾어는저도 굽히지는 않았거늘, 저승길 문턱에 서있는 80객이 늙마에 와서 네놈들장단에 가락을 맞춰줄상싶으냐?》

(허, 이런 사람이...)

온 세상의 악마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도전장을 던진 사나이가 용기백배 가슴펴고 들어섰던 조국에서 그 의기, 그 배짱이 파김치처럼 무지러져서 몸부림치며 행장을 꾸리고있다.

인생의 한을 덜고저 찾아온 고향이, 조국이 그에게 지금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감과 죄감을 얹어두게 하는것이 아닐가...

수령님께서서는 부지중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이래서는...)

수령님께서는 그 무엇인가 자신의 가슴에도 죄어드는 사명감과 책임을 절감하시며 되뇌이시었다.

종시 수령님께서는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드는 까닭모를 비분과 동정을 이겨낼수가 없으시어 집무실을 나서시었다.

쉬시기를 여러차례 간청하던 부관도 수령님의 무거우신 안색을 찾아보고는 말없이 조용히 그이를 따라 문을 나섰다.

그는 수령님의 사색을 저어할세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기척없이 정원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수령님을 따라섰다.

《남의 처마밑에 비를 긋는 방랑객의 고달픔이라...》

수령님께서는 최금호가 했다는 말을 나직이 외우시었다.

그 한마디에 반세기가까이 세상을 만경창파에 던져진 일엽주처럼 헤맨 최금호의 수난많은 이역살이가 다 실려있는듯싶다.

수령님께서는 억만의 별들이 도글거리는 하늘을 쳐다보시다가 은하수를 따라 그 한끝으로 이어가시었다.

그 하늘밑에 얼어붙은 압록강이 누워있다.

멀어져가는 산천에 물기어린 눈길을 주고있는 나 어린 소년. 헤쳐오신 년대들을 거슬러 수령님께서는 감회깊은 추억으로 노를 저어가시며 자신도 어쩔새 없이 그날의 노래를 나직이 불러보시었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

아, 내 그날 생각했지.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아득히 지나간 년대의 가슴아픈 추억이 떠올랐다. 요영구와 다홍애, 반《민생단》미친 바람을 휘몰며 동만에 있는 조선혁명가들의 80~90프로가 《민생단》이라고 터무니없이 목에 피대를 둘구던 민족배타주의자들.

그 모욕적이며 치명적인 주장에도 혁명만세를 부르며 형장에서 쓰러져간 불굴의 혁명전우들.

부지중 그이의 뇌리에 자신의 결을 떠나간 유명 무명의 전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비껴갔다.

망국노의 울분을 참을길 없어 자신의 품에 얼굴

을 묻고 소영각같은 통곡을 터뜨리던 의로운 모습들중에는 일찌기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북만에서 군장으로 조선혁명가의 불굴의 기개를 떨친 투사도 있다.

《김일성동지, 더는 참아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백두산에 와서 평대원으로 있어도 좋으니 받아만 주십시오.》

...

《음—》

수령님께서는 확확 달아오르는 속을 식히고싶으신듯 정원속의 서늘한 공기를 달게 마시며 다시 최금호의 초상을 눈앞에 떠올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최금호의 어린 마음을 슬그머니 받아안으시고 여럿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시려는듯 그냥 마음을 쓰시었다.

최금호를 저대로 다시 이역땅에 돌려보내서는 안될것 같다.

《동잡이.》

그이께서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측은한 어조로 부르시었다.

무엇이 크게 잘못된것 같다. 어떻게 그를 위해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도리로 보나 인정으로 보나 저렇게 봐두어서는 안될것 같다.

그런데 래일 떠난다니 문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로숙한 전문가라고 하는 정용진이마저 손털고 물러섰으니 그 사람의 속을 풀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것 같다.

그러나 여하튼 맺힌 속을 거뭇하게 풀어주어 하늘길에 올려주어야 조국사람들의 인정일것 같다.

이제와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바가 아니다. 아, 그래그래...

이 일은 아마도 내가 해야 할 일일것 같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그와의 사업을 자신이 맡아안아야 할 하나의 임무라고 결심을 굳히시었다.

그이께서는 큰소리로 부관을 부르시었다.

《어, 강동무, 뒤에서 숨박꼭질하지 말고 이리 오라구.》

그러자 인차 부관이 어둠속에서 뛰어왔다.

《래일 오전일정이 어떻게 됐더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인민무력부장 접견,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정무원총리, 11시 20분부터 12시 소년궁전어린이들의 서예작품을 봐주시게 되어있습니다.》

부관은 거침없이 래일 오전일정에 대하여 내리엮었다.

혁명화된 군인가정

주체86(1997)년 11월 어느날 중앙과 지방의 거의 모든 신문들에는 한 녀병사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이 실리었다.

녀병사의 손에는 잘 익은 감이 들려있었다.

아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에 울고 기쁨에 넘쳐있는 그 처녀는 한 군인가정의 딸이었다.

이처럼 큰 행복이 깃든 가정에 또 하나의 커다란 경사가 겹치었다.

그해 11월 3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처녀병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몸가까이 불러주셨던것이다.

아버지도 군인이고 어머니도 어제날의 군인, 지금 딸이 선 초소는 오래전에 어머니가 섰던 초소였다. 바로 그 초소에서 어머니는 병사시절 초소를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던것이다.

이미 이 가정의 패력을 알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처녀병사의 부모들에게 이번엔 경실이네 증대에 갔다가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증대에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 경실이 어머니가 꽃다발을 드리는 사진을 보았다시며 그때에는 애어린 처녀였는데 이제는 오누이를 인민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딸의 소식도 알려주시었다.

선군장정의 것처럼 바쁜속 속에서도 자기들을 만나주신것만도 고맙기 그지없는데 딸의 소식까지 전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그들부

부는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학교(당시)졸업반인 막내딸도 인민군대에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잘하였다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군인가정이라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걱정애 넘쳐있는 부부에게 온 가족이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가고있는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도 동무들이 그 어떤 영웅적위훈을 세웠거나 미인을 낳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이 수령님께서 다려가신 최전연의 바다가초소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가려는 그 마음이 기특하기때문이라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의 군복은 절대로 벗지 말아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그의 가정은 혁명화된 군인가정이라고, 누구나 본받아야 할 훌륭한 가정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혁명화된 군인가정, 누구나 본받아야 할 훌륭한 가정!

선군혁명의 시대에 이보다 더 큰 자랑, 더 큰 영예가 어데 있으랴.

그 혁명화된 군인가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그후 《우리 집은 군인가정》이라는 노래가 나와 널리 불리우게 되었다.

가 사

마음속에 설레이네 전호가의 소나무

량형익, 량원익

오늘도 전호가 꺾질벗긴 소나무에
영웅전사 피로 쓴 시구절 떠오르네
고지는 불타고 몸은 비록 쓰러져도
조국위해 고향위해 닦은 살이있으리라
아 그 글발 새겨안은 소나무
마음속에 설레이며 붉은 피 끓여주네

펜과 총 바뀌쥐고 전선으로 떠날 때
바래주던 고향마을 생각하며 썼으리
승리하고 돌아갈 불타는 신념 안고

한자한자 더운 숨결 다 모아 썼으리
아 그 글발 새겨안은 소나무
마음속에 설레이며 결전으로 부르네

못다 쓰고 전사한 용사의 그 시
최후승리 그날에 우리는 마저 쓰리
용사가 바라던 통일만세 웨치는 날
하늘가에 축포로 빛나게 쓰리라
아 그 글발 새겨안은 소나무
마음속에 설레이며 그날에로 부르네

영원히 빛나라 아침의 나라 인민공화국이여!

—노래 《조국찬가》를 두고—

리근세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고고성을 터친 노래
《조국찬가》는 지금 그 하늘아래에서 새로운 활
력을 가다듬은 천만의 가슴가슴들에 조국애의 불
을 지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강렬한 메아리를 울려
가고있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구절구절 못견디게 가슴을 파고드는 조국애의 불
씨가 마침내 활화산을 터칠듯 한 거센 충격을 안
겨준다.

세세년년 우리의 하늘에 영원히 휘날려 빛날 공
화국기의 펄럭임, 그 무궁한 기치아래 것처럼 바라
오던 강성의 리상, 번영의 념원을 모두 꽃피워줄
우리 조국—영원한 젊음을 자랑하는 아침의 나라
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을 개시하였습니다.》

노래 《조국찬가》는 조국에 대한 지극히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언제나 젊음이 넘쳐나는
우리 조국땅에선 이제 인민의 모든 리상이 다 실현
될것이라는 심오한 철학적주장을 소리높이 구가함
으로써 역사적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노래의 정서세계는 너무도 소박하고 평이하게 부
드러운 첫운을 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 집뜨락 조국이어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인생의 첫걸음마를 떼여준 어머니의 손길과 더불어

어 마냥 친근하게 안겨오는 곳, 갖가지 엉뚱한 꿈
을 안고 자라온 자옥들이 언제나 기쁘게 추억되는
고향마을 정든 집뜨락, 누구에게나 소중한 그 품이
바로 조국이다.

결코 어떤 요란한 수식사나 현란한 표현도 없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생명의 젖줄기를 마
시며 조국의 대지를 디디고서 힘을 자래우고 나라
와 인민을 위한 줄기찬 생활의 첫걸음을 댄 우리
누구나의 인생에서, 소꿉놀이 정다운 고향집뜨락에
서 장차 조국을 알고 조국을 빛내일 꿈을 키워온 모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것처럼 친근하고 소중한 품
이 또 어디에 있으랴.

바로 그럴진대 누구에게나 소중한 그 품을 조국
이라고 노래함으로써 노래는 매우 소박하고 친숙한
생활화폭속에서 강렬한 애국의 감정을 토로한 성과
를 달성하였으며 여기에 이 노래의 생명력을 담보
한 첫 발견이 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땅과 바다에 금은보화 가득하
고 높이 나는 참매아래 목란꽃이 만발한 강산을 긍
지롭게 노래한 2절과 3절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마
음속에 깊이 새겨진 민족적인 전통과 결부하여 인
민의 나라, 아침의 나라인 우리 조국을 높이 찬양
하였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노래구절이 흘러가는 속에 저도 모르게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조국을 가지고있고 매일 매 시각
그 조국땅에서 살고있는 긍지와 사랑의 감정이 그
득히 차오르며 불현듯 마음을 적시는 애착이 파스
히 갈마든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한 땅과 바다인가, 얼마나
훌륭하고 반가운 조국의 상징인가.

구름을 치고 대공을 날으는 우리의 참매와 아름답고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을 다 감득하게 하는 목란,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이어.

노래에서는 그림같이 황홀한 땅과 바다를 언제나 눈에 담고 살아왔고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라온 친근한 생활감정, 구름위에 높이 나는 참매에 희망을 얹으며 용기를 자래우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목란꽃의 정기를 받으며 애국의 키를 솟구어온 진실한 생활감정을 화폭이 모자라게 펼쳐놓았다.

이것은 더없는 민족적 긍지이고 것처럼 훌륭하고 문화찬란한 조선의 인민된 행복이며 또 그때문에 그렇듯 절절한 사랑의 세계를 자아내게 하는 제2의 애국가와도 같은 형상세계이다.

노래는 이 부분에서 장차 밝히려 하는 우리 조국의 거대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뚜렷이 하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국이 인민의 나라이기때문이며 그때문에 아침의 나라로 된다는 리치이다.

노래는 4절에서 이 리치를 확증하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였다.

...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 조국은 하늘을 치받으며 거세차게 비약하는가, 무슨 힘으로 조선은 언제나 젊은 힘을 발휘하여 그 모진 난관과 시련도 이기며 세계가 놀라와하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가.

바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인민의 리상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의 나라이기때문이며 그때문에 언제나 떠오르는 태양과 숨결을 같이하는 아침에 사는 나라로 빛을 뿌리는것이다.

그렇다.

거창한 력사발전을 추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사는 인민을 위하는것만큼 정의롭고 신성한 일은 없으며 인민의 힘에 의해 전진하는 력사만큼 진리로 차넘치는 위업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의 위업은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정의와 진리에로 지향할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노래 《조국찬가》에서는 이처럼 심원한 철리를 구현한 예술형상을 가장 친숙하고 발견이 있게 창조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의 진보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신군혁명위업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아침의 나라 조선은 지금 단숨에의 기상안고 바야흐로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라설 청신한 활력에 넘쳐 용기백배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이제 그 길에서 우리 조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지금껏 바라오던 인민의 리상과 꿈을 모두 실현하고야말것이며 대대손손 인민의 나라, 아침의 나라로 무궁번영할것이다.

노래는 5절과 결구에서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었다.

...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아버이장군님 말기고가신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숭고한 사명감을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제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은 현실로 꽃피나고 우리 조국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침의 나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그러니 우리 어찌 조국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는가, 우리 어찌 이 조선 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뜨겁게 노래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모두 이것을 확신하며 이것은 우리모두의 투쟁의지이기도 하다.

드디어 노래는 자기의 철학적주장을 완성하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년륜을 새겨가는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영원히 젊어 빛나며 바로 것처럼 정의로운 아침의 나라에서 인류의 리상은 모두 꽃피여 날것이라는것,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래의 형상세계가 터친 더없는 조국애의 주장이며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민의 조국을 가진 긍지에 넘친 확신이며 애국가와도 같이 우리 인민 누구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위대한 조국애의 노래 《조국찬가》가 안고있는 사상적알맹이이다.

노래 《조국찬가》는 가사형식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5개 절로 나뉘인 구분은 어딘가 길게 썬여진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따져보면 주제사상적과제에 맞게 참신하게 탐구된 형식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노래는 길게 썬여진것 같으면서도 짧게 썬여진 시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결국 가사형식이 집약화, 집중화되어있고 형상의 립체성이 잘 보장되었다는것이다.

사실 조국에 대해 다 말한다는것은 가사인 경우 쉽지 않은 일이다.

장구한 기간 인민의 운명을 안고 흘러온 조국의 역사를 다 말하며 숭고하고 신성한 조국의 뜻을 다 말한다는것은 지면이 매우 협소한 가사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노래 《조국찬가》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나라 우리 조국을 격조높이 찬양하려는 시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다 해결하는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를 위해 독특한 시형식을 탐구리용하였다.

노래는 우선 매 절들에 적합한 형상과제를 정하고 논리적인 상승의 흐름새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과 절사이 련판과 밀도를 째이게 하였다.

명작은 크게 1,2,3절들에서 조국의 의미를 밝히고 력사적이며 민족적인 시점에서 우리 조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 성격을 노래하는 형상과제를 부여하였고 4절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오늘의 조국을 보는 새로운 형상적주장과 맹세의 감정을 노래하게 하였으며 5절에서는 인민의 꿈을 기어이 실현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사랑할것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노래하게 하였다.

시간적개념으로 보면 가사의 형식은 현재와 미래의 시점상차이가 명백하게 집약화, 집중화되었다.

하다면 가사는 무엇때문에 특별히 5개 절의 구성 방식을 취한것인가.

1절, 2절, 3절에 흐르는 그윽한 사랑의 감정을 되새기면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정든 고향 집뜨락》이 조국이라는 그렇게 소박하면서도 그렇게 심도있는 비유가 대번에 진실로 안겨오는 정서세계, 그림처럼 아름다운 수려한 경치와 어디 가나 금은보화 차 넘치는 전설의 나라, 국조와 국화에 비긴 국가의 상징...

《조국찬가》에서는 참매와 같은 상징적내용을 비롯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보다 절절하게 폭넓게 노래하기 위하여 진실한 실생활세부와 결부된 시구절을 3개 절로 확대구성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조국의 모습을 노래하는 절과 앞으로의 투쟁의지를 반영하는 절들을 포함하여 5개 절로 되게 하였다.

노래는 또한 독특한 시어조성수법으로 다의미적 형상을 창조하여 형상의 립체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가사에서 형상의 립체성은 2절과 3절, 4절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가사의 내용을 판별해보면 2절에서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내용과 결부된 궁지를 노래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3행에 쓰인 형상수법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면 《인민의 조국 행복은 넘쳐라》로 되여야 할것을 순서를 바꾸어놓음으로써 것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운 경치와 자원 등을 가진 궁지로 인한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결구에 가서야 인민의 조국을 불러보며 전체 절의 내용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의미깊은 형상수법을 탐구하였다.

다시 말한다면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를 다 련상하고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를 다 음미하게 한 다음 이러한 조국을 가진 궁지가 행복이라는데 대해 생각하게 하며 바로 그것이 인민의것이기때문이라는 원인을 밝혀줌으로써 이제까지의 형상내용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인상적형상으로 된다는것이다.

3절에서는 더욱 높은 기교를 찾아보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3행의 문장구조를 바꾸고 《아침의 나라》라는 시어가 마지막에 놓이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래는 구름을 치뚫고 억세게 날아에는 조선의 국조 참매의 기상과 목란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조국강산의 모습이 모두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과 결부되게 형상하면서 세상에 부럼없는 모습이라는데 대해 노래하였지만 중요하게는 명작의 기본예술적주장인 젊은 기상 안고 약동하는 그 모양과 련판되게 하는 독특한 형상기교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형상수법은 2중, 3중의 련상을 할수 있게 하는 립체적형상으로 안겨온다.

4절의 형상은 보다 인상적인 다의미적인 형상수법을 찾아보게 한다.

이미 어느 정도 분석하였지만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의 의미는 참으로 복합적이다.

3절의 마지막행과 이어지며 전통적으로 불리워지는 우리 조국의 의미,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조국의 의미, 최후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길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킨 령도자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거세차게 비약하는 조국의 의미...

바로 이 시형상이 5절의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시구절과 결부되어 독자들은 커다란 감흥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맏고 푸른 희망의 창공에 예대로 변함없이 람홍색 공화국기가 휘날리는 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

을 반드시 실현하시교야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이 땅에서는 너와 나 모두의 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갖가지 이상이 모두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가슴가득 차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을 이끄시
기에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임을 가사에서는 다의
미적인 형상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 만사람의 가슴에 삶의 철리를 새겨주
는 걸작의 형상세계는 반드시 훌륭한 실천을 낳

는다.

결음마다, 시각마다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
현할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가는 인민의 나라, 아
침의 나라 선군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최후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오, 노래여, 길이 올려퍼지라!

오, 영원한 아침의 나라 인민공화국이며, 길이
빛나고빛나라!

《조국찬가》와 같은 시대의 명작을!

문 용 철

격동적인 시대는
격동적인 시를 낳고
격동적인 노래를 낳게 마련이다
나날이 통성번영해가고있는 조국의 현실은
보는것마다 격동적인 시
들리는 음향마다 격동적인 노래의 선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로 창작
된 시대의 명가요 《조국찬가》는 《마식령속도》
로 질풍처럼 달리는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불태우
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명곡이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음악이다.
음악작품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어야 명곡으로서
의 가치를 가질수 있다.》

《조국찬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워볼수록 가슴뜨겁다
조국에 대한 찬가는
불바다 만리, 피바다 천만리를 헤쳐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이며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세계에 존엄높은 선군의 나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이다
부르면 부를수록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력사가 어려온다.

시대의 명작 《조국찬가》를 부를 때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인 《조선의 노래》 구절구절이 떠오르고 《조국의
꿈》의 화폭과 선율이 가슴에 흘러든다.

숭엄한 감정에 젖어 부르는 마음속에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위해
심장을 바쳐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질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영원히 사랑할
맹세가 가슴에 차고넘친다
우리는 오늘 보람차고 행복이 넘치는 위대한 시
대, **김정은**시대에 살고있다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하랴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조선은.
강성국가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칠 그날은 멀
지 않았다.

참으로 가요 《조국찬가》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세상에 부러움없이 살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사상감정 그 모양을 그
대로 표현한 명가요이다.

우리의 시인들은 오늘도 좋지만 더 좋은 래일
을 구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천만토고를 바쳐가
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와 애국, 애민, 애족의 력사를 노래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찬가창작에 심신을 불태워야
한다.

나는 시대의 나팔수—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시
대와 역사앞에 지닌 임무를 깊이 간직하고 시대
의 명작 《조국찬가》와 같이 천만사람들의 심
장을 송고한 **김정일**애국주의로 고동치게 하
는 명작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위원장

무궁로록 번영할 선군조국에 대한 찬가

김 해 월

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궁로록 번영할 선군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울려퍼질 가요 《조국찬가》를 받아안고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가요 《조국찬가》가 것처럼 천만군민을 격동시키며 열렬한 조국애로 불타게 하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선군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로서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어머니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쳐갈 맹세를 더욱 북돋아 주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명작이란 철학적깊이가 있고 커다란 감명을 자아내는 작품을 말한다.**》

가사는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매우 독특하고 무게있는 생신한 표현과 문장으로 깊은 뜻을 담고있는 명가사이고 장중하면서도 승엄한 곡 또한 시대의 명곡이다.

《조국찬가》는 가사가 뜻이 깊으면서도 풍부한 사상정서를 생활적으로 노래하고있어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부를수 있는 노래이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품을 떠나 자기의 삶을 생각할수 없듯이 어머니조국의 품을 떠나서 참된 삶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가요는 조국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를 떼여준 정든 고향 집뜨락으로 노래함으로써 이처럼 귀중한 조국을 혈육의 정으로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조국에 대해 표상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구름우연 참매가 날고 목

란꽃 핀 이 강산.

그처럼 매혹적인 자연미가 바로 우리의 삶과 하나로 련결된 고향이며 조국이라는 진실한 생활적인 주정으로 하여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세계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가요는 조국의 자연미에 매혹된 감흥을 타고 조국에 대한 사색을 새로운 경지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진정 행복넘치는 인민의 조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애민의 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며 애국유산이다.

부를수록 자주독립국가의 첫걸음을 땀 력사의 그 기슭에서부터 내 조국의 자랑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헌신이 사무치게 어려오고 가슴뜨거워진다.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인민의 참된 삶의 요람으로,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비약하는 나라로 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뜨거운 생활적인 서정으로 노래한 여기에 명가사의 품격이 있다.

가요는 내 조국의 자연경개처럼 아름다운 서정미를 견지하면서 대하와 같은 웅건한 서정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할수 있었다.

가요 《조국찬가》를 받아안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조국의 강성번영을 펼쳐갈 의지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가

상 식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국가, 국기, 국장과 함께 국화, 국조 등이 있다

국화 :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일반적으로 꽃이 피는 관상식물이 국화로 되고있지만 해당 나라의 실정과 조건에 따라 그 나라의 특산식물, 경제적가치가 있는 식물, 오랜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전해오는 전설이나 생활관습에서 유래된 식물이 국화로 된것도 있다.

례를 들면 중국은 매화나무, 꾸바는 화환꽃, 말레이시아는 부상화.

현재 120여개 나라의 국화가 알려져있다.

우리 나라 국화는 목란꽃이다.

국조 : 나라를 상징하는 새로서 국조는 해당 나라들에서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가장 친숙해진 새 또는 특산종의 새들을 정하고있다.

그러므로 국조에는 해당 나라의 풍토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판례를 가지고있는것이 많다.

례를 들면 단마르크는 종다리, 인디아는 인디아공작, 영국은 울타리새.

우리 나라 국조는 참매다.

현재 국조를 정한 나라는 20개정도이다.

2날치럼...



오 광 천

1

화학건설련합기업소 세멘트분사업소라고 하면 년 산 3만톤능력인 자그마한 기업소이다. 바로 그런, 대형선반의 소치차처럼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이 사업소가 일약 련합기업소적인 초점 대상으로 될줄이야...

문제는 이 사업소가 일을 잘해서 관심을 모은것이 아니라 송만호소장의 고집과 그것으로 해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로 하여 그렇게 되었다는것이다. 어제 소성로에서 무슨 시험인가를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제일 가슴아파하는 사람은 사업소의 초대소장이었던 화학건설련합 리원국계획과장이었다. 오늘도 원국은 이 문제때문에 련합당비서와 마주앉았다.

《요행 사고가 크지는 않지만 소성공 한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빨리 손을 써서 생명의 위험은 없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분사업소의 현대화가 논의되는것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파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국은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당비서의 말처럼 조용히 일을 잘해나가던 그 사업소에서 말이 나기 시작한것은 사업소의 현대화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였다. 현시기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이 고조됨에 따라 질 좋은 세멘트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만 갔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자면 대규모세멘트생산기지뿐만아니라 중소규모의 공장들도 현대화하여 세멘트생산능력과 함께 질을 높여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원국은 좀 늦은감이 있지만 세멘트분사업

소 현대화를 결심하고서 그 문제를 련합당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내밀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열정과 보람이 숨배여있는, 그래서 항상 애뜻한 정을 불러주는 이곳을 한다하는 세멘트생산지로 발전시키는것이 그의 소원이었던것이다. 하긴 질 좋은 석회석산지를 타고났은 이곳을 현대화하는것은 국가적인 면에서도 실리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분사업소현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는가? 저품의 세멘트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수직로를 들어내고 현대적인 수평로를 세워 고품의 세멘트를 팡팡 생산해야 한다. 할수 있는가? 할수 있다. 화학건설련합 세멘트분사업소는 맨손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을 성공시킨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며 또한 거기 소장인 만호의 투지와 능력이면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믿는 도끼 발등을 찍는다고 만호가 수직로를 고집하는것이다. 원국은 생각할수록 만호가 답답하게만 여겨졌다.

그는 어쩌서 손바닥만 한 세멘트사업소라는 울타리를 터치고 나날이 도약해가는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려 하지 않는가. 세계를 보라고, 현실을 인식하라고 외국에 가는 기술대표단에까지 추천해주었는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으며 느끼였는가. 과연 누가 말하듯이 시야가 좁은탓인가?

원국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모두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물음어린 비서의 눈길을 느끼고서야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만호동무에게 제기된 문제가 시대를 따라서지 못하는 고질적인 결함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당비서는 차분한 눈길로 원국을 잠시 여겨보다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좋습니다. 만호동무가 시대의 부름에 따라설수 있는가 없는가는 두고봅시다. 그래서련합당위원회의 의견은 파장동무가 그 사업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료해해주었으면 합니다.》

원국은 생각밖의 일이여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비서동지도 만호동무와 저의 관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요, 만호동무가 조카사위란것을... 파장동무, 우리의 실태료해는 누구의 허물이나 들추고 결합을 사건화하는 그런것을 위해서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바로잡고 인간을 수양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사실을 정당화해주고 내세워줄수도 있는것입니다.》

원국은 덤덤한 자세에서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2

장마철치고는 보기 드물게 맑은 날씨이다. 포장도로를 따라 살갈이 달리는 차의 뒤좌석에 깊숙이 몸을 실은 원국은 차창으로 흘러가는 정경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다. 며칠동안 하늘이 퍼부은 물세례에 축축해졌던 사람들이 활기에 넘쳐 오간다. 찬연한 햇빛의 자애로움을 폐찬하듯 가로수들도 푸른 잎새를 펼쳐들고 흐느적이다. 그런데 원국은 현실을 감수 못하듯 침침한 인상 그대로이다. 차가 직동지구에 들어서면서 흰연기를 술술 피워올리는 세멘트분사업소의 소성로굴뚝이 안겨오자 그의 이마에 주름이 하나 늘었다. 이전에는 그 굴뚝만 바라보면 마음이 대뜸 즐거워지곤 했었다. 그 굴뚝이 순천비날론공장건설장에 탄원해온 제대군인들의 열정의 산물이였으며 기백과 투지의 상징이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는가. 분사업소가 초라해보이고 건설자의 긍지와 자부란것이 퇴약별에 구워낸 소금알처럼 좁은 알갱이로 남게 된것이...

사람들이 《...분사업소의 세멘트는 담 쌀기나 좋은...》이라며 하대하기 시작해서부터였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원국의 가슴은 서늘해왔다. 복받치는 정열과 투지를 안고 세멘트공장을 일떠세우며 흘린 땀방울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질이 낮은 세멘트를 앞에 놓고서는 그 피로움을 묵묵히 감수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바로 점차 희미해가는 어제날의 긍지를 다시 찾아 해도 세멘트생산기지를 빠른 시일안에 현대화하

여 질좋은 생산물을 뽑아야 했다.

제대군인의 투지와 기백을 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그때처럼 자력갱생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그런데 일판을 벌리자고 하니 손뭉이 풀리게 하는것은 현대화공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 만호가 동상이몽하는것이다. 좀 파한 표현인것 같지마는 하여간 만호는 수평로건설을 달가와하지 않는것이다. 원인은?...

원국의 눈앞에 만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쪽 빠진 키에 갱빳한 얼굴, 귀가 좀 울리째질사 한 눈매, 성큼하게 일어선 코마루, 건강미가 넘쳐흐르는 불깃한 혈색, 넓게 쪽 바라진 어깨, 처녀들의 혼을 앗아갈 정도의 미남이였던 총각시절의 만호였다. 인물만이라. 얼마나 정열적이였는가, 탐구적이였는가. 만호는 세멘트공장건설장에서 언제나 돌격기수였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제일먼저 세멘트생산기술을 습득하였다. 또 생활의 모든 면에서 막힘이 없는 다재다능가였는데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 그 어디서나 첫손에 꼽히는 재사였다. 지어 오락회에서도 인기를 독차지하곤 하였는데 뒤집을 지고서 발을 척척 구르며 어깨를 들썩이는 그의 특징적인 춤이 펼쳐지면 제사 암전을 빼던 처녀들도 따라일어서서 춤가락을 펼치곤 했다. 바로 이런 사나이다운 인물과 기질, 재능에 반하여 연구사로 있던 처조카도 만호를 따라 서슴없이 내려온것이 아니라.

문득 원국의 머리속에 만호와 처조카인 정정이가 사랑을 맺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바로 저 수직로를 세우던 그 시절이였다.

...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 정말 성공할수 있겠는가? 닭은 콩을 붓아 떡에 묻히면 되는 콩보숭이도 말하기는 단순해도 눈맛, 입맛이 다 돌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다. 하물며 돌을 가공하여 만년대계건축물을 일떠세우는 세멘트를 생산하는 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세멘트에 대해서는 초학도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수직로를 세우겠다 한다. 그래 수직로를 세우고 관리하는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도 아니지 않는가.

일부 일군들이 이렇게 머리를 기웃할 때 만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두달내로 기술을 전부 배우겠습니다. 하지고 결심하면 무조건 하는것이 군인기질입니다. 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을 연구한 원국동지의 조카와 그곳 연구소선생님들도 적극 돕겠다고 했으니... 믿어주십시오.》

만호는 다음날로 건재재료연구소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로부터 며칠후 뜻밖에도 처형의 노성이 편지에 실려 원국에게 날아들었던것

이다.

《…내 섭섭한 소리를 좀 해야겠어요. 우리 정경이는 대학적으로 최우수생이었고 지금 연구소에서 또 발전을 크게 기대하고있어요. 인차 학위론문을 끝내고는 외국실습을 가야 하는데 한 젊은이때문에 정신적방황을 하고있어요. 그 젊은이가 키쫄이나 있고 용모가 준수하니 사내싸긴 한데 속통머리는 왜 그리 돼먹지를 못했는지… 마음약한 우리 정경이를 어떻게나 휘저었는지 애가 통 말이 없고 민상태에 빠졌어요. 마주세운것부터가 잘못이니 빨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아본 원국은 당황해졌다. 처형의 말처럼 정경이는 가정에서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크고 용모 또한 절색인, 그야말로 난인물이였다. 그를 과학으로 크게 발전시키는것이 처가집의 소원이었고 못사람들의 기대였다. 그런데 이런 정경이를 만호가 건너다보는것이였다.

(헛참, 델데 대야지.… 연구사업을 하는 처녀가 이 시골에 내려오겠다고 할수가 있는가.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이 기술을 배우라고 보내니까 처녀 뒤쫓무니나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따분하게 만들어?)

원국은 분이 치밀어 편지를 받아본 즉시로 길을 떠났다.

연구소에 도착한 원국은 먼저 정경이부터 찾았다. 연구실에 들어서니 정경은 실험대우에 팔을 올려놓고 턱을 고인채 하염없는 자세로 앉아있는것이였다. 하얀한 꽃잎에 맺혀서는 동산에 퍼지는 해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처럼 정가롭고도 생기롭던 그의 눈이 회물이라도 들쭉듯 뿌옇하게 흐려있고 탄력이 흐르던 몸매도 별로 허거분하게 여겨졌다. 원국의 머리에 의혹이 갈마들었다. 큰 포부를 안고 자신감에 넘쳐 넓은 보폭을 내딛던 정경이가 이렇게도 쉽게 심신이 후술근해질수가 있는가?

원국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이모부를 알아본 정경이가 몸을 일으키였다. 그의 눈길이 사뭇 밝아졌다.

구원자를 만났다는 안도감에선가?

원국이가 맥빠진 목소리로 말을 떴었다.

《정경아, 이모부가 본의아니게 너에게 괴로움을 준것 같구나. 겉보고 속 모른다고 만호가 그런 엉터리일줄이야…》

정경의 입가에 허거픈 미소가 스쳤다.

《정말 엉터리였어요. 그는 저보고 나자신을 위하여 현장에 내려와 수직로를 세워야 한다고 열분을 토했어요.》

원국은 얼터름해졌다. 말의 본의를 깨달을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정경은 한숨을 호 내쉬고서 만호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만호가 연구소에 올라와서 기술전습을 받기 시작한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이날 시간을 낸 정경이가 수직로의 기술적원리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설명해주고있는데 만호가 왕청같은 물음을 던졌다.

《외국에 가면 배우는것이 많습니까?》

어처구니없는 물음에 정경은 이목구비가 멀끔한 청년을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비웃음을 실었다. 이견 어리석다고 해야 하는지 천진하다 해야 하는지…

《보고 듣는것이 많으면 아는것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배우는것이 없으면 어째서 국가가 돈을 들여 우리를 외국에 보내겠는가요.》

《그러니 돈을 내며 배우는군요.》

만호는 그제사 깨달음이 있는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른 물음을 끄집어냈다.

《알고보니 이 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은 동무의 논문이더군요.》

《대학졸업논문이었어요. 그런데 동무는 기술을 배우는것보다 처녀의 경력에 더 관심이 높은것 같군요.》

만호는 계면쩍게 웃었다.

《거, 현재는 내가 아무리 날구편대도 동무를 따라설수 없는거야 뻔한거구… 참, 그때는 어째서 논문을 현실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정경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말자체로 졸업논문이에요. 그리고 자그마한 수직로를 세워서 무슨 빛을 보겠나요?》

《그러니 리론상의 공로로군요. 그 공로로 일개인은 명예를 얻었지만 국가는 손해만을 보았습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못할 말을 했습니까? 동무는 국가의 혜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라에 준 리익은 무엇입니까? 현재 통과된 학위논문도 종이장오로만 남아있겠지요? 또 동무가 말하다싶이 국가의 돈을 쓰며 외국에 가서 배우는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발전된 나라에 가면 많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높은 지식도 무용지물로 될것입니다.》

만호의 이 말에 정경은 손상당하는 자존심으로 하여 입술을 깨물었다.

앞에 선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혼시하려드는가. 과학의 초입생이라는데 도의도 모르는가?

반발심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번졌지만 만호의 서늘한 눈초리앞에 처녀의 열기란것은 물속에 잠긴 단쇠 한가지였다, 치직— 하고 식는 소리만을 내는…

그 단말마적인 반발이 정경의 알뜰한 입술을 펼치며 튀어나왔다.

《동무가 뭘 아는것이 있다고... 모르면서 하는 혼시는 억지예요.》

《글쎄 난 과학에 대해서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정확히 압니다. 나라에 주는 리익을 위해서 연구사도 로동자도 필요하다는것을... 연구사동무, 현시기 수직로는 나라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직로건설을 위해서는 동무가 필요하구요. 나라를 위한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동무는 자신을 위해서도 현장에 내려와 수직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너무했으면 이해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만호가 흥하니 방을 나섰다. 잠시 멍한 자세로 있던 정경은 앞에 있던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무엇인가 억울감같은것이 가슴속에 차오르며 눈물을 쑥 밀어냈다....

...원국은 어처구니가 없어 웃었다.

《허, 난 만호가 너에게 반해서 치근거리는줄 알았구나.》

정경은 또다시 얼굴에 그늘을 담으며 머리를 저었다.

《그 반대예요.》

원국은 끄떡 놀라서 정경이를 쳐다보았다. 무용수처럼 균형잡힌 몸매에 젖빛같은 살결, 단번에 사내들의 애간장을 말리울듯 한 부리부리한 눈매, 무르익은 앵두살처럼 다치면 터질듯 말통한 입술... 미의 절정을 타고난듯 한 인물에 과학의 총아로 이름나 눈이 보통 높지 않던, 어찌보면 거부감까지 느껴지던 정경이가 한 로동청년에게 반하였다니 이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심중하게 생각해보았느냐?》

《예.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나는 만호동무를 주시하였어요. 그 동무는 처녀를 피로했다는 자책감에선지 나를 자꾸 피하려 하더군요. 그런데 만호동무가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저, 이런걸 사랑이라 한다면...》

정경은 얼굴을 활짝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정경을 바라보던 원국은 터무니가 없어 탄식했다.

《일이 났군... 이제 너의 어머니가 알면 천둥이 울거다.》

정경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에 대한 설복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맡았어요. 저와 아버지는 같은 과학도로서 통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호동무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그게 걱정이예요. 어제 내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원국은 또 한번 탄성했다.

《만호, 그 친구 살통을 만났군.》

그후의 일은 아주 리상적으로 얼음에 박밀듯 진행되었다. 만호와 정경의 결혼식, 수직로의 성공, 모든 사람들이 만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만호는 정열적인 기질의 사나이다운 사나이였다. 그런데 이는 만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였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년륜인양 그의 얼굴에 주름이 갔다. 살집도 줄고 근력도 이전같지 않을것이었다. 그런데 피할수 없는 육체적인 노화가 정신적인 로쇠까지 가져다주지 않았는지...

엇저녁부터 차를 타고가는 지금 이 시각까지 원국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서 답을 찾아보려 애썼다. 보수주의, 흔히 사람들은 낡은것을 고집하는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답이 얻어지는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사업상으로 또 인척상으로 만호에 대해서 알고도 남음이 있는 원국은 다른데서 답을 찾았다. 자기것에 대한 애착, 이것이 그의 눈을 멀게 한것이다.

물론 분사업소는 자력갱생이 안아온 열매이며 천만금에 비기지 못할 집체적재부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작지마는 궁지스럽고 놓기 아쉬운것이 아니라. 이 심정은 원국도 만호와 같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수십여년전에 건설해놓은 분사업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맨손으로 공장을 일떠세우던 그 정신이며 그 창조능력이 아닌가.

만호가 어느만큼 자기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하는것은 만아들 경선이가 처벌을 받게 한 일화를 놓고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이제는 3년전의 일이었다.

...련합기업소에서 있는 사업총화에 참가하고 공장에 들어서던 만호는 정문을 빠져나오는 화물자동차를 띠여보고서 머리를 기웃했다. 이럴 때 책임기사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책임기사동무, 저건 어느 단위의 차요?》

그는 큰길로 들어서는 차를 가리켰다. 책임기사가 머뭇거렸다. 이상한 느낌이 든 만호의 눈길이 날카로와졌다.

《저... 경선이가 끌고온 차인데... 경선이가 창고의 우기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세멘트를 못쓰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경선이는 청년돌격대에서 자재창고일을 맡아보고있었다.

만호가 버럭 소리를 쳤다.

《그래서 우리 세멘트를 실어다가 자기 죄를 면하겠다는거지?》

책임기사는 소장의 강파로와진 인상을 힐끔 넘보며 생각했다.

당파류판매원의 좁안에서 사랑알이 놓고 세멘트

를 생산하면서 타용무에 좀 쓸수 있는 일인데 제
아들이 바빠서 가져간 세멘트 뒤통이 뭐라고 저렇
게 열을 올리는가.

《소장동지, 그까짓 세멘트 인차 보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호가 그에게 눈을 부라렸다.

《책임기사동무, 이 세멘트는 우리 로동계급이
나라에 바치는 성실한 땀이 깃들었던 말ियो. 소
장의 아들이 아니라 할애비라도 탐오할수 없소. 그
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거
요.》

만호는 몸을 돌려 정문쪽으로 걸음을 놓았다.

《아니, 어디 가십니까?》

《세멘트를 찾아와야지.》

《예? 이젠 한참이나 갔겠는데...》

그 말에 잠시 멈춰섰던 만호는 정문접수실에 들
어가 전화를 들었다.

《...시교통보안대입니다? 세멘트분사업소 소장
입니다. ... 급한 일이 있어 그러합니다. 잠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세멘트를 잘못 났는데... 예 예, 차번호
는 평양22-3049입니다. 승리58가형, 알았습니다.
저도 인차 가겠습니다.》

만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책임기사를 지나
쳐 정문앞에 누군가가 세워둔 자전거에 올랐다. 만
호가 교통지휘대에 도착했을 때는 보안원들이 차를
단속해놓은 상태였다.

《소장동지, 이 차가 웬습니까?》

보안원중 한사람이 만호에게 물었다. 아버지를
떠여본 경선이가 눈이 휘둥그래져서 비명치듯 불
렀다.

《아니, 아버지...》

그 말에 보안원들도 놀랐다. 만호는 차바퀴를 짚
고 올라 적재함안을 들여다보고서는 손을 털며 영
문을 몰라 눈만 머뭇거리는 운전사에게 다가갔다.

《운전사동무, 미안한대로 차를 다시 사업소로
돌려주시오.》

경선이가 얼굴을 붉히며 투덜거렸다.

《그까짓, 저장도세멘트 뒤통이 뭐라구...》

그 소리에 주먹을 부르르 펴던 만호가 용케도 자
신을 다잡았다.

《이 세멘트가 네게는 그렇게도 하찮게 보여도
피땀을 바쳐 공장을 일떠세운 네 아버지들에게는
금보다 더 귀중한거다. 운전사동무, 어서 차를 돌
려주시오.》

이렇게 되어 경선이는 끝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고 한다.

...이 일을 전해듣고 원국은 만호가 너무하지 않
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것
을 지키려는 고귀한 정신에는 머리를 숙였었다. 그

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웅졸한 사고였다, 현
실을 폭넓게 대하지 못하는... 언젠가 원국은 만호
네집에 갔던적이 있는데 그 집 부뚜막이 다 터갈라
져있었다. 저장도세멘트를 썼기때문이였다.

《좋은 세멘트가 없어서 부뚜막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그래도 어쩐지 우리가 만든 세멘트를 꼭 쓰고
싶더군요.》

이것이 만호를 현실에서 뒤흔구는 《자기것에 대
한 애착》이였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아껴야
하는가? 시대는 나날이 발전한다. 시야를 넓히라.
우리의 도시들엔 초고층건물들이 수풀처럼 일어선
다. 농촌에서도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
어선다. 수십톤급대형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다닐
고속도로들이 온 나라에 뻗어간다. 그런데 만호는
언제까지나 부뚜막수리도 제대로 할수 없는 세멘트
를 붙어안고 몸부림칠텐가. 언제까지 시야를 초고
층에 뻗치지 못하고 단층에서만 땀들셈인가?

원국은 바로 이것이 가슴아팠다. 그래서 분사업
소가 가까와오는 이 시각도 괴로움으로 모대기는
것이였다.

문득 원국의 머리에 섬찍한 생각이 스쳐지났다.

만약 만호가 정말로 시대에 뒤떨어져 현대화공
사는 물론 새롭게 변모될 사업소를 이끌어갈 능력
이 없다면... 혹시 그래서 현대화공사를 시담지 않
아하는것은 아닌가?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
는가?)

원국은 머리를 저었다. 직접 료해해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것은 자기가 당직원직선을 떠나서 그
어떤 인척관계나 친분관계에 용해될수 없다는 그
사실이였다.

3

원국이 탄 차가 분사업소정문앞에 와서 멈춰섰다.
경비원들이 있었으나 무슨 일에선지 기사니목을 해
가지고 소성로쪽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운전사가 경적을 울렸다.

《무슨 일이요?》

원국은 열에 뜬듯 한 경비원들의 얼굴을 이상하
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로보수전투가 한창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해체겠지?》

《아닙니다. 소장동진 오늘중으로 로를 꼭 보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구? 어제 불을 끈 로에 사람이 들어간단
말ियो? 미쳤군.》

눈섭을 푸드들 떨던 원국이 소성로쪽으로 빠른 걸음을 놓았다. 가슴이 후드득 떨려났다. 로사고가 있어 24시간, 아직은 로안의 온도가 높고 가스가 채 빠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 사람, 일을 치자고 잡도리를 단단히 했군.)

원국은 일손을 잡고 봄비는 사람들을 헤치고 높은 로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소성실에 당도했다. 중키에 몸이 앙바툼한 책임기사가 원국의 서슬푸른 기상에 오금이 저려선지 두터운 도수안경을 추스를 뿐 말을 못했다.

《소장동무는 어디에 있소?》

《로안에 있습니다.》

《당비서동무는?...》

《당비서동지도...》

《한심해. 당일군까지 어깨를 결들어주니 분수없이 물덤병 술덤병이지... 아, 사람을 한명 쓰러뜨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원국은 화실감시구로 다가갔다. 거기에 바줄들이 늘어져있었고 아래에서는 로체를 복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감시구로는 아직도 숨길을 꺾 메게 하는 열풍과 가스내가 확확 뿜어나왔다. 책임기사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동문 뭐요? 뭘 하는거요?》

《로보수를 지휘합니다.》

《그걸 몰라서 묻소? 내가 수평로를 세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주었는데 뭘 말라빠진 시험이고 로보수는 또 뭐요?》

《저, 우린 수직로를 현대화하여 질 좋은 세멘트를 뽑자는 겁니다. 런합기업소 현대화에 필요한 세멘트도 보장하고... 그래서 시간을 당기자니 별수 없어서...》

원국은 놀라움의 눈길로 책임기사를 한참 바라보다가 탄성을 질렀다.

《허, 꿈같은 소릴 하지도 마오. 뭐, 수직로에서 고강도세멘트를 뽑는다고?... 여보, 낚시줄 던져 달 낚아올 허망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당장 작업을 중시시키오. 그리고 소장동문 나에게 보내오.》

원국은 소래침은 상을 하고 서있는 책임기사를 비껴세우고 계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올라올 땐 물랐는데 내리자니 다리가 후드들 떨려왔다. 그래서 쇠란간을 쥐고 한계단, 한계단 내리는데 밑에서 정경이가 올라오다가 다소곳이 인사를 했다. 원국은 세 자식을 거느렸어도 아직 몸매가 꼳꼳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남아있는 그를 바라보다가 거칠게 말했다.

《그러니 너도 남편장단에 춤을 추는게구나. 동조할게 따로 있지. 한다하는 연구사인 너야 옳은 과학적리성을 가지고 랭정하게 판별해야 할게 아니냐?》

정경은 현재 건재연구분원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모부, 수직로에 의한 고강도세멘트생산은 경선이 아버지의 소원이예요. 그인 이를 위하여 수년간 탐구를 거듭하여 지금의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우리는 이를 수십번의 모의실험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어요. 확실히 원료에 철광석대신 류화철을 첨가하면 크링카의 익음온도가 낮아지고 요출전에 물을 분사하면 엉겨굳었던 크링카가 쉽게 풀렸어요.》

지금까지 수직로에서 저강도세멘트밖에는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우선 수직로상에서의 기본원료인 무연탄을 가지고는 천삼백도 이상의 온도를 올릴수 없는 것이며 만약 온도를 올린다 해도 그렇게 되면 고열에 크링카가 굳어지기때문에 요출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익음도를 낮추고 물을 분사하여 갑작식힘으로 응고된 크링카를 풀어 요출을 한다는 것이다. 리론적으로야 얼마나 귀맛이 도는가. 하지만...

《그렇게 확신적이었다면 어째서 현장시험이 실패하고 사고까지 났느냐?》

《지금 사고원인을 찾고있는데...》

정경이가 눈가에 그늘을 지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원국은 그런 정경을 내려다보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주관적욕망이 과학적확신을 대신할수 없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뒤수습을 하고 수평로를 앗힐 준비를 하자.》

원국은 망연히 서있는 정경이를 지나쳐 소장방으로 향하였다.

...원국이가 땀을 좀 들이는데 만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욕이라도 한바탕 해댈 잡도리로 날카로와진 눈길을 들던 원국은 그의 주제를 보고는 인츰 말을 떼지 못했다. 눈엔 피발이 서고 볼편은 훌쩍 해졌으며 입술은 부르터난 상태였다. 아마 땀을 패며 일을 한것 같았다. 무엇인가 한번 일손을 잡으면 밤잠을 모르고 끝을 보고야말던 젊은 시절의 기질이 여전하였다.

그러고보면 만호가 정신적으로 로쇠가 들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단지 시야적인 제한이었다. 현실을 민감하게 감수하고 방향타를 정확하게 돌릴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헛고생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다른건 누가 대신 못한다 해도 방향만은 옳바로 잡아줄수 있지 않겠는가.

원국은 이런 생각을 하며 만호에게 푹 가라앉은 어조로 말을 뱉었다.

《자네 일을 쓰게 하는것 같지 않아. 시대발전의 요구를 따라서지 못하거든. 그러니 되지도 않을 일

을 붙어잡고 사서 고생을 한단 말이야.》

만호는 피로로 해서 벌겋게 충혈된, 하지만 어떤 갈망의 빛이 질게 어린 눈길로 원국을 잠깐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내그었다.

《전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직로가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것이라면 어째서 발전됐다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 그 수직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겠습니까?》

원국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만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네 그것두 말이라고 하나? 자본주의기업가들은 리윤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하는것을 우리에게 대다니...》

《웁습니다. 개인기업가들은 세멘트생산에서 보다 큰 리윤을 추구하여 수직로를 건설하고있습니다. 또 실천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었구요. 그렇다면 자본주의기업가들은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고 우리의 수직로는 국가에 보다 큰 리익을 담보하는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원국의 얼굴이 검붉어졌다. 어쩐지 배반당한 감정이랄가. 것처럼 믿어주고 내세워주던 사람이 자기와 사리를 따지자고드니 가슴속에서 울분이 끓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니 자넨 애국자고 그럼 난 뭐가... 그래 수직로는 수입자재가 하나도 필요없는 순전한 국내산이지. 그뿐인가. 전기도 적게 먹고 부지도 작지. 얼마나 실리적인가. 헌데 그런 실리를 보장한 세멘트를 누가 쓰겠다 하나?... 그럼 수직로에서도 고강도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다는 소릴 하겠지. 안될걸. 그건 발전된 한두나라에서밖에 성공하지 못했어.》

《어느 나라는 성공했는데 우리는 어째서 못하겠습니까?》

원국은 쓴웃음을 지었다.

《좋네. 확신이 있다면 해보라구. 그러나 사고원인을 정확히 해명하기 전에는 그 무모한 현장도입을 난 승인할수 없네. 이젠 가보게.》

원국은 아예 만호를 등지고 돌아서서 컴퓨터와 마주했다. 만호가 거센 숨을 내쉬다가 몸을 일으켰다.

《과장동지, 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다제단으로 일어나는 사변들이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 의하여 이룩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것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안아온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이 공장을 건설하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전 과장동지가 이런 시대적인 격류에 합쳐지지 못한, 기술패도는 잔물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했으

면 용서하십시오.》

화염방사기의 사격인듯 순간에, 거세게 말을 쏜 만호는 원국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서 방을 나섰다. 했으나 원국은 컴퓨터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보기에는 화면에 흐르는 생산 및 판매수자를 후열하는듯 했지만 실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동안 이러고있던 그는 별안간 너털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내가 시대를 따라서지 못한단 말이지, 이 리원국이가, 허허.)

그러던 그가 정색해졌다. 눈길이 창너머 수직로에 가 멎었다.

4

원국은 청사를 나섰다. 한껏 들쭉던 하늘에 또다시 검은구름이 드리우며 보슬비를 쏟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비꽃의 산뜻함을 느끼며 그는 몸을 으ışı 떨었다. 몸이 떨리는것과 함께 조건반사적으로 피곳 떠오르는 회억이 있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발, 옷옷들을 벗어붙이고 그속을 질주하는 사나이들의 울퉁불퉁한 근육,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

청춘의 용감성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그앞엔 산악같은 바위도 녹아내리네

혼합물을 무독히 쌓아담은 맛들이수들이 발을 맞춰 달리며 선창을 때면 용접공들이 용접봉을 휘두르며 화답을 한다.

위훈을 벗삼아 희망은 꽃피고

용감한 청춘은 자랑만 있네

그들은 또다시 용접면을 눌러쓰며 혁신의 불보라를 날린다. 그다음 온 건설장에 메아리치는 합창.

조국을 위하여 태어난 청춘들

용감성과 청춘은 하나이라네

아, 투지와 랑만이 차고넘치던 위훈의 시절이여... 그 시절의 정열이, 기백이 수직로며 마광기에, 숙성탱크와 콘베아에도 슴배어있다. 바로 그 기상이 숨결이 되어 지난 이십여년간 세멘트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제날의 위용을 다 날려보내고 허울만 남은듯... 로는 숨을 죽이고 비풍에 몸을 맡긴채 외로이 서있다. 웬일인지 침침한 저 하늘처럼

원국의 마음은 쓸쓸해났다. 그는 공장구내를 한 번 둘러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을 찌르며 확 안겨오는 것이 있었다. 숙성탱크벽면에 내려쬘 구호.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그 구호를 바라보느라니 귀전에 울려퍼지는 열정적인 웨침이 있었다.

《자력갱생, 이것이 우리의 혁명정신이다. 물질적부를 이 손으로 창조하자. 하자고 결심해서 못 할 것 없다. 세멘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자신 있다!》

그때였다. 온 나라가 대건설의 열풍으로 끓어번지던 1980년대였다.

원국의 머리속에 세월을 거슬러 그 나날이 펼쳐졌다.

...

《...그래, 우리가 쓰고살 집도 우리의 손으로 지어야지. 자, 퇴근후에 살림집건설을 도와주자구.》

천세대살림집건설장에 지원나갔던 제대군인들은 그만에야 실망하고말았다. 살림집건설장에 토피가 가득 찍혀져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토피집에서 살아야 한다는겁니까?》

《어쩌겠나. 지금은 세멘트 한그람이 귀중할 때야. 살림집건설에까지 돌릴 여유가 없네. 그러니 자력갱생을 해야지.》

건설직장장의 말에 원국은 불끈했다.

《직장장동지, 우리가 군대에서 배운 자력갱생은 궁여지책이 아니라 창조란 말입니다. 여기 이름난 석회석산지에서 토피집이라는게 어디 될말입니까?》

《동무 뻔히 아는 투정을 하누만. 석회석이 절로 세멘트가 되나? 지금 세멘트공장에선 중요건설대상에 보낼것도 미처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맨손으로 세멘트를 구워낼수도 없는 노릇이고...》

《필요하다면 세멘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이래도 만들어내야지요. 우리는 토피집에서 살수 없습니다. 자, 동무들, 가자구.》

제대군인들은 아연해서 말을 못하는 직장장을 외면하고서 돌아섰다. 하지만 직장장앞에서는 기세를 올린 그들이었지만 건설장을 빠져나와 강변에 다달아서는 어깨들이 축 처지고말았다. 당장에 세멘트를 생산하자면 뭘 아는것이 있고 주어진것은 무엇인가. 직장장말처럼 알짜 맨손이 아닌가. 이런결 두고 만용이라고 표현하는것은 아닌지...

《원국동지, 무슨 타산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원국에게 만호가 물었다.

《특별한 타산은 없소. 하지만 군인정신을 가지고서는 용인할수가 없더군. 지금이 어떤 땐가. 대비약, 대혁신으로 출달음치는 80년대가 아닌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해... 거 타산이라 한다면 일전에 처가집에 갔을 때 건재공업연구소 연구사로 있는 처조카의 론문을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에 대해서 서술했더군. 형식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소석회로와 같아. 어느 나라에선가는 이를 성공했는데 특별한 설비가 필요없고 공장부지는 적게 먹으며 생산원가도 작다누만. 결함이라면 강도가 낮은것인데 저 토피보다야 훨씬 낫지 않을까.》

제대군인들이 환성을 올렸다.

《좋습니다. 이제 공격목표가 뚜렷하니 돌진해봅시다. 그런데 대오가 형성되었으면 물론 참모장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원국동지, 우리에게 공격방향을 정해주십시오.》

원국은 제대전에 초기복무사관이였다.

《내 동무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겠소. 그럼 임무를 주겠습니까. 주명동무는 아버지가 기계공장에서 지배인으로 계시니 설비를 맡아주오. 철규동무는 후방 그리고 이것이 제일 힘든 임무인데 아무래도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만호동무가 기술공정을 맡아주어야 할것 같소.》

만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 세멘트생산에 대해서는 아예 아는것이 없는데...》

《이제부터 배워야지. 여기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있는거구... 당면하게는 우리 조카의 도움을 받자는거요.》

이로써 임무분담과 함께 《간부사업》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다음날부터 세멘트를 자체로 생산하려는 제대군인들의 열의는 화약에 달린 불같았다. 낮에는 비날론공장건설장에서, 밤에는 세멘트공장건설장에서... 당조직에서 그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바로 이렇게 일떠선 공장이였다. 첫 시제품이 나온 그날 역대우같은 사나이들이 눈물을 흘리였다. 출구를 통해 쏟아진 세멘트를 쓸어보고 쥐어보고 불에 비비기도 하며... 누구의 소행인지 소성로 굴뚝에서 꽃보라가 훑날리며 로체머 사람들의 몸에 내려앉았다. 소성감시구를 통해 넣은 꽃보라가 세찬 송풍기바람을 타고 쏟아나온것이다. 만호가 두팔을 벌리고서 환성을 올리다가 문득 정색해서 숙성탱크의 높은 원형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국동지, 우리 저기다가 구호를 크게 써넣읍시다.》

《어떤 구호?》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어떻습니까?》

《좋소. 나도 같은 생각이었소.》

탑식기중기를 타고오른 만호가 굵직한 붓에 피발 같은 색감을 듬뿍 먹여 힘있게 휘둘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건설자들은 그 구호를 바라보며 우렁차게 합창했다.

그 시절 세멘트분사업소건설에 참가했던 제대군인들모두의 지향은 하나와 같았다. 마음도 걸음도 지어는 숨결까지도...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천리마를 탄 시대가 어제부터 오늘에로, 매일로 더 세차게 줄달음치고 있다. 발전의 그 거세찬 흐름속에서 우리들사이엔 그 어떤 차이가 생겼다. 만호와 나, 시점에서, 분석에서, 지향에서 너무도 다르다.

문득 눈찌사나운 만호의 얼굴이 안겨오며 불뿔듯 하던 말이 귀전을 울렸다.

《전 파장동지가 이런 시대적인 격류에 합쳐지지 못한, 기술을 맴도는 잔물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시대적인 격류에 밀려난 인간인가?

원국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결코 일장의 론리가 진리를 대변하는건 아닌것이다. 결과만이 진리를 증명할수 있다.

원국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위안하는데 생산지령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 사고심의때문에 매일 검열위원회 일군들이 온답니다.》

원국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잠시 생산지령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홑떴다. 흐리마리해졌던 그의 눈가에 촉기가 뿔쳐올랐다.

그렇다. 사고였다. 수직로에서 질이 좋은 세멘트생산을 위한 현장도입은 사고로 이어졌다. 만일 성공했다면 만호의 립장과 선택이 옳은것이였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또 하겠다고 한다. 만약 책임추궁이 들어오면...

원국은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실패의 쓴맛을 다시 재현하게 할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까지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 빨리 일을 수습하자.

원국은 눈길을 들어 승용차를 찾았다. 눈치빠른 운전사가 제격 차를 댔다.

《병원으로 가자구.》

이때 분사업소 초급당비서 김주명이 차결에 다가왔다. 그도 이 공장건설에 참가했던 사람들중에 한 명인지라 원국이와는 친분관계가 깊었다.

《파장동지,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면 함께 갑시다.》

병원정문으로 들어서는데 여러 사람들이 서로들 부축을 하고서 다리를 절며 걸어나오고있었다. 낮이 익은걸 보니 세멘트분사업소사람들이었다.

《저들이 왜 그러오?》

《오늘 오후에 사고로 화상을 입은 영석동무에 대한 1차 피부이식수술이 있었습니다.》

주명의 대답에 원국은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레상사로 되고있는 미거였지만 어쩐지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원국은 차에서 내리며 운전사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을 집까지 모셔다드리오.》

대기실에 들어서니 의자에 맥폴린 자세로 앉아있던 만호가 엉거주춤 일어서는것이였다. 자세가 불편한걸 보니 그도 피부이식을 해준것 같았다. 죽은 사람처럼 해쓱해진 그가 어쩐지 환자에 이어서 쓰러질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원국은 그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그래 환자의 상태는 어땠소?》

《수술이 성과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헌데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의식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원국은 사고심의를 머리에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수십년간의 사업경험에 의하면 사고심의 당시 사고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 상태가 험한 경우엔 문제가 더욱 엄중하게 취급된다는것이다. 원국은 모두거리로 말했다.

《일은 저질렀으니 책임은 저야 하는거요. 하지만 수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경과될수도 있지. 이렇게 합시다. 나와 비서동무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만나고가겠으니 소장동무는 몸이 불편하겠지만 어떡하겠소. 가서 사고현장을 정리하오. 그리고 수직로보수에 대한것은 일언반구하면 안되겠소.》

만호가 눈시울을 좁히며 원국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말입니까? 우린 수직로를 보수하여 고강도세멘트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동지가 지시한대로 사고원인을 찾고있는중입니다.》

《아니, 동무 말이야...》

불끈해서 목청을 올리던 원국은 뒤통수 병원이란 생각에 소리를 낮추었다.

《그래 당장 사고심의가 들이닥치는데도 쇠고집이요? 일단 문제가 크게 번지면 고집을 부리고싶어도 못해.》

만호가 얼퍼름한 표정을 짓고 당비서에게 의문의 눈길을 주었다. 그제서야 원국은 그가 아직 사고심의내용을 모르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소장동무, 매일 검열위원회 일군들이 내려온

다오.》

주명이가 말해주었다. 만호는 고개를 숙인채 한동안 침묵을 했다. 그러다가 머리를 벋쩍 드는 것이었다.

《사고를 쳤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수직로에 의한 고강도세멘트생산은 꼭 해야 합니다.》

원국은 아연해졌다. 당장 자기의 운명문제를 론하게 될 마당에서도 저렇게 배짱이 든든할수 있는가. 무엇을 믿고… 혹시 자포자기적인 객기가 아닐까.

원국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을 하려는데 의사가 막 뛰어왔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소장동지를 찾고있습니다.》

세명이 거의 동시에 벌떡 몸을 일으켜 입원실로 달려갔다.

《소장동지… 소장동지…》

가슴부위와 팔을 봉대로 둘러감은 청년이 눈길을 허둥거리며 소장을 붙렸다. 불길이 뿜어오를 때 머리를 돌린것으로 하여 다행히 얼굴은 별로 화염을 맞지 않은 그였다. 만호가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받쳐주었다.

《영석이, 나 여기 있소.》

《소장동지, 사고는 저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뜻밖인듯 한 눈길들이 오갔다. 입을 썰룩이던 영석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시험할 때… 소장동지가 콤퓨터조종실에 간새 난 물분사자동조절변을 막았습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로안의 온도가 식겠는데… 물을 분사하지 않으면 강도가 더 오를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현대 크링카가 덩이진채 풀리지 않고, 그래서 조금하계 쇠장대질을 하다가… 절 용서해주십시오.》

원국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온몸이 굳어짐을 느끼었다.

만호가 환희의 감정을 억제 못하여 영석을 꺼안을듯 두팔을 벌리다가 그의 얼굴에 자기 불을 비볐다.

《이 엉뚱한 친구야, 고맙다, 고마워. 이젠 사고의 원인을 찾았으니… 자넨 이거야, 이거.…》

만호가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영석은 그와 얼굴을 맞비비다가 원국에게 눈길을 주었다.

《파장동지.》

원국이 그 옆에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걱정해주어서… 전 일없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파장동지가 우리는 수직로를 못한다고 계속 욕을 하더라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소장동진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 있는 수직로에서 질 좋은 세멘트

를 뽑아낸 다음 그런 로를 두개, 세개, 다섯개 이렇게 많이 건설하여 생산을 팡팡 낼 때 사업소에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자, 장군님께 우리의 자원, 우리의 연료, 우리의 기술로 초고층아빠트도 능히 건설할수 있는 질 좋은 세멘트를 생산합니다 하고 몇몇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영석은 흥분으로 해선지 숨을 헐떡이었다. 곁에 있던 간호원이 말했다.

《환자를 흥분시키면 안됩니다.》

《간호원동무, 난 일없소. 파장동지.》

영석의 눈귀로 눈물이 내려흘렀다.

《우리들이 그 소원을 이룰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말고… 영석이, 지금 동무의 가장 큰 임무는 치료를 잘하여 빨리 퇴원하는거야. 그래야 로에도 다시 서고 장군님도 만나뵈울게 아닌가.》

원국은 눈시울이 후터워움을 느끼며 영석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눈귀가 벌겋해진 만호와 주명이 그 어떤 기대를 안고 원국을 바라보았다.

원국은 긴숨을 내뿜며 말했다.

《좌우간 공장에 가보게. 만약 또 사고가 나면… 그때는 누구도 대신 못해준다는걸 명심하게.》

만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파장동지, 고맙습니다.》

만호는 영석에게 논문사를 지어보이고서 입원실문을 나섰다.

만호가 간 다음 원국과 주명은 병원앞 소공원에서 나무들사이를 거닐었다. 원국이 먼저 말을 건네었다.

《비서동무는 수직로에 의한 고강도세멘트생산이 성공할수 있다고 보오?》

《파장동진 아직 믿음이 없으신가 봅니다.》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소.》

주명이 걸음을 멈추고서 원국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혔다가 헤어졌다. 원국은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이젠 늙었나보오.》

《파장동지, 구르는 돌엔 이끼가 끼지 않지요. 맨손으로 세멘트공장을 건설하던 그 시절에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그럼 주저될게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인채 아무 응대도 없는 원국을 바라보며 주명은 말을 이었다.

《물론 우리가 우에서 보장해주는 용량이 큰 수평로를 얹히면 쉬운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처음엔 우리도 얹은자리에서 떨어지는 복을 안게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성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소장동무의 안색이 무겁더군요. 수평로를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어떻게나 알았

는지 수직로를 가진 어느 한 세멘트공장 지배인이 자기네도 수평로를 받아들여 공장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소장동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 우리의 궁지가 무엇인가, 맨손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을 성공시킨 그것이 아닌가, 우리의 뒤를 이어 수많은 지방산업세멘트생산기지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그 공장들이 고강도세멘트생산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수평로를 앉히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 건설비용은 얼마나 막대하며 또 중유나 콕스를 배합해야 하는 수평로에 의한 생산은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들겠는가, 그렇게 되면 국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기간 수평님께서 창성련석회에서 하신 연설을 자자구구 따지며 다시 학습하였다, 수평님께서 지방산업공장은 지방자체의 실정에서 자기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는데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의지와 맨손으로 공장을 일떠세우던 그때의 정신만 있으면 수직로에서도 질 좋은 세멘트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 ...

우리 소장동무는 이런 사람입니다. 국가에 더 큰 리익을 주는데서 자신의 몫을 찾는... 그 몫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낳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늘이 건듯 들리고 서산에 노을이 피어오른다. 며칠만에 보는 저녁노을이다. 원국은 주명의 이야기엔 흥미가 없는 듯 그 노을만 점도록 바라본다. 하지만 그의 심중에서는 무서운 격랑이 일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빈민, 타매, 울분... 이제는 명백해졌다. 자신과 만호에 대한 차이가... 나라를 위해 바치려는 몫에서의 차이였다. 그러고 보면 정신에서의 로쇠는 만호가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것을 자인하려니 원국은 마음이 허전해움을 느끼었다.

6

밤을 패며 보수를 끝낸 수직로에 불이 지펴졌다. 한창 원료를 장입하는데 검열위원회 일꾼들이 공장에 들어닥쳤다. 원국이 그들을 맞이했다.

《보다실이 지금 로시험을 하는 중입니다. 일이 끝난 다음 사고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니, 었그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또 시험을 한단 말입니까?》

《사고의 원인도 찾았고 또 여기 로동계급은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며 원국은 곁에 서있던 정경이를 검열성원들에게 내세웠다.

《건재연구분원의 연구사입니다. 이 동무에게 들으면 수직로에 의한 고강도세멘트생산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경에게 검열성원들을 떠맡긴 원국은 로제단을 뚫아 소성실에 들어섰다. 소장파 당비서가 로상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원료와 연료, 첨가물들을 혼합하여 빚은 콩알만 한 성형알들이 로에 고루 퍼졌다. 그사이로 시퍼런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다.

《로상태가 어떻소?》

《아직까진 별다른 징후가 없습니다.》

원국의 물음에 만호가 대답했다.

《로온도는 얼마요?》

《현재 천백도계선입니다.》

《벌써?》

원국이 놀라와하자 옆에 있던 소성공이 히죽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아마 인차 천삼백도를 넘을 겁니다. 컴퓨터에 의한 원료자동정량기를 설치한데다 소장동지가 연구한 원료혼합비를 새롭게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온도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세멘트 톤당 석탄소비량도 백오십키로로 줄이었습니다. 다 소장동지의 공로지요.》

소장자랑에 열성인걸 보니 그가 종업원들속에서 얼마나 신망이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원국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정말 수직로에서 고강도세멘트만 나온다면 국가에 주는 리득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때 컴퓨터조종실에서 처녀의 애원 목소리가 날아왔다.

《로안 온도가 천삼백도입니다.》

그 소리에 눈초리들이 날카로와쳤다. 나이지숙한 소성공 한명이 만호가 쥐고있는 쇠장대를 감아 쥐며 말했다.

《로앞엔 우리가 서겠으니 소장동무나 파장동진 뒤에서 지시나 주시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 사전에 말했지, 오늘 로앞에 내가 서는 것은 당위원회 결정이라고.》

《그렇소. 당위원회에서는 소장동무와 내가 로앞에 서기로 결정했소.》

주명이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만호의 곁에 섰다. 만호가 시답지 않은 눈길로 주명을 바라보다가 쓴입을 다쳤다. 소장의 호령소리에다 당비서까지 맞장구를 치니 소성공들은 하는수없이 뒤전에 섰다.

《파장동지도 좀 물러서십시오. 인차 물분사를 하겠습니까.》

만호가 로안처럼 시퍼런 불길이 튀기는 눈길로 원국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국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 미소의 의미를 읽

있는지 만호는 더 다른 말을 얹고 물분사자동조절 변을 돌렸다. 송풍기에서 올려쬐는 바람소리와 함께 와 하는 물 타는 소리가 들리며 희묘한 증기발이 세차게 솟구쳤다.

널뛰듯 하는 심장의 박동소리, 긴장한 시간. 마음을 조이는 시간이 흐른다. 순간에 내뿜은 땀발이 비물흐르듯 흘러내렸다. 눈살이 파드들 떨어왔다.

최장대로 로안을 찢어보던 만호가 지령대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요출!》

이어 몸체를 흔드는 요출기의 떨림이 발밑에 미쳐왔다. 원국은 눈을 꼭 감았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실패... 성공...

갑자기 대화기에서 웨침소리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목소리가 울린다.

《소장동지, 잘익은 크링카가 요출되어 나오니다.》

뒤이어 환희에 넘친 웅성임소리가 울려나온다. 소성실에 있던 소성공들도 저마끔 경충경충 뛰며 환성을 올린다.

《성공이다.》

원국은 소성실바닥이 꺼지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는것과 함께 온 땀이 뿜아져나간듯 다리가 매시시해났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주저앉고싶은 심정이였다. 원국은 만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돌부처처럼 쇠장대를 쥔 자세에서 부동으로 있다가 몸을 돌렸다. 그러며 머리를 저었다.

《아직은... 강도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돌파하기 전엔 성공이라고 말할수 없소.》하며 로계단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파죽하기란... 하긴 강도를 측정해봐야지.)

만호의 뒤를 따라서던 원국의 눈에 검열조성원들이 안겨왔다. 그들은 머뭇해서 미소를 지어보였다. 원국은 그런 그들에게 말했다.

《책임문제로 말하면 소장동무가 아니라 자기 힘을 믿으려 하지 않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고의 책임이 소장동무에게 없다는것을 압니다. 오는 길에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와 이곳 사업소당위원회에서 올라온 실태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맙습니다.》하고서 원국은 층계를 내려 분석실로 들어갔다. 단발머리의 처녀가 분석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 콩알만 한 땀방울들이 또그르륵 굴러내렸다. 소장파 책임기사, 당비서가 바늘끝처럼 예민해진 눈길로 처녀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긴장하게 살핀다.

동안이 흐른 뒤 분석이 끝난듯 처녀가 일손을 놓

으며 머리를 수그렸다.

《어떻게 됐소?》

책임기사의 성급한 물음에 처녀는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듯 말했다.

《성공입니다.》

그러자 책임기사는 책상을 탕 치며 호통치듯 말했다.

《그러면 그렇겠지.》하고는 문밖을 뛰쳐나가며 소리개를 질렀다.

《동무들! 성공ियो.》

마당에서 만세가 터졌다. 만호의 눈동자가 흐리마리해지더니 눈물이 훌쩍해진 불을 쭉 내리질렀다. 원국이 그런 만호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문밖으로 이끌었다. 마당에서 좋아라 어쩔줄 모르던 사람들이 만호와 주명을 얼싸안아 하늘높이 추켜올렸다.

아, 환희에 울고웃는 사람들이여...

원국의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20여년전의 그날이 되새겨지며 눈물이 불쑥 솟구쳤다. 꼭 그때의 흥분, 그때의 열도가 그대로 차올랐다.

자기의 힘으로 일떠세운 공장, 자기의 힘으로 번영하는 공장.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찬연한 해빛을 받아 숙성탱크벽면의 구호가 두드러지게 안겨온다. 석회석을 요란스레 부서대며 마광기가 기운차게 돌아간다. 원료를 실은 콘베아들이 춤추듯 흘러간다. 송풍기가 웅건한 소리를 내며 쇠췌 바람을 쏘아댄다. 활력이 넘쳐흐르는 소성로의 억센 동음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워쳐주는듯 했다.

문득 좌석과 어울리지 않는 추억이 눈앞에서 흘렀다.

...두주먹을 부르쥘고 주로를 달리는 두사람.

《원국동지, 달리기에선 젊은 나에게 안될겁니다.》

《흠, 모든것은 주력으로 하는게 아니야. 정신으로 하는거지.》

어느해인가 5.1절경축 체육경기대회 천메터달리기경기에서의 일이다. 그때 누가 이겼던지... 승부는 문제가 아니였다. 어제는 오늘을 위하여 필요하고 래일에 가면 오늘이 필요할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을 달려야 한다. 시대에 발맞추어 직심스럽게, 꾸준하게, 변함없는 자세로...

원국은 룩상주로에 나서서 신호총소리를 기다리는 선수마냥 긴 호흡으로 가슴을 불구며 머리를 들었다. 소성로굴뚝에서 꽃보라가 쏟아나와 사람들의 머리위에 흩날렸다.

꼭 20여년전 그날처럼...

약 속 외 2편

— 룡매도간석지건설전투장에서 —

함 영 군

한마을에서 나서자란
총각과 처녀
군대에도 같은날 함께 떠나더니
제대되어 고향집에 배낭을 풀새없이
간석지건설장으로 달려갔다네

젊음이 넘치는 꿈많은 청춘시절
고향을 락원으로 꾸리는 일에
청춘을 바치자 서로 약속하고
그들은 떠났지
총각은 룡매도 처녀는 저미도로

수천년세월 날바다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살던 섬 룡매도와 저미도
오늘은 두 섬의 상봉을 마련하려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간 그들
그들의 상봉은 섬의 상봉 섬의 상봉은 그들의
상봉

하루빨리 상봉의 그날 앞당기자고
쇠북치듯 울리는 두 섬의 발파소리에

바다속에 잠들었던 제방이 잠을 깨고
날바다우에 우뚝 솟아난듯
섬이 섬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제방

두 섬사이 솟아나는 제방 보니
어제날전설이 생각난다
까막까치 다리 놓아 견우직녀 만나게 했다는
전설의 오작교는 눈물의 다리
하루에 생겼다 없어지는 작별의 다리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생겨난
전설아닌 전설이 많은 나라
이제 그들은 상봉하게 되리
두 섬이 손잡고 바다우에 받들어올린
황금파도 설레일 간석지벌에서

그날 그들은 또다시 약속하리
황금파도 설레이는 여기 간석지벌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 그날 위해
강성국가 해돋이를 이 벌에서 선참 맞기 위해
영원히 간석지건설자로 살 한생의 약속을!

잔파도와 이야기하며

오늘은 2호제방
마감막이 끝마친 날
아름다운 저녁노을에 물들어
반짝반짝 금구슬인가 은구슬인가
밀려오고 밀려오는 잔파도 잔파도
제방의 장식에 어리광치네

제방우에 나란히 앉은
둘격대원 총각과 처녀
가슴속에 간직한 사연
오늘은 할말도 많으리

억만년을 이 기슭으로 밀려오던 파도여
너 오늘은 순한 양처럼 갈기를 숙였구나
큰 파도와 맞서싸우던 젊은이들아

맘껏 걱정을 터치려무나
하건만 잔잔한 파도에 두발 잠그고
무슨 기쁨 그리도 속삭이느니

정말이지 우린
파도도 길들이고 땅도 길들였지
자연의 횡포를 휘여잡으니
좋구나
아득히 펼쳐진 간석지 넓은 벌은

이제 룡매도 저 봉우리엔
텔레비죤중계탑도 세우리
멋진 살림집도 학교도
놀이터도 유원지도 꾸리리
저기 저 저미도기슭엔

청춘과원도 펼쳐지리

우리 여기에 락원을 세우려고
더운 땀 얼마나 흘렸더냐
말 좀 하려무나
밀물에 밀려나는 쪽을 불안고
지새우던 그밤들을
눈보라 사납던 그밤들을

원수님 보내주신 새 기계를 마중하던 날
울고웃으며 달려가던 일
그 믿음에 보답하자고
우등불가에서 맹세다지던 일

어제 같구나

수평선 저너머로
이제 뻗어갈 3호 4호
그리고 5호 6호제방들
거기에 산갈은 파도 밀려든대도
우린 두렵지 않아

또다시 우리 날바다를 길들이리
원수님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 용맹과 의지로
아, 조국의 대지를 넓히고
파도와 끝없이 속삭이는
간석지건설장의 저녁은 좋아

걸어보아야 안다

간석지건설자들
우리가 땀흘리며 넓힌 땅
바라보면 그 한끝이 안 보여
기쁨의 이 명절날
걸자 아마 반나절길 잘될게다

오불교불 해안선
굽이굽이엔 이름도 많았더니
바다를 쭈욱 내밀어
직선자를 대고 그은듯 한 제방쪽
마음조차 곧고 시원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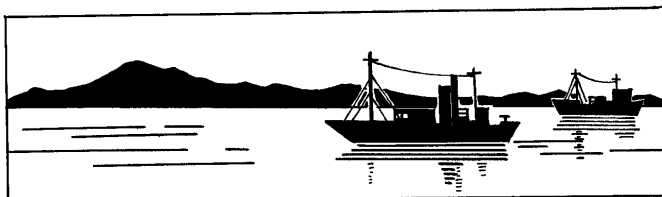
걸어보아야 안다
우리 얼마나 애국의 땀 바쳤는지
우리 얼마나 조국앞에
보람높은 큰일 해놓았는지

파도우에 날아예던 갈매기들도
새로 생긴 신기한 땅
낮이 설어서이나
제방우를 맴돌며 나래를 접는구나

땅생김새를 그린것이 지도라면
그 생김새를 고치는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거니
조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보람찬 일 우리가 하고있지 않느냐

간석지건설자 젊은이들아
바다가마을 아이들이 해수욕하던 곳
우리 저기 들놀이 가자꾸나
새땅의 첫 주인들을
간석지 넓은 별이 반긴다

아, 이런 기쁜 날에 원수님 모시였으면
그것이 우리의 제일 큰 소원인데
오늘도 그이는 전선에 계시거니
걸자 걸어보아야 안다
얼마나 복받은 청춘인가를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인가를
어떻게 이 땅을 가꾸어야 하는가를!



시 초

화 선 시 초

—한 전쟁로병의 일기중에서—

고 근 화

화선병사의 추억

내 이제는
80고개를 넘은 어제날의 화선병사
머리엔 흰서리 내렸건만
밤이면 전화의 그밤
새벽이면 전화의 그 새벽
전화의 나날을 더듬어
끝없는 추억의 머나먼 길에 솟은
추억의 높은 령
추억의 험한 산 넘고 또 넘는다

원쑤를 족치며
노도와 같이 내달리던 남진의 고개를 넘어
최고사령부 불밝은 창문을 그리며

수령님품을 찾아 북으로 북으로 달음쳐온
못 잊을 령과 고개도 넘어

눈같이 하얀 위생복 입고
부상병들과 생사를 같이하던
야전병원 그 병동앞에도 가보고
갱도안 마이크앞에서
《결전의 길로》 노래부르던
화선방송원 그 시절에도 서보며
잊을수 없는 화선병사시절
포연에 그슬고 추억에 보풀이 인
일기장의 갈피갈피를 내 더듬노라

나의 입대날자

그날
포화에 불타던 그 새벽을 잊을수 없구나
서울이 해방되던 그 새벽을

제 키보다 더 큰 총을 멘
영용한 인민군전사들
땅크를 앞세우고
노도처럼 서울에 입성한 그날을

기다리고기다리던 그날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이 쉬도록 웨치며 시민들이 떨쳐나
노래춤 펼치던 그날을

그날은 수령님의 품
공화국의 품에 내 안기던 날
그날은 내 운명의 밝은 길이

미래에로 활짝 열려지던 날

단발머리 학생복차림 그대로
나는 따라섰어라
동무들과 어깨걸고
의용군대렬에 들어섰어라

미제를 족치며
남진의 길로
원쑤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할 일념 안고

내 인생의 영광이 시작된
조선인민군입대날자는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해방된 그날이여라

남으로! 남으로!

남으로!
남으로!
서울을 떠나 수원을 지나
해방된 대전시가에 들어서니
치열한 시가전의 흔적이어

곳곳에 나뒹구는

꼬부랑글자 구멍뚫린 철갑모며
진창에 구겨박힌
미국제 땅크 포 자동차...

바라보는 곳마다
애 어린 인민군병사의 총부리아래
눈알을 번뜩이며 흘러가는

양키포로병 무리들
통패하구나
미제놈들 손을 들었다
우리가 이겼다

가자 대구로!
가자 부산으로!
제주도 내 고향 한나산마루에
공화국기를 꽃을
조국통일의 그날을 향해가자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청천벽력이었다
진격의 길 돌아선다니 웬 말인가
믿을수 없구나
피로 건넌 락동강을 어찌 다시 건는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가는 길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그 명령 받들고 우리 대오는
북으로 간다 수령님품을 찾아
우리의 북행길 얼마나 간고했더나
힘난한 태백산줄기
골깊은 오대산줄기
높은 령 험한 산 넘고넘으며

발바닥물집에 성냥딱총도 몇십번
그 길은 수령님 찾아가는 길이기에
최후의 승리를 위해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가는 길이기에
배고픔과 추위도 물러나고
적후전선의 통쾌한 습격전도
련대대렬합창도
정치공작원아바이의 자작시랑송도
군의소 처녀위생병들의 중창도 있었다
태일의 승리 위해 필승의 신념 안고
우리는 간다 북으로 북으로
최고사령부 찾아
우리의 운명 수령님의 품으로
우리는 간다

들국화 향기

최고사령부 찾아
북으로 가는 길
마가울 하늘은 높고 푸른데
가는 길 그 어데나 피었네
들국화 들국화 연보라빛들국화

낮은 산기슭...
높은 산등성이...
떨기떨기 피었구나
들국화 들국화 아름다운 들국화

어서 오라 꽃잎 흔들고
잘 가라 꽃잎 저어주는
들국화 네 향기 맡으며
우리 향수에만 젖지 않았어라
애수의 눈물은 더욱 보이지 않았어라

한데 뭉쳐 떨기로 피여난
연보라빛들국화
너의 진한 향기속에
너의 청초한 모습속에
우리는 보았더라
원췌의 모진 포화도 짓이기지 못하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을

들국화떨기 너를 보며
우리 마음속에 너를 피웠다
기어이 다시 오리라
기어이 이 길로 오리라
원췌치고 승리의 노래높이
다시 너를 찾아오리라
들국화 들국화 맹세의 들국화여!

위생병시절

제일 힘겹더라
내 몸무게의 두세곱넘는 부상병 업고 나를 때
목에선 겨불내 다리는 후들후들
그러나 내 어깨에 실린 무게는
한 병사의 생명만이 아닌
조국의 무게로 받아들였기에
기어이 그 무게를 감당했어라
부상병 후송임무 수행했어라

제일로 비통했더라
적탄에 쓰러진 전우 내 무릎에서 숨질 때
가슴속에 꿰어쫓는 비분의 눈물

붉은 기폭에 찢 전우의 시체우에 뿌린것이
한줌한줌의 흙이었던가
복수의 눈물이었던가

제일로 안타깝더라
채 아물지 않은 상처 숨기며
내 군복 내달라 부상병들 때를 쓸 때
땀짜게 잘라매도 눈물로 애원해도 그만
김일성장군님 조국통일명령 기어이 지켜
영웅되어 다시 만나자던 그 용맹 그 투지
내 힘으로 꺾을수 없어
전선으로 전선으로 손저어 바래왔네

제일로 행복했더라
 신흥내기공병소대장
 내 피와 살이 생명의 밑천되어
 다시 소생했다며 전승의 그날
 사과꽃향기 풍기는 고향에서

기어이 다시 만나자 약속했을 때
 전선으로 떠나는 그대를 바라왔을 때
 오, 못 잇을 위생병시절
 화선의 위생병시절이어

화선방송원의 영예

1

탄피등잔불 가물거리는
 갯도안 야전방송국
 나는 마이크앞에 앉아 목소리 가다듬네

야간습격전투 돌격선에 나선
 인민군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네
 —복수의 시각은 왔다
 원쑤의 가슴팍에 총탄을 박으라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노래도 부르네
 고지에 올릴 승리의 함성 기다리며
 김동무의 바이올린반주에 맞추어
 《결전의 길로》노래를

드디어 하늘땅에 넘치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또 하나의 조국의 고지가
 우리의 고지로 솟았구나

2

밤의 교요 깨뜨리며

어둠 깔린 적진우로 내 목소리 울려가네
 —여기는 조선인민군 야전방송국입니다

적진에 울려가네 내 목소리
 공포에 떠는 적들의 가슴팍에
 총알처럼 포탄처럼

—양키들이여 미군병사들이여
 너희들은 무엇때문에 여기 남의 나라에
 대포밥으로 끌려왔는가
 조선의 함정굴 상심령이
 너희들의 죽음을 기다린다

저주하라 증오하라
 백악관의 우두머리들을
 월가의 전쟁상인들을
 양키들아 제 소굴로 돌아가라!

주눅들어 땅에 머리치박은
 원쑤들의 가슴팍에 비수처럼 박힌다
 방송원의 나의 목소리
 —여기는 조선인민군 야전방송국입니다

미국의 비극

우리는 보았다 미국놈포로
 눈알 회반죽이며 공포에 질려
 뿔어앉아 빈다
 계집년의 사진 한장 꺼내들고
 —내 애인이요 목숨만 살려주시오

나는 묻는다
 —너 왜 조선에 왔지?
 —난 모릅니다 왜 왔는지
 —누가 널 보냈지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
 —난 모르오
 미군놈들이란 바로 이런 놈
 돈에 팔린 가련한 대포밥

순간 터지는 폭소
 그저 살려만 달라누나
 그렇다 이것이 바로
 《문명국》미국이다
 《강대국》미국이다
 오, 미국의 비극이어

전승의 그밤

1953년 7월 27일 밤
 우중충한 적진을 향해
 총포탄이 날아간다
 우리의 복수탄이 날아간다
 보충 기관총 직사포 곡사포

적진을 향해 쏘고 또 쏜다

3년간 전쟁에서 가슴서린 분노
 쓰러진 전우들과 고향의 부모형제들의
 원한과 울분 씻으려 복수의 총포탄 들붓는다

쏘라 쏘라 원쑤를 향해

예광탄의 붉은빛 푸른빛
어둠을 헤가르며 허공에서 엇갈린다
밤하늘에 불줄기 불화살
고지를 뒤흔드는 회성벽력!

밤 10시

하늘높이 오른다 붉은 신호탄불줄기
어둠을 태우며 불줄기를 굶는데
구름속의 달마저 얼굴 내미는 밤 10시

순간 웬일이나 바다속같은 정적
전쟁이 끝났단 말인가

우리는 끝내 이겼구나

만세 만세 경도에서 전호에서 엄폐호에서
고지에 뛰쳐나와 웨치는 병사들의 만세소리

서로서로 부둥켜안으며 불을 비비며
공화국기 휘날리는 고지는
승리로 설레이는 기쁨의 바다
춤노래의 물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원쑤들의 오만한 코대를 꺾고
우리의 존엄을 지켰구나
영웅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였구나
아, 잊을수 없는 전승의 그밤이여!

나의 가슴엔 조선로동당원증이 있다

플랑기 진하게 풍기는 숲속오솔길로
나는 달려가네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
쌍태머리 어깨우에 달랑이며
기쁨 행복 환희에 넘쳐 나는 가네
나의 부대 나의 전우들끼로

눈에 삼삼 어려와라
나의 입당을 보증해주던 당원들의 얼굴
화약내 짙은 손을 들던 숭엄한 그 모습
귀에 쟁쟁 들려와라
당원증을 수여하던 지휘관의 목소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오직 한길만을 곧바로 걸어가라고
원쑤를 무찌르는 성전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잘 싸우라던 그 목소리가

나는 달려가네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
온 산판이 온 강산이 나를 축복하는듯
멀리서 울려오는 쿵쿵 포소리도
나의 입당을 축복하는듯

나는 소리높이 웨친다
오늘부터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나의 가슴엔 심장파 나란히
조선로동당원증이 있다!

내 한생 영원히 병사로 살리

적탄이 비발치는 락동강의 격전장과
순간의 짧은 휴식마저 단잠들던
채진격의 행군길과 전호와 고지우에
소나기로 퍼붓던 포탄과 폭탄속

그 가릴처절한 불비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생명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적의 화점 달려드는 적땅크밑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우리는 사무치게 깨달았어라
총대는 당 총대는 조국 총대는 인민
총대없인 살수 없고 총대 약하면 노예가 된다는
혁명의 진리 운명의 철학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60년세월
이 땅은 락원의 강산으로 꽃피났건만
원쑤들은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있거니
순간인들 내 어찌 총대를 놓을수 있으랴

나의 아들 나의 손자 나의 증손자가
총대를 잡고 지켜선 내 조국위해
내 마음의 군복 마음의 총대
더 억세게 틀어잡는 로병의 마음

내 한생 50년대 화선병사로 살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영원히 병사로 살리라
영원히 영원히!

시초 《화선시초》의 필자는 17살 단발머리
치녀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해방된 서울
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위생병, 화선방송
원으로 싸웠으며 정전후 김일성종합대학 외국
어학부를 졸업하고 기자, 도서관사서로 한생을
화선병사의 본분을 다해온 전쟁로병이다.

편집부는 지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부터 오늘까지 그가 쓴 일기와 시편중 그 일부
를 추려서 소개한다.

뜨거운 심장에 메아리치는 영원한 삶의 행진곡

안 희 열

오늘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하게 형상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장편소설 《불타는 코스모스》(정영종 작)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제3, 4계단을 시대적배경으로 전선동부에 전시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수송전사들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수송에서 발휘한 한 수송전사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그가 몰던 기관차에 《안성국》호라는 칭호를 달아주도록 하심으로써 인생을 영생의 값높은 삶으로 빛내인 원산기관구의 기관사였던 안성국영웅을 원형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문학의 인간문제는 그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에 기초하여 제기되게 된다. 작가가 기적소리 우렁차게 울리며 위훈에 찬 생활과 투쟁으로 인생을 값있게 빛내이는 영웅기관사의 생활을 취재하면서 찾아온 종자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생의 제3행진곡》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생의 제3행진곡》,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노래에 비길 때 생을 마친 후에도 그 삶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심장에 뜨거운 메아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의 노래에 대한 상징적표현이다. 소설은 이런 삶의 진리를 안고있는 철학적인 종자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삶이 가장 값있고 존엄높은 삶인가 하는 시대적의의가 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할수 있었다.

삶의 보람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인간학인 문학작품에서 물론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제기하고있는 문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위훈떨친 영웅전사의 빛나는 삶과 영생하는 삶의 가치를 밝히기 위한 미학적요구에서 제기된 인간문제이며 현시기 **김정일**애국주의로 우리 인민모두를 열렬한 애국자,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내야 할 시대적요구에서 제기된 사회적문제인것으로 하여 시대미학적의의가 크고 또 새로운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은 인간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있는 중심인물이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인 안성국영웅이 높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형상하면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그 위훈의 정신적힘의 원천을 깊이 해명하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돌려 1950년대영웅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웅의 소박한 성품을 그리면서도 그의 남다른 정신적높이와 특출한 위훈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소설에 형상된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정심이다.

소설에서 주인공 안성국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선 공화국의 기관사된 높은 공지와 자각을 안고 수령님께서 짜신 전승의 시간표에 따라 전시수송임무수행에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안성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승리의 날을 확고히 내다보시고 짜신 전승의 시간표에 한초의 드팀도 없이 수송열차를 정시에 도착시키는것을 언제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겼다. 그는 기관사자격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지도기관사인 하주룡이 기념으로 준 《정시도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큼직한 회중시계를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고 그 초침소리를 들으면서 군화물수송열차의 출무시간과 도착시간이 한초라도 늦어질세라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갔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위훈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기관사, 수령님의 기관사된 높은 공지와 자각, 애국헌신과 충정의 발현임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철도로동계급의 대표가 정중히 드리는 코스모스꽃다발을 받으시고 이 꽃은 기관사의 꽃이라고 하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마음껏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리라고, 동무들이 울리는 그 기적소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행복으로 부르는 호소이며 구령과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철도수송전사들에게 인민군대와 똑같이 군복을 입히고 무기도 수여해주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코스모스꽃다발, 철도군인제복, 철도군사복무증, 이것은 기관사들에 대한 최대의 신임의 표시였으며 전시수

송임무수행에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하라는 크나큰 믿음과 엄격한 요구의 증서였다. 이런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받아안은 안성국의 심장은 공화국의 기관사된 무한한 영예와 함께 애국헌신과 충정의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주인공 안성국의 심장이 그런 높은 자각과 애국헌신의 열정으로 끓고있었기에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그 준엄한 시기에 누가 임무를 주지 않았지만 한목숨 내대고 적수송렬차를 전복시키는 용감성을 발휘할수 있었고 위급한 정황에서 한몫 서슴없이 들이대어 경사지아래로 굴러내리기 시작한 기관차를 멈춰세울수 있었으며 가슴에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고도 끝내 식량화차들을 구원해내는 위훈을 펼칠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안성국의 위훈이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받는 기관사된 자각과 애국헌신의 발현일뿐아니라 그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보답의 일념으로 불타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발현이고 뜨거운 심장의 분출임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시환경속에서 진행된 철도일군열성자대회에서 기관사들은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용감한 전투원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한 평범한 기관사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친히 감사까지 보내주시였다. 또한 안성국기관사가 폐를 심하게 상하여 기관차에서 내린 사실을 아시고는 그를 빨리 완쾌시켜 다시 기관차를 타고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귀중한 보약재까지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안성국은 수령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안은 기관사된 영예감을 더욱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그런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정신적자양분으로 되고 힘의 원천으로 되어 안성국은 폐를 대수술받고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가사 《기관사행진곡》을 창작하였는가 하면 그 어떤 폭탄파괴이나 기관총탄도 뚫지 못할 장갑기관차를 창안제작해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또한 폐의 상태가 기관차에 오르는것을 허락치 않고있었으나 고원까지 가서 석탄을 실어와야 할 급한 수송과제가 제기되자 자진해나섰고 대회의 대표를 싣고오던 열차가 도중에서 폭격을 맞은 사실을 알고는 기관차에 올라 불소나기속을 뚫고나가 구원해신고 돌아오는 위훈을 펼쳤다. 참으로 그가 이룩한 모든 기적같은 위훈은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낳은 강의한 의지력과 열정의 분출이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강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 《무섭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죄많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윤도일부소장은 《목숨을 넘따처럼 내던져서라도 꼭 가지고싶은게 임자의 심장이야!》하고 그의 뜨거운 심장에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소설은 이렇듯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주인공의 뜨거운 애국헌신과 보답의 한마음으로 불

타는 심장의 분출이 영웅적위훈의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었음을 감동깊은 생활적형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주인공 안성국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과 작전적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었다.

당시 미제는 군사전략적요충지대인 1211고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지대를 장악하고 그에 의거하여 북의 종심깊이대로 공격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새로운 대공세작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대로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있었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부산악지대에서 적들을 포위소멸하는 한편 그쪽으로 쏠리는 적병력을 분산약화시킬 전략적구상을 펼치시면서 철도부문에서 적을 기만하는 허위수송도 대담하게 조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주인공 안성국은 수령님의 구상과 방침을 어떻게 하면 무조건 실현할수 있겠는가 하고 고심하던 끝에 적들이 1211고지방향으로 력량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선중부에서 인민군대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듯이 그쪽으로 허위수송렬차를 들이밀 착상을 하고 그 방안을 상급에 제기하여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뿐만아니라 안성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안고 허위수송렬차를 정시에 도착시킬수만 있다면 그 길에서 설사 피를 뿌리며 쓰러진다 해도 자기 인생은 가장 값높고 성공한 삶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날 그 누군가가 사람이 세상에 나서 큰일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도 짧다고 한탄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인생에 큰일을 하기에는 그 인생을 열토막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그런 투철하고 신념화된 혁명적수령관을 인생관으로 체현하고있었기에 그는 허위수송렬차출무를 서슴없이 자진해 맡아나선다.

그리고 운행도중 적기의 기관총탄에 맞아 보이라에 파구가 생겨 증기가 많이 새나오기 시작하자 기관사좌석에 다른 기관사를 떠밀고 1200도고압의 증기발이 뿔어져나오는 보이라파구를 서슴없이 잔등으로 짓눌러막아 열차를 정시에 목적지인 평강에 도착시킨다.

소설에서 감동깊게 보여준 주인공의 이러한 불굴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과 작전적의도를 죽어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의 뚜렷한 예술적인 확증이다.

작품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성국기관사의 영웅적최후를 보고받으시고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시면서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함과 함께 그가 탔던 《증기158》호에 《안성국》호라는 칭호를 달아주어 그가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온 세상에 길이길이 전해지도록 하여주신 내용이 감동깊은 생활적화폭으로 형상되고있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이

아낌없이 바쳐 위훈떨친 값높은 삶은 영생한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아울러 인생에서 가장 값높고 존엄높은 삶은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으로 빛나는 삶이라는 생활의 심오한 철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문제에 대한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이 있고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참된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소설작품의 사상미학적가치가 있다.

작품이 제기한 인간문제는 주인공외의 다른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밝혀지고있다.

장편소설 《불타는 코스모스》는 형상의 뒤편이 뚜렷한 여러 궁부정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성격형상과 주인공과의 인간관계속에서 작품이 제기한 인간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다 풍부하게 해명해주고있다. 이것은 이 소설의 중요한 형상적특성의 하나이다.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하주룡은 해방후 조국에 개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코스모스꽃다발을 드리고 그이를 평양에까지 자기 기관차에 모셔다드린 남다른 긍지와 영광을 안고있는 인물이다. 그는 기관구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서서 짜신 전승의 시간표에 단 한명의 뒤떨어진 사람도 없이 정시에 도착하도록 묶어세우고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미더운 책임기관사이며 당일군의 전형으로 훌륭하게 형상되고있다. 주인공 안성국이 공화국의 어엿한 기관사, 책임기관사로, 당원으로 성장하고 영생의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게 된데는 그를 걸음걸음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기관구당위원장인 하주룡의 적극적인 역할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주룡의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위훈떨친 영웅의 뒤에는 언제나 그를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혁명의 믿음직한 선배가 있으며 고마운 어머니당의 손길이 뜨겁게 미치고있음을 형상적으로 강조해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채송화는 대학생출신의 인민군지휘관의 성격적특징을 전형화하여 보여주는데서와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부각시켜보여주는데서 작가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설정한 인물이다. 작품에서 형상되고있는바와 같이 채송화는 이름있는 작곡가의 딸로서 해방후에는 평양철도전문학교과정을 거쳐 평양공업대학까지 다녔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대위로서 전선동부지구 군사철도수송전반을 담당해보는 군사수송관리소 소장의 직책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찌기 부모를 다 잃고 보통학교도 마치지 못한채 철도에서 소년고내수생활로 쪼들리다가 해방후에야 겨우 기관사자격을 받은 평범한 기관사에 불과한 주인공 안성국과는 모든 면에서 너무도 차이가 많다.

작가는 소설에서 이러한 두 청춘남녀를 인간관계의 상대인물로 설정하고 동지적관계, 사업상관계를 초월한 애정관계로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켜나갔다. 채송화는 전신군화물수송의 한전선에서 간고하고 시련많은 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안성국

기관사의 애국헌신과 충정, 불타는 뜨거운 심장과 그의 남아다운 사상정신적품모에 매혹되어 그를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안성국과 함께라면 두줄기 궤도를 따라 기적소리 힘차게 울리며 인생끝까지 달리리라 마음속 다짐을 굳게 한다.

한편 안성국은 채송화의 진실한 동지적우정과 사랑을 온 심장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그와의 정깊은 사랑의 상봉시각을 그려보며 전승의 종착점을 향하여 수송렬차를 힘차게 몰며 그 길에서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다.

작품에 그려진 주인공들의 이러한 형상은 청춘도 사랑도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싸운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의 인생관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있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게 한다.

장편소설에서 작곡가 채근석은 전신수송사업과는 직접적인 인연관계가 없는 인물의 설정이다. 그러나 예술이 전쟁에서 총포탄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할뿐만아니라 실지 전투적인 노래창작과 정력적인 위문공연활동으로 전승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인물로서 소설에서 뒤편이 뚜렷하게 형상되었다.

하지만 채근석은 예술가의 천성과 직업을 지나치게 내세우던 나머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견해에서는 옳바른 관점에서 서있지 못한다. 그것은 기관사인 안성국이 성악가수로 훌륭히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안고 후에 그에게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길이 있는데 성악배우로 살면 인생이 성공할수 있지만 기관사로 살면 인생이 실패로 끝난다고 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두 길중 그 한길을 빨리 선택할것을 요구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렇지만 안성국은 조국이 있고야 성공의 아름다운 꿈도 리상도 꽃피울수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고있었기에 그 모든 아름다운 꿈과 리상도 다 뒤전에 미루어놓고 변함없이 기적소리높이 전신수송길을 힘차게 달렸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죽음도 혼연히 맞바나아가는것이다.

작곡가 채근석이 위훈으로 영생의 삶을 빛내이는 안성국의 인생을 체험하면서 딸 송화에게 《...어리석은건 나였구나. 우리 수령님품속에서 영생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우렁찬 제3행진곡을 울릴수 있다는걸...》 하고 진심을 고백하였다.

채근석의 이러한 진심의 고백과 뒤늦게 찾은 인생교훈을 펼쳐보이면서 소설은 자기의 천성도 재능도, 아름다운 꿈과 리상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 위훈떨친 삶만이 인생에서 진짜 성공을 이룩한 삶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그러한 성공을 이룩한 사람만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인생을 값높고 존엄높게 빛내일수 있다는 생활의 심오한 철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채근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생활의 참된 진리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각이한 성격의 부정인물들도 등장시키고있다. 김한필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후퇴를 하지 않고있다가 적들에게

끌려가 미군이 패주할 때까지 공장조역으로 고스란히 복무한 수치를 안고있는 인물이다. 또한 윤도일은 일본놈들의 철도기관에서 복무하였지만 해방후에는 공화국정부의 혜택으로 철도기관의 부소장으로까지 발전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왔다. 그렇지만 공명과 출세, 자기보신이 많은 탓으로 하여 지난 시기 나쁜 놈과 공모하여 나라앞에 진 죄를 자백하지 않고있다가 더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야 법기관에 이송되어가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인물이다. 이와는 달리 송수찬은 돈과 재부,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일본놈과 미국놈으로 상전을 바꾸어가며 온갖 조국배신행위, 민족반역행위, 간첩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계급적원썬이다. 다같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빚어낸 우리 민족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부정인들의 성격과 운명의 대표자들이다.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수송사업은 적아간의 치열한 대결전이였으며 하나의 심각한 계급투쟁이였음을 예술적으로 강조해주고있다. 그러면서 소설은 자기한몸의 보신이나 공명출세,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에게서는 오직 배신과 변절, 반역의 길만이 있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과 함께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너절하게 살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생을 값있게 존엄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의 참된 진리를 체득시켜주고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부각시켜보여주고 인생의 참된 진리와 교훈을 주도록 한것은 인간문제해명에서 이룩한 이 소설의 중요한 형상적성파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불타는 코스모스》는 작품의 구성조직과 형상수법을 특색있게 탐구활용하고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묘사로써 형상전반을 이채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세계에 깊이 끌려들게 하고있다. 이것은 이 소설작품이 성공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우선 작품의 구성조직을 특색있게 하고있다. 작가는 인생을 하나의 노래로 보는 전체에서 기관사의 노래를 하나의 우렁찬 행진곡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기관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남달리 요란스럽게 울음소리를 터친 인생의 첫 노래를 제1행진곡으로 보고 기관사가 성악가적자질을 기관차의 기적소리로 대신하고 보람차고 위훈에 찬 삶을 빛내이며 부른 인생의 두번째 노래를 제2행진곡으로 보며 기관사가 영웅적최후를 마친 후에 수령님품에서 영생의 삶으로 힘있게 불리워진 인생의 세번째 노래를 제3행진곡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에 맞게 소설의 총적구성을 서장과 24장으로 된 기본장부분과 종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장설정과 구성은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의 요구에 맞으며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데도 맞는, 작가에 의하여 기발하게 착상되고 탐구된 참으로 특색있는 구성조직

이라고 볼수 있다.

소설에서 또한 시점변화와 회상수법, 사건과 생활장면의 다양한 설정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 투쟁의 역사와 조국수호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수송전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과 인정깊은 생활세계를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는것은 장편소설의 형태적풍격을 갖추수 있게 한 중요한 형상수법의 활용으로 된다.

또한 소설창작에서 뜻깊은 노래가사와 인상깊은 생활세부와 생활장면들을 많이 탐구해쓰면서 특히 그것을 두세번 또는 그이상 여러차례 반복활용해쓰고있는것은 형상수법상 작가의 개성적인 특기의 하나이다. 기관사의 축복의 꽃인 코스모스세부와 채송화가 안성국에게 기념으로 준 하모니카세부, 안성국이 기관차출무때마다 꺼내보곤 하는 《정시도착》이라고 새겨진 회중시계세부, 안성국이 창작한 노래 《기관사행진곡》세부 등과 같은것들이 소설형상의 전과정, 종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반복활용되어 쓰인것은 그 실례로 된다. 이러한 형상수법의 리용은 작품형상을 정서적으로 이채롭게 하는데서와 작품의 종자를 형상적으로 강조하고 꽃피우는 데서 아주 효과적이였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을 강철거물을 다루는 철도로동계급답게 배짱이 센 직통배기성격으로 그리면서도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로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으며 특히 인물들의 체험세계,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그려 성격을 생동하고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의 참된 진리를 깨우쳐주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채로운 형상속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것으로 하여 전시영웅을 형상한 성과작으로 되고있다.

×

장편소설 《불타는 코스모스》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고있지만 그의 사상정서적감화력과 견인력은 참으로 크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처날뛰고있다. 하지만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고 1950년대영웅들이 발휘했던 그 불굴의 애국적투쟁정신과 영웅적희생정신이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끓어번지고있어 우리의 승리는 확고하며 적들은 또다시 더 큰 비극적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가렬했던 전화의 그 나날에 수송전사들이 불비속을 뚫고 힘차게 달리며 높이 울려했던 그 우렁찬 기적소리는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뜨거운 메아리를 일으키는 삶과 투쟁의 행진곡으로 더욱 힘차게 울려갈것이다.



박 동 칠
그림 김 광 석

1

해질 녘이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다. 뽀얀 눈가루 흩날리는 소리가 작업반실창문을 드르릉— 하고 울린다. 마당에서 뛰놀던 닭들이 텐겅을 하여 우리안으로 뛰어든다.

(이놈의 날씨가 무슨 일을 치겠군.)

석지명반장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속생각을 긍정이라도 하듯이 다시 위잉—소리와 함께 처마밑을 활으며 날아온 눈가루가 창문유리에 들썩워진다. 밖은 뽀얀 눈가루에 휩싸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명은 아래목에 털썩 주저앉았다.

담배를 붙여뭍 그는 속이 시원하도록 담배연기를 빨아들이었다. 그래도 속은 풀리지 않는다.

지명은 지금 썩 심기가 좋지 않았다.

그날 석지명반장은 몇년동안 청년돌격대에 나갔다는 작업반의 방도정이란 청년한테서 훈시 비슷한 말을 들었기때문이다.

(헛참! 제까짓게, 농장원생활에선 초학도인 녀석이...)

석지명반장은 아침에 방도정이를 관리위원회에 보냈었다. 온실에 뿌릴 남새종자를 타가라고 했던 것이다.

관리위원회에서 돌아온 방도정은 남새종자가 든 주머니를 반장앞에 털썩 내려놓으며 불부는 소리를 했다.

《반장동지! 난 이제부터 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왜?》

방도정은 지난해부터 농장원생활을 시작한 청년

이다.

무슨 일에서나 동작이 빨랑빨랑하고 책임성이 높아 지명이로서는 마음에 흠씩하니 여기고 자기대신 급히 움직일 일이 생기면 먼저 방도정을 생각하곤 했었다. 오늘도 자기가 사업조직을 하는 시간에 얼핏 갔다오라고 보냈던것인데...

《난 그래도 작업시작전에 다녀올려구 아침밥도 안 먹구 부지런히 갔는데, 아 글썽 관리위원장아 바이가...》

방도정은 말끝을 채 맺지도 못한채 분해서 썩썩 거렸다.

《그래 관리위원장이 뭐라던?》

지명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늘 봐야 뭘 타가는데서는 우리 마을이 1등이라는거지요. 헌데 우리 마을이름을 꼴찌마을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을이름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허허허.》

석지명반장은 작업반실이 들썩하게 큰 웃음소리를 냈다.

《난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했구만. 그걸 정식으로 귀에 담다니?... 관리위원장이 툭으로 그랬겠는데... 원, 별참은걸 가지고 마음을 쓰는구만. 어쨌든 수고했네.》

석지명반장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듯이 다 피우고 난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훌렁 던져놓고나서 종자주머니를 들고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방도정은 석지명반장이 참 이상하다는듯한 인상으로 말을 했다.

《반장동지!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돌격대에서 제대되어온 후에 몇번 그 이름을 듣고 아이들 입에 오름 이름이겠거니 했는데 오늘 관리위원회에

서까지 정식 마을이름처럼 부르니 좋지 않구만요.

반장아바이도 꼴찌마을의 〈박힌돌반장〉이란 부름이 듣기 좋습니까? 모두들 그렇게 부르는데…》

《응?》

석지명반장의 이마살이 순간에 찌프러졌다.

(꼴찌마을의 박힌돌반장이라구?)

물론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한곳에서 오래동안 성실히 일하니 그런 말도 듣지 않느냐 하는 자기만의 위안도 하며 들어오던 부름이었다. 하지만 오늘 자기의 아들축에나 들었을 청년에게서 듣고보니 그 부름의 색깔이 달라 보인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 말이 무척 귀에 거슬렸다. 더우기나 아직 농사물계에 채 트이지 못한 햇내기농장원이라 할수 있는 방도정은 마을이름까지 거들어가며 제법 결론이라도 하듯이 무조건 고쳐야 한다고 딱 찍어말한다. 마치 석지명에게 그 책임이 있는듯이…

(그녀석이 피짠 피짜야.)

석지명은 며칠전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날도 방도정은 관리위원회에 갔다왔는데 그 무슨 기쁜 소식이나 안고온듯이 싱글벙글 온 얼굴에 웃음발이 활짝 비졌다.

《반장아바이! 인민군대에 나갔던 충정형님이 제대되어 우리 작업반에 온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반갑던지… 〈야! 됐구나. 이제 우리 마을도 1등을 할수 있게 되었구나!〉 이랬더니 관리위원장아바이가 내 뒤통수를 쿡 찌르면서 〈뭇가 1등을 한단 말이야! 해마다 모내기에서 꼴찌를 하는 주제에…〉 이러질 않겠습니까. 내 기분잡쳐서… 그래서 한마디 했지요. 비록 모내기는 뒤진다 할지라도 축구경기에서는 1등을 양보 안할겁니다. 축구애호가이며 좌측날개인 충정형님이 우리 작업반에 오면…》

방도정은 작업반일에서 당장 큰 변혁이라도 일어나는듯이 사기나서 줄줄이 내리엿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이 뭐라던?》

방도정은 금시 머리를 푹 떨구더니 다시 얼굴을 들어 창문너머로 먼산을 한참 바라보다 맥빠진 소리를 냈다.

《아무리 축구경기에서 1등을 해도 소용이 없대요. 농사에서 꼴등이면 언제나 꼴찌마을로 불리운다는거지요. 반장아바이, 모내기에서 1등할 방도는 정말 없는가요?…》

그렇게 한마디 던지듯 하고나간 도정의 말이 지금껏 지명의 명치에 무작하니 매달려있다.

그는 홀려간 세월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예로부터 마을마다, 고을마다 생겨난 유래와 지형학적특징을 담아 지어부른 이름들을 가지고있다. 석개울마을, 양지마을, 밤

나무골마을…

석지명이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이 마을 이름은 원래 태성마을이라 불리웠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탓인지는 몰라도 이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류별나게 키가 크고 건장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어느결엔가 점차 사라져버리고…

꼴찌마을, 꼴찌마을 하게 된다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이곳 작업반에는 2정보도 되나마나한 천수답이라는 땅이 있다.

작업반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한 신평웃골의 자그마한 폐기는 대어섯개를 지명이 작업반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10년째되는 해에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켜 토지정리를 하여 2정보되는 번듯한 논으로 만들어놓았다.

폐기논을 모내는기계가 들어갈수 있는 네모반듯한 논으로 만들어놓고 지명은 관리위원회는 물론이요 군에서까지 크게 칭찬을 받았다. 위치가 다른 논들보다 좀 높은 덕에 자리잡고있는터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만족해야 했지만 몇해동안은 그 논에서 농사도 푸짐히 잘되었다. 그러던것이 흑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왕가물이 계속되자 지명의 자랑이고 긍지였던 천수답이 그야말로 말쑥많은 모내기꼴등을 가져다주는 불명예스러운 흑으로 되고 말았다.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 모내기를 하게 되어있는 천수답은 해마다 모내기에 지장을 주었던것이다. 천수답모내기가 끝나야 작업반모내기가 결속되고 농장적인 모내기가 총화되는것이다. 때로는 군적인 모내기총화에도 지장을 주었다.

그 천수답때문에 마을이름까지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자 지명은 마음 한구석에 아릿한 아픔을 느껴오고있었다. 마치도 병신자식에게 더 마음쓰이는 부모심정이라 할가....

겨울철에나 봄철에는 두엄도 더 많이 내고 썰레질도 한번 더 하는 식으로 원심을 돌려왔지만 비만 안 오면 천수답은 영낙없이 모내기꼴등이라는 수치를 지명의 작업반에 가져다주었다.

이제는 그 이름이 하나의 대명사처럼 굳어져 바늘에 실파르듯이 어디에나 따라다녔다. 《꼴찌마을 아이들》, 《꼴찌마을황소》, 《꼴찌마을에 밤이 많이 열렸대.》...

그 내막을 잘 알고있는 관리위원장이였기에 일부러 방도정을 놀려댔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석지명은 이 마을에서 30여년간이나 작업반장으로 일해오고있다. 사람들은 그를 땅속에 깊숙이 뿌리박은 돌과 같다는 의미에서 《박힌돌반장》이라

고 부르고있다. 아마도 수십년간 변함없이 작업반장으로 일해오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렇게 부르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모든 일에서 비록 앞선 자리는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대신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 작업반장의 위치만은 오랜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곳에 깊숙이 박혀있는 박힌돌과 다름이 없다.

그 이름은 석지명의 생활관습과도 관련이 있다.

작업반실마당 한옆에는 거북잔등처럼 터실터실한 등을 쭉 내밀고 들어앉은 커다란 박힌돌이 있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석지명은 거기에 나와 앉아서 일하기를 좋아했다.

농장원들의 로력일정리사업도 작업반실 아래목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하는 때가 더 많았다. 휴식참에 담배도 거기에 앉아서 피웠다. 농장원을 만날 일이 있어도 거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쁜 때 안해가 들고나온 밥그릇도 그곳에다 풀어놓곤 하였다.

그런데 그 박힌돌이 농사일에 지장을 주는 때도 있었다. 거름을 싣고 포전으로 떠나던 트랙트르가 그 박힌돌에 걸려 애를 먹을 때도 있었고 돼지물바께쓰를 든 관리공이 그 돌에 걸쳐 넘어질번 한적도 있었다.

박힌돌때문에 욕을 먹은 사람도 있었다. 언젠가 한 농장원이 그 돌이 꼴보기 싫다면서 뽑아버리겠다고 곡괭이를 들고나와 돌밑을 뚫기치다가 석지명에게 되게 혼썰이 났다. 그래서 작업반사람들은 그 돌을 반장아바이가 사랑하는 돌이라고 익살조로 말해온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 박힌돌의 모양을 따서 그렇게 이름지어 불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의 이름은 박힌돌반장으로 많이 불리웠다. 여기에 꼴찌마을이라는 이름까지 덧붙였다. 이를테면 꼴찌마을의 박힌돌반장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그렇게 부르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 석지명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언제 한번 이마살을 찌프러본적도 없다. 그저 한곳에서 오래동안 작업반장으로 일해오고있으니 응당 그렇게 부를거라고만 여겨왔다.

그런데 오늘 새 세대 청년이 자기 작업반과 자기 이름에 대한 이런 고민거리를 던져줄줄이야....

석지명은 속타는 일이 생길 때에 하는 버릇대로 담배연기를 굴뚝의 연기처럼 푸푸 내뿜었다.

방도정이때문에 농사일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었다고 단정한 석지명은 그 일을 털어버리려는듯 이윽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기다렸다는듯이 눈보라가 그에게 확 들썩워졌다. 그것을 피하느라고 지명은 털모자귀덮개를 제껴 내리웠다. 그래도 세찬 눈보라는 막을수 없었다.

그날도 석지명은 따스한 해살을 온몸에 느끼며 박힌돌우에 질편하니 앉아 농사차비정형을 따져보고있었다.

거름생산, 농쟁기보수정형, 령상모판자재확보정형, 부림소들의 영양상태...

모두 기본적으로 갖추어졌다. 거름생산실적만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좀 뒤졌다. 그것만 다그치면 별일없다.

한분조, 한분조 분조별로 땅을 텅겨보던 석지명의 생각이 한곳에 이르러 딱 멈추어섰다. 천수답! 올해 모내기철에는 비가 제때에 와주겠는지... 지난해처럼 가물, 가물 하면서 애꿎은 기상관측소에 전화바람을 대구 일쿠던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는지... 금시 걱정거리가 한두름이나 쌓아진다.

지난해 모내기전투때였다.

석지명반장은 이번에만은 꼭 1등의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버르었다. 논둑가래질, 씨레질, 모뜨기, 모운반 등 모든 모내기공정들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기본적인 것에 대한 모내기를 한주일이나 앞당겨서 끝냈다. 그런데 이때에도 천수답이 문제로 되었다. 열흘나마 비가 내리지 않아 논판이 모두 말라버렸다. 기상관측소에 문의하니 당분간은 비가 내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에라, 모르겠다. 얼마 되지도 않는 천수답 아예 없는셈 치지...)

그는 천수답을 그대로 남겨놓은채 모내기를 끝냈다고 보고했다.

모내기총화때 이 일이 말썽을 일으켰다.

《반장동문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소? 농사에서 허풍은 금물이란 말이요! 금물!... 어쨌면 모내기하지 않은 땅을 두고 끝냈다고 보고한단 말이요?!...》

지명은 썸평 좋게 내뱉듯 대답했다.

《그까짓 몇정보 되지도 않는 땅 이제부턴 없는셈 칩시다.》

금시 눈이 화등잔만 해서 석지명을 바라보던 관리위원장은 책상을 황— 내리쳤다.

《반장동무! 동무 제정신이요? 그 땅이 동무가 뺄심들여 개간한 땅이 맞소?》

《바로 그래서 내가 말할수 있지요.》

《여보, 건어치우오. 동무 정말 변했구만. 정말 이제 보니 동무의 사고가 박힌돌이 되었소그려.》

비양조로 하는 관리위원장의 말에 장내에는 와— 웃음바람이 일어났다.

그때의 얼굴이 뜨끈하던 감정을 털어버리려는듯이 앵이— 머리를 내두르고나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던 지명은 저쪽구석에 놓인 편의차를 띄여 보았다. 기름이 마른 바퀴축에 눈길이 갔다.

지명은 벌떡 일어나 기름통을 찾아들고 바퀴축에 기름을 주기 시작했다. 그 편의차는 석지명이 창안 제작한것이다. 이 마을은 리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농장원들이 국수를 누르거나 벼, 강냉이와 같은 낱알을 가공하는 일에서 몹시 불편을 느끼었다. 아낙네들이 그곳에 한번 다녀오거나면 한나절이라는 시간이 턱터 찢리워나가곤 했다.

석지명은 그들의 수고를 덜어줄 생각으로 탱동자동차처럼 지붕이 씌워진 적재함을 만들어 달구지우에 올려놓은 편의차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랑콕가 공품들을 집체적으로 모아시고 다녔다. 그러고보니 로력랑비도 줄어들고 아낙네들의 수고도 덜어졌다. 석지명은 그 편의차를 작업반 트랙트르 못지 않게 귀중히 여기었다.

그가 기름주기를 간간스레 끝내고 허리를 펴려는 데 《반장동지!》하고 찾는 목소리가 났다.

몇달전에 작업반에 새로 배치되어온 림충정이 다가오고있었다. 그는 얼마전에 작업반 청년동맹초급 단체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

제대군인인 그는 젊은이건 늙은이건 마을사람들 모두가 아바이라고 찾는 지명을 꼭 《반장동지!》라는 부름으로 찾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명은 인민군대의 직속상관으로 불리우는듯 한 느낌에 저절로 허리가 쭉 펴이곤 했다.

석지명은 그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는 작업반에 오자마자 청년들을 이끌고 농사일에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앞장에서 해제겼다. 그가 오자 청년들의 열의도 어찌 높아졌는지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는 밤마다 쿵쾅쾅 노래소리며 열기띤 론쟁들이 바람결에 실려나오곤 했다. 충정은 언제나 혁신적인 안을 먼저 내놓고는 청년들을 불러일으켰다.

모든것을 인민군대식으로, 이것이 작업반청년들의 기풍으로 되어가고 그에 따라 작업반일도 쭉쭉 떠나가는상싶었다.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석지명은 언제나 웃는 모습을 거들줄 모르는 림충정의 얼굴을 사랑어린 눈길로 마주보며 물었다.

《반장동지! 우리 청년들이 저 천수답을 위한 물주머니를 건설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수답?... 물주머니?...》

석지명은 눈을 크게 홑떴다.

2정보도 되나마나한 천수답을 위해 물주머니공사를 벌린다는것이 잘 리해도 안되었으며 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림충정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추래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을 한데 모아 물주머니를 건설하면 몇정미의 물을 가두어 넣을수 있으며 그것이면 천수답의 물문제를 풀고도 남는다. 여기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는 전적으로 청

년들이 맡아서 해제끼겠다. 농사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것처럼 골아프던 천수답문제가 풀릴 수 있다.

석지명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대답을 주기 전에 후!— 하고 긴숨을 내그었다. 어쩐지 마음이 괴로왔다. 그 어떤 보물을 잃고도 수십년세월 찾을 궁리조차 하지 않은 심정 그대로였다. 해마다 천수답때문에 골탕을 먹으면서도 별수 없는 일로만 여겨왔다. 그것으로 하여 마을이름까지 달라졌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년년이 하날만 쳐다보며 살아온 석지명이다.

어쩐지 새 세대 젊은이앞에 마음이 웅색해졌다.

그래서 툭 튀어나간 첫 마디가 《그까짓 땅이 얼마나 돼서?》였다.

그러자 림충정은 대뜸 얼굴이 붉어졌다.

《그까짓 땅이라니요? 한정보든 두정보든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까?》

충정의 말에 석지명은 마음이 뜨끔해났다.

《여보게 충정이! 내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것도 아니네. 그런데 바쁜 농사철이 이제 막 시작인데 그 로력은 어디서 대나? 농번기나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자구.》

《반장동지! 로력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맡아 제기겠습니다. 도정동무랑 우린 더 이상 꼴찌마을이란 이름을 달고 살고싶지 않습니다.》

《영?》

석지명은 그만 한방망이 되게 얼어맞은것 같았다.

석지명은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전기간 바지가랭이가 마를새없이 포전의 여기저기를 바삐 뛰어다녔다. 산골농사치고는 팬찮게 낱알도 거두어들였다. 우에서 하라는 일은 군말없이 수격수격 다했다. 작업반을 꾸리는 일에도 땀을 많이 흘렸다. 작업반실도 훌륭하게 지어놓았고 창고며 집집승우리, 온실에 버섯재배실까지 남들처럼 꾸려놓았다.

석지명은 그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은근히 긍지도 느껴보았었다. 이만하면 나도 일을 많이 했지 하고 말이다.

그 긍지가 요즘에 와서 다 깨어져나가고있다.

어제 저녁때이다.

방도정이 버섯재배실을 기웃이 들여다보고나서 혼시 비슷한 어조로 말을 하였다.

《반장아바이! 우리 작업반 버섯재배실엔 북데기만 짝 들어왔군요. ... 그럴바엔 뭇하러 술한 로력과 자재를 들어서 버섯재배실을 건설했습니까?》

《?》

그때에도 석지명은 말문이 막혔다.

봄, 여름은 바쁜 농사철이고 가을철이면 가을걷

이에 바빠, 겨울은 겨울대로 농사준비에 부대끼다 나니 버섯재배실은 꾸러놓았지만 버섯생산엔 미처 낫을 돌릴 형편이 못되었다. 게다가 리소재지와 멀리 떨어져있다고보니 버섯블록을 찍을 강냉이숙을 미처 분쇄해오지 못했던것이다.

지명은 황황히 대답했다.

《애, 도정아! 걱정말아라. 영농과정별 당면과업도 미처 마무리하기가 바쁘데 언제 버섯재배실에까지 손을 댈 형편이 되느냐... 그렇다고 아예 켜버린게 아니다. 저 강냉이창자에 강냉이숙을 한가득 채워넣지 않았느냐. 이제 짬을 봐서 강냉이숙을 트랙토르에 싣고가서 분쇄해오려고 한다. 문제는 작업반에 분쇄기가 없는탓이라니까...》

석지명은 그 어떤 검열관이라도 리해시키듯이 얼버무려 대답했다.

그 일까지 생각키우고나니 석지명은 자기의 한생애 그 어떤 공백이 생긴것 같은 허무감을 느끼었다.

3

석지명은 씨뿌리기철이 가까와오면서 몹시 바빴다.

청년들이 벌려놓은 물주머니공사에도 관심을 돌려야지, 거름반출이며 종자처리, 방풍나래두르기 등 미처 생각이 다 돌아가지 못한다. 특히 거름생산이 뒤졌다. 아직 10톤은 더 있어야 했다.

할일은 많은데 관리위원회에서는 래일부터 주체농법강습이 있으니 거기에 참가하라는 연락이 왔다. 이일저일 다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들이라 석지명은 이럴 땐 내 몸이 두쪼각, 세쪼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그는 곁에 있는 도정이를 돌아보며 걱정어린 말을 했다.

《애, 도정아! 거름더미가 이렇게 낮으니 올해농사가 랑패되지 않겠는지 걱정이다.》

《반장아바이, 거름걱정은 넘려말고 어서 강습에나 갔다오시라요. 또 무슨 새로운 영농방법이 나왔는지 배워와야지요.》

방도정은 태평스럽게 말하며 지명의 등을 떠밀었다.

강습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온 석지명은 작업반실마당에 새로 생겨난 거름더미를 띄여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추래산 니탄밭에서 캐온 니탄무지라 했다. 농장원들 몇명이 한창 거기에 진거름을 섞고있었다. 그 옆에는 개인별 니탄생산경쟁도표판이 세워져있었는데 방도정이 붓으로 빨간줄을 긋고있었다.

청년들의 소행이라는 짐작이 대뜸 갔다.

석지명이 주체농법강습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간

후 청년들은 매일 아침 물주머니공사장으로 올라갈 때 수송기재를 함께 가지고 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마대, 썰매, 소발구들에 니탄을 싣고 내려왔다고 한다. 며칠사이에 큰 거름더미를 이루어놓았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군.)

청년들의 힘이 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석지명은 나이가 많은것이 한이로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 계선이 무엇인지 아직은 똑똑히 가려볼수 없는 석지명이었다.

석지명은 이렇게 저렇게 작업반일이 잘 풀려나가고있는것이 청년들 덕분이라고 인정했다. 기분이 좋았다. 그들의 뒤를 잘 받들어주어야겠다고 속다짐까지 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물주머니공사장으로 가고있었다. 강습에 참가하느라고 며칠동안 그곳에 가보지 못했던것이다.

방도정의 말에 의하면 오늘중으로 마감막이공사까지 말끔히 끝낸다고 했다. 아무리 바빠도 거기부터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석지명이다.

립춘이 훨씬 지난 산촌의 풍경은 어느덧 따뜻한 봄기운을 불러오고있었다.

앞에서는 방도정이 어린아이처럼 막대기를 휘휘 두르며 걷고있다.

그뒤를 따르는 석지명의 마음은 즐거웠다.

물주머니가 건설되니 것처럼 말썽 많던 천수답이란 말이 싹 없어지게 되었다는 감정에서 생겨난 즐거움인지 모른다. 머리를 한껏 치켜들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느라니 그림같은 산촌의 풍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개울가의 버들가지엔 어느덧 흰강아지가 피여났다. 길옆의 독장엔 냉이풀이 푸른빛을 띠었다. 부지런한 산새들은 숲속의 여기저기를 날아며며 고운 목소리를 낸다. 앞산 양지쪽엔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입쌀알같은 망울을 봉긋이 짓고있다. 그뒤에 산중괴악이라고 불리우는 등근 바위는 해지면 떠오를 달덩이처럼 안겨오는데 그밑에선 산토끼가 부드러운 풀잎을 물어들이며 새끼냥을 준비를 한다. 눈앞에 비쳐드는 모든 만물의 움직임은 하나와 같이 아름다운 극치를 향해 질주하고있었다.

공사장이 가까와올수록 그의 기분은 한층 더 들떴다.

오솔길옆으로 흐르는 개울물소리까지 노래처럼 들리었다. 한겨울 움달속에 곱같이 웅크리고있던 얼음덩이들이 시내물이 되여 흘러내리고있다. 그것이 어미물줄기가 되여 여기저기서 흘러드는 작은 물줄기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품안에 넣으며 더 큰 물줄기가 되여 흘러간다. 물줄기는 음악선물의 조화도 부린다. 조잘조잘, 주절주절, 돌돌돌...

게다가 바라보면 춤가락같이 펼쳐지기도 한다.

금실금실, 늣실늣실...

석지명의 눈에는 그것이 자연의 조화로만 보이지 않았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농사꾼에게 있어서 저 물이야말로 생명수이다. 그것은 옥이라든 옥, 금이라든 금이다. 저 물이 머지않아 물주머니에 가득어지게 되리라. 그러니 청년들이 벌려놓은 저 공사를 어찌 물주머니라고만 하랴. 옥주머니, 금주머니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 옥주머니, 금주머니가 천수답에 옥을 주고 금을 주어 나락을 펼치게 되었으니 석지명으로서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나야말로 헛살았어. 눈앞에 놓인 금덩이도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파니였다니까...)

즐거움은 자책감으로 번지었다. 발길은 앞으로 나아가고있었으나 마음은 뒤를 돌아보고있었다.

《반장아바이!》

방도정의 찾는 소리에 지명은 편뜻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 나무 이름이 뭐니까?》

방도정이 너럭바위옆에 작대기처럼 솟아오른 나무를 가리켰다.

《고로쇠나무로구만.》

석지명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름도 별나겐 붙었군요. 고로쇠, 고로쇠... 영이, 나무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석지명은 걸음을 멈추고 방도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에겐 별난 취미가 있는것 같아보였다.

언젠가는 마을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겨대더니만 오늘은 또 나무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누구인가 그를 보고 《이름철학가》라고 하기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파시 일리가 있는 말이였다.

《도정인 별걸 다 가지고 마음을 쓰는구만. 나무들의 이름이야 태고적부터 생겨난건데...》

대뜸 방도정이 그의 말을 부정해버리였다.

《아닙니다. 그래 이 고로쇠나무가 태고적에 생겨나면서부터 내 이름은 고로쇠나무다! 하고 소리치며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붙였겠지요? 그러니 하필이면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말입니다. 다른 나무들을 좀 보십시오.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이름만 들어봐도 정서가 넘치고 향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기두 해...》

석지명은 방도정의 말을 긍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리치에 맞았기때문이다.

방도정은 쉬임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동맹초급단체위원장동지의 이름을 좀 보십시오. 립충정, 어떻습니까? 이름석자에 시대가 비껴있지 않습니까!》

《?!》

석지명은 놀랐다. 이녀석이 그야말로 이름철학자로구나. 지명은 방도정의 마음을 중퍼볼 생각으로 슬그머니 물었다.

《도정인 그래, 제 이름은 마음에 드나?》

방도정이 머리를 뒤로 제끼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한참후에야 《예, 마음에 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반장아바이!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을 때 길 도자에 바를 정자라 했답니다. 길을 똑바로 가라는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길을 똑바로 간다는게 정말 험치 않은가봅니다.》

도정의 얼굴표정이 숙연해졌다.

지명은 의아하여 물었다.

《그 이름자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도정은 숙였던 머리를 편뜻 쳐들었다.

《예. 이름값을 하지 못할번 했지요. 제가 돌격대에 나간 첫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한 물길공사를 맡아하했는데 얼마나 일이 힘들던지... 하루는 집생각이 못 견디게 나서 밤중에 슬그머니 배낭을 집어들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울가 다리목에 앉아있는 우리 중대 구대원동지들을 만나게 될줄이야. 한고향에서 입대한 처녀총각이었는데 그들을 지나쳐가면 눈에 띄우겠고. 그래서 엉거주춤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게 되었지요. 한데 그들의 대화가 제 발을 잡아당기게 될줄이야...

〈영웅동무! 아이참, 동무 이름은 부르기 별나요. 마치도 영웅이란 뜻 같아서... 이름이 영웅일따름인데 어쩔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하하... 순이, 사람이 이름값을 하라는 말이 있지? 내 꼭 이름처럼 영웅이 되는거 보라.〉

〈어마, 영웅이 되는게 그렇게 간단하담?!...〉

〈그렇지. 순이동무, 영웅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우린 영웅적으로 살며 일하길 바라는 시대에 살고있어. 누구나 힘바쳐 일하면 영웅이 되는 시대에 살고있단 말이야. 난 꼭 영웅이 되겠어.〉

난 그만 그 자리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우두커니 서고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이름자를 생각해볼게 되더군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길을 헛들지 말고 곧바로 가라고 이름도 뜻있게 지어주었는데 도정인, 넌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거냐 하고 말입니다. 그날 난 심한 자책속에 되돌아오고말았습니다. 영웅이 되지는 못해도 당을 따라가는 길외에는 헛들지 말자는 굳은 결심도 다졌구요.

그때부터 난 이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볼곤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도정은 들고있던 나무가지로 흐르는 내물을 대충

없이 휘저으며 잠자코 생각에 잠겨있었다.

석지명은 멍하니 자신을 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도정의 말마디들이 새록새록 되 울리고있었다. 이름, 시대가 주는 이름...

4

물주머니공사장은 마감막이공사를 다그치는 청년들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제방우에는 붉은기가 휘날리고 그 기발을 배경으로 공사를 다그치는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어느 예술영화의 장면들처럼 장쾌하게 안겨왔다.

모두가 뛰고있었다. 막돌을 지고 흙마대를 메고 통나무를 맞들고 모두가 뛰고뛰었다. 규모로 보면 작은 호수에 불과한 물주머니이지만 그 공사를 다그치는 청년들의 열기는 큰 규모의 갑문이나 간석지제방공사를 맡아나선 건설자들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일자리를 푹푹 내는 청년들이었다.

석지명의 눈길이 제방우에 세워진 속보판으로 갔다.

혁신자들의 이름이 주련이 나붙었다. 모두가 혁신자였다. 일들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장동지! 이만하면 물주머니가 된것 같습니까?》

림충정이 석지명이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암, 여부가 있다. 물이 다 차면 여기에다 배를 띄워놓아도 손색이 없겠네. 이크! 저걸 보게. 산천 어란 놈이 벌써 뛰어들었군. 허허허.》

기분이 한껏 들뜬 석지명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나서 림충정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여보게, 기분이 정말 좋구만. 공사총화를 해야지? 내 돼지를 잡겠네.》

이때 통나무를 절구공이 다루듯이 잡고서 언제우를 팡팡 다지던 방도정이 불쑥 끼어들었다.

《반장아바이! 공사총화를 할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할일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돼지는 잡아주면 먹겠습니다. 충정동지랑 모두 지쳤으니...》

석지명의 눈길이 림충정에게로 갔다.

수척해진 얼굴모습, 붕대로 감은 손가락들, 항상 단정하던 웃웃은 땀과 흙물로 얼룩졌다.

농사차비, 물주머니공사, 몇달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쳐왔던가. 한숨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석지명은 《무슨 일이 또 있나? 이제 좀 쉬엄쉬엄 해두 되겠네. 씨뿌리기준비도 마감지었다니까...》 하고 권하는 말을 하였다.

림충정이 환히 웃는 얼굴모습을 지어보였다.

《반장동지! 우린 여기에다 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물주머니의 물량으로 보아 비동기발전기 하나쯤은 돌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방도정동무가 발기했지요. 우린 결정했습니다. 물주머니공

사가 끝나는 차례로 착공하자고...》

《방도정이가?》

며칠전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청년학교에 앉아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놓고 토론하고있었다. 문제토의가 절정에 올랐을 때 전기불이 깜박 꺼졌다. 정전이 되었던것이다. 협의회가 중단되고 모두는 전기불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불은 인차 오지 않았다. 침묵만이 흘렀다.

이때 안절부절하던 방도정이 침묵을 깨뜨렸다.

《모두 언제까지나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작정입니까? 동무들, 우리 저 물주머니아래에다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 조명문제가 풀릴수 있습니다. 국가에 리익을 주는건 물론 이고요.》

《소형발전소?!》

모두 호기심이 생겼다. 이어 《야!-》하는 환성과 함께 열기띤 론쟁이 시작되었다. 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문제토의로 넘어갔다.

가능성이 확증되었다. 이어 청년들은 물주머니공사가 끝나는 차례로 곧 소형발전소건설에 진입하자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림충정이 입을 벌글서하고 듣는 석지명에게 자랑스레 덧붙였다.

《우리 도정동무가 재간동이입니다.》

석지명의 마음은 금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오른것 같았다.

천수답에 흘러드는 물소리와 함께 발전기의 동음이 금방 들려오는것 같았다.

기나긴 세월 주인없이 흘러버리던 물이 천수답에 옥과 금이 되었다면 이제 마을에까지 빛을 주게 되었다. 그 기쁨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그렇지만 부풀었던 석지명의 마음은 순간에 가라앉았다. 날개부러진 새처럼 어깨가 축 처져내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또다시 자신에 대한 서글픈 회오가 마음에 덮썩워졌다. 천수답을 개간한 사람이라고 간직했던 궁지와 자부심은 그야말로 지나간 세월의 추억으로만 남았다. 그 궁지와 자부를 세월과 더불어 빛내일 생각은 왜 못했던 말인가.

지나간 그 시절에 그는 언제나 일 잘하는 석지명으로 불리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하여 한생을 농사일에 바쳐왔다.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에서 제앞에 차례진 몫은 제 힘으로 해체졌다. 일을 잘 못한다고 지적받은 일은 한번도 없다. 다만 언젠가 같이 일하는 사로청원(당시)에게서 일은 잘하는데 창조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못 들은척 했다. 농장원이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무

순 창조성인가, 창조성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나 필요한거지 농장원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없고 자기 말은 일을 수직수직 잘하는 그를 보고 작업반의 보배덩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는 작업반장이 된 후에도 그렇게 일했다. 관리위원회의 지령을 법으로 여기고 해마다 반복되는 영농공정을 어김없이 밀고나갔다.

석지명은 자기판에도 농장원시절에나 작업반장시절에나 일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인생말년에 이르러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가. 청년들이 벌려놓은 물주머니공사도, 발전소건설도 모두 반가운 일뿐인데 왜서인지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석지명은 물주머니공사장을 떠나 작업반실로 내려오면서도 줄곧 그 생각을 더듬었다.

5

그로부터 두달후였다.

모내기진행정형을 료해하려고 작업반에 내려왔던 군당책임일군에게서 지명은 칭찬을 받았다.

천수답 물주머니, 아카시아나무림, 발전소건설장을 거쳐 작업반의 농사정형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고 료해하고난 책임일군은 석지명에게 담배까지 권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천수답엔 벌써 모를 다 냈더구만. 올해 모내기 전투에서는 동무네 작업반이 1등을 할거라고 다들 얘기하더구만. 발전소건설전망도 좋구. 아카시아나무림도 잘 조성해놓고... 일을 많이 했소. 참, 동무네 요즘 인민군대원호사업도 잘하더구만. 주둔구역 부대장으로부터 나한테 편지가 왔소, 감사하다고. 들어보면 온통 좋은 소식뿐이요.

요전번 휴식날엔 농장적인 체육경기에서 1등을 했다면서? 난 처음 군에 왔을 때 꼴찌마을이라고 해서 이 무슨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별난 이름이 다 있나 했더니만 글썽 그렇겠지. 지금과 같은 선군시대에 꼴찌마을이라는데 상상이나 할 이름이요? 반장동무가 인생말년에도 천수답을 개간할 때처럼 빛나게 살고있으니 그게 정말 기쁜 일이요.》

석지명이 작업반장으로 일해오면서 그토록 큰 칭찬을 받아보기는 오래간만이였다. 그러나 기쁘고 흡족한 생각보다도 언뜻 림충정이나 방도정을 찾고픈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쩐지 남의 성과로 훈장을 탄것 같다고 할가.

석지명은 작업반실 마당에 가서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난 칭찬을 받을만 한 일을 하지 못했어. 그럴만한 체면이 못되지. 그건 다 우리 청년들

의 성과야. 난 취뿔도 한것이 없어. 그저 코빼인 송아지처럼 따라만 다녔지.)

그는 날이 저물도록 마당을 빙빙 돌며 서성거렸다.

문득 편의차가 눈에 안겨왔다. 마당에 선택로 세월의 눈비를 맞다나니 이제 무척 늙아졌다. 떨어진 판자쪽 하나가 보였다. 그것을 보수할 생각이 든 그는 창고에 들어가 판자 한장을 들고나왔다. 그러는 그의 앞을 문득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장동지!》

림충정과 방도정이였다.

둘은 서로 마주보며 의미있게 웃는가싶더니 도정이 다가와 지명의 손에서 판자를 받아쥐었다.

《응?》

림충정이 들고온 종이두루마리를 마당의 박힌돌 위에 퍼놓았다.

《이건 뭐가?》

《작업반편의실 설계입니다.》

《?》

석지명에게 림충정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국수누르는 기계, 버찌는 기계, 강냉이짚 타개는 기계, 버섯채배를 위한 강냉이속분쇄기를 놓는 건물을 건설하자는것이다. 군농촌건설대와도 다 토론이 있었던단다.

설명을 듣고난 지명은 멍하니 그들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림충정과 방도정은 싱글벙글 웃고만 서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하늘에서는 불변궤도를 돌는 못별들이 하나, 둘 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한생을 톺아올라도 가닿지 못할 저 별의 세계! 그 별들의 수가 얼마인지 석지명은 알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알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똑똑히 보였다.

작업반실 마당구석에 박혀있는 편의차와 청년들이 안고온 편의실설계도면이 대조를 이루며 안겨왔다. 앞에 놓인 설계도면이 청년들이라면 마당구석에 구겨박혀있는 편의차는 석지명, 바로 자신이였다.

지명은 왜서인지 새 세대 이 청년들과 자기와의 사이에 미지의 세계, 못별들이 총총한 넓다란 저 하늘이 가로놓여있는것 같았다.

방도정이 반장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반장아바이! 우리 작업반선전실에서 청년동맹원들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장아바이가 방청으로 참가해주십시오.》

마음속에 무뚝한 감동을 그대로 안은채 지명은 선전실로 향했다.

선전실에는 처녀, 총각들이 한가득 앉아 희망과 신심으로 눈들을 별처럼 반짝이며 들어오는 석지명과 림충정, 방도정을 반기고있었다.

이윽고 림충정이 연락에 나섰다.

《동무들! 이번에 우리 청년동맹원들이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천수답 물주머니도 완성했고 소형 발전소건설도 마무리하여 전기걱정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할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열띤 웨침들이 화답하여나섰다.

림충정은 그러는 청년들을 한명한명 둘러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작업반에서는 체본실을 새로 짓자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 도시 못지 않은 목욕탕시설까지 갖춘 편의실을 멋있게 지어보자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 맡아제끼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때 방도정이 불쑥 일어서며 말했다.

《그다음엔 우리 작업반구역에 불성사나운 각담 길도 멋진 도로로 정리하자는걸 제기합니다. 도로가 번듯해야 우리 마을이 환해질것 같습니다. 도로가 한심하니 그 길을 걸어다니는 우리 마을의 고운 처녀들이 빛이 안납니다. 도로를 멋들어지게 닦아놓고 우리 처녀들이 멋진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날아다니게 하잔 말입니다.》

《하하하!》, 《호호호.》

웃음소리가 방안을 들었나놓으며 열어놓은 창문 밖으로 타래처럼 뿜어나가는것 같았다. 그 웃음소리에 놀란듯 마당의 감나무잎새들이 와스스 설레이었다. 그속에서 어느 처녀가 옆동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애, 명희야! 그럼 우리 마을이름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정말...》

잇달아 방안에는 고요가 차분히 깃들었다.

림충정은 의의있는 눈길로 석지명반장을 언뜻 여겨보았다. 아니, 이것은 지명의 느낌이기도 하였다.

《제 군사복무시절에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분대의 한 전우의 고향이 온 나라에 소문난 미곡협동농장이였습니다. 그 친구의 고향을 어버이장군님께서 찾으셨던 다음날 그 소식이 실린 신문을 독보하면서 그 동무는 우리 중대병사들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고향을 벌써 여러차례 찾아주셨는데 글썄 우리 마을이름을 살구동네라고 정겹게 불러주시였습니다.

전 장군님께서 살구나무가 많아 살구동네라 단순히 불러주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선경으로 활짝 꽃피난 농촌마을의 풍경이 하도 리상적이어서, 하도 마음에 드시여 그이께선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동무들! 우리모두 자기의 고향을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선경으로 변천시키는데서 혁명군대의 군인의 본분을 보입시다!》

나는 그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우리의 변천하는 시대가 우리 마을엔 어떤 이름을 주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동무들! 우리 힘껏 일합시다. 더 많이 땀을 바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무릉도원으로 꾸려 꼭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십니다.

그때 가서 선군시대는 우리 마을에 력사가 추억하고 시대에 길이 남을 멋진 이름을 가져다줄것입니다.》

작작그르르—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석지명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그는 선전실토방에 걸터앉아 푸근한 밤공기를 힘껏 들이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령롱한 별들! 꿈값고 일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 같구나.

지명은 가슴아픈 자책과 함께 마음이 한껏 시원하고 가슴도 넓어지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나,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해서 그걸 그저 고수하려고만 했지 모든 일을 변천하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고 변혁할 생각은 하지 못한 나, 그러면서도 농업전선을 끄떡없이 지켜서있다고 영터리없는 자부속에 살아왔지.

정말 고리타분한 낡은 사고를 우리 청년들이 퇴위주었구나. 이제 낡았어, 젊은이들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지. 아무렴, 그래...

지명은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회의가 끝났는지 선전실문이 열리고 청년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때 밝은 불빛에 지명은 마당의 박힌돌을 띄어보게 되었다.

《가만, 도정이!》

석지명은 호기있게 소리쳤다.

《가서 곡괭이를 좀 가져오라구.》

청년들이 호기심어린 눈길들을 주고받으며 반장을 예워쌌다.

도정이 물었다. 《이 밤중에 곡괭이는 왜 찾습니까?》

《저 박힌돌을 뽑아내야겠네.》

《예?!》

이어 젊은이들은 와— 하고 웃어제졌다. 누군가 웨치듯이 묻는다.

《그럼 반장아바이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석지명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아니야. 내 어제는 저놈의 돌에 걸려 넘

어머니 유서

리광선

올해에 여든셋에 이르셨던
백발의 나의 어머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찾아오는 조객들마다 나를 보고
어머니를 잘 모셔온 자식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내 이 나이에 이르도록
어머니가 나를 키워오셨기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래 사신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좋고
로동당의 세상이 좋았기때문입니다
나를 키운 어머니를 그리며
펼쳐보는 어머니의 유물들...

유물이라야 눈에 익을대로 익은
비너며 얼레빗 그리고 바늘이며 골무들
따사롭던 어머니의 체취
거기에서 다시금 느껴보는데
그밑에 놓여있는 한장의 종이

낮익은 필체가 한눈에 안겨오는 그 종이에
어머니는 또박또박 써놓았습니다
의용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나왔던
홀러간 세기의 50년도 당시
헤어진 부모형제들의 이름이며 나이
그들의 성격이며 외형상 특징들...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품에 안겨 자라던 나날에
옛말처럼 귀에 익도록 듣고들은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잊어버릴가봐
글로 또박또박 새겨 남기신 어머니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닦으며

내 바라보는 사진속의 어머니의 모습
아, 저 백발속에
20대 홍안시절의 검은머리가
조금도 세지 않고있었음을

비록 유서로 생각하며 쓰신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분명 유서입니다
혈육들과 생리별한 그 한이 사무치고
대를 이어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
그들을 반드시 찾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부탁 간곡한 당부가 절절한 유서

그런 유서 어찌 한두장뿐이겠습니까
국토의 분렬로 한이 담긴
그런 유서들이 쌓이고 덧쌓여져
그 무게로 하여 이 행성을
그러히도 무겁게 돌아가게 하는것 아닙니까

불끈 힘줄이 뻗쳐오릅니다
유서를 켜 이 손이 총을 잡은것처럼
이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조국통일성전에서 승리하는 날
내 남해의 기슭에 이 유서를 놓고
어머니의 백발속에 간직되어있는
그 검은머리앞에 절을 드리려니

어머니가 나를 길러오셨습니다
떠나가신 뒤에도 변함없이
이 아들의 심장을 조국통일의 의지로
더욱 불태워주시는 어머니
이제 통일의 만세소리
삼천리강산을 진동하는 날이면
나는 진정 어머니앞에 장한 아들로 될것입니다

어질번 했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돌이였어.
뽑아버려야 해.》

지명의 말꼬리는 자신에게 하는 다짐인듯 굳은
어조로 변했다.

도정은 창고로 뛰어가 곡괭이를 들고왔다. 청년
들은 달라붙어 잠간사이에 박힌돌을 뽑아내고 마당
을 잘 정리해놓았다.

《어- 이제야 시원하군.》

지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하였다.

《하하하.》, 《호호호.》

누군가 웨쳤다. 《자, 동무들! 잡시다.》

삼삼오오 젊은이들은 떼를 지어 마을길로 흩어져
갔다. 노래를 부른다.

...

로동당 밝은 세상 꽃피는 세상
농장의 젊은이들 꿈도 많아라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새 희망 아름다운 맹세도 하네
...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별은 점점 더 많아지는
듯 했다.

청청한 하늘, 패청한 밤이였다.

별같은 불빛들이 땅에서,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반짝반짝한다.

우리 시대 청춘의 리상과 애정클리문제

최언경

주체102(2013)년 상반년 《조선문학》잡지에는 청춘들의 애정클리문제를 취급한 몇편의 단편소설이 실리었다.

물론 애정클리문제는 우리 문학의 기본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나온 청춘시절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을 안고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가 체험한,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인간문제의 하나가 청춘남녀들의 사랑이라고 볼 때 인간생활의 철학을 반영하는 우리 문학은 마땅히 참다운 애정클리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랑관계를 잘만 형상하면 우리 시대의 애정클리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줄수 있고 작품을 정서적으로 색깔있게 만들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속에는 일찌기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보지 못한, 그 어느 나라 청춘들도 창조하지 못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가 더 활짝 꽃피나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 아름다운 인간들의 사랑의 세계를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인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행복도 다 맡아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만 발양될수 있는 고상한 애정클리를 참신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시대 청춘들이 어떤 인생관을 지녀야 하는가를 깊이있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에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높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참된 인생관의 중요한 측면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사회적리상과 애정클리의 호상관계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정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숭고한 리상을 떠난 순수 사랑이란 있을수 없다.

이 숭고한 리상을 꽃피워가는 청춘들의 아름다운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의 전정물주제작품에서 훌륭히 창조되였다. 물론 참다운 애정클리문제가 반드시 전정물주제작품에서만 훌륭히 창조될수 있다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 그것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더불어 매 개인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사전이고 전우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총구를 서슴없이 자신이 막아설 줄 아는 참된 인간, 참된 동지의 진가를 가르치는 시금석이라고 할 때 참된 사랑의 가치는 불과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화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 《언약》(안동춘 《조선

문학》2013년 2호)은 좋은 긍정적경험을 준다.

작품의 주인공은 못사람들로부터 《거만하겠다》, 《멋쟁이었겠다》하는 평을 받는 도시태생의 예지롭고 아름다운 미모의 녀성특무상사 송경희이다.

심한 다리부상으로 부득이 말을 타고가던 반포대대의 화력부관 조성진중위가 경희가 호송하는 부상병들을 위해 그 말을 양보해준것을 계기로 두사람은 첫 인연을 맺게 된다.

경희가 걸보기에 그리도 무례하고 무뚝뚝하게만 보았던 이 중위의 심장속에 얼마나 뜨거운 동지사랑의 세계가 가득차있는가를 깊은 감동속에 느끼게 되는것은 8명의 결사대로 러단후위를 공격해오는 적을 견제하기 위한 전투에서였다.

죽음을 각오한 화력부관일행을 뒤따라 전투현장에 나타난 경희를 보며 모두가 깜짝 놀란 가운데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묻는 화력부관에게 처녀는 부상병이 생길수 있지 않는가고 대답했다. 그러나 화력부관 성진은 《우리에게 부상병은 없을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경희는 가혹하고도 불가피한 그 말의 참뜻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순간 작렬하는 포탄속에 자기를 몸으로 막아주는 화력부관!

화력부관은 마지막결사의 맹세문을 쓰듯 쪽지편지를 써서 러단장에게 전해달라고 경희에게 부탁하였다.

경희는 인차 오라고 당부했고 성진은 꼭 간다고 대답했다. 하면서 처녀는 《잘 싸워요, 사랑하는 동무.》라고 속삭였다. 그리고도 처녀는 못다준 마음이 남아있는듯 《오세요. 먼 후에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집은 찾기 쉬워요. 해방산아래 국수집 열 대문에 딸랭이가 달린 집이에요.》라고 진심으로 당부하였다.

이때 성진은 이글이글 타는 얼굴로 《찾아가겠소, 꼭 찾아가겠소. 잘 가요.》라고 조용히, 그러나 정열에 넘친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죽음도 초월하는 화선 《언약》이었다.

...

드디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세월은 흐르고 성진의 생사는 기약조차 할수 없었으나 처녀는 전화의 그날처럼 변함없이, 죽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단념하라는 모진 권고도, 화려한 사랑의 유혹도 단호히 물리치고 오직 한사람 성진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밀고 기다리던 상봉의 시각은 왔다.

용감한 화력부관 성진은 죽지 않았으며 죽지 않고 기어이 승리하고 언약대로 경희를 찾아왔다.

경희네 집 대문에 달린 딸랭이는 죽음도 이겨낸 그들의 뜻깊은 상봉, 귀중한 사랑을 축복하듯 딸랑 딸랑 울리었다.

하다면 화선에서 맺은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얼마나 소중한가에 처녀는 생사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렇게도 순결하게 지켜낼 수 있었는가.

우리의 주인공 경희자신이 독자들에게 대답한다. (이 감정이 진짜사랑인가?... 모든것을 바치고 위하는 사랑이...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여 그를 사랑할까. 조국앞에 충실한 그 정신에!... 하긴 그것이면 다시, 그것이면!... 그러나 그는 영영 못 올수도 있잖는가.)

이것은 영영 못 올수도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뜰한 처녀가 마음속에 떠올려보는 생각이다.

처녀는 오열을 터뜨리듯 어머니에게 웨쳤다.

《기다릴테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어요. 조국을 위해, 오늘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친 그 정신에 나는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대 약속했던것이예요. 만약 내가 배반한다면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배반일것 같아요?

난 녀성이기 전에 공민이예요.》

녀성이기 전에 공민!—그렇다.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작품의 종자도, 작가의 뜨거운 주장도, 우리가 축복해주어야 할 참된 사랑의 아름다움과 값높은 진가도.

여기에 그 무슨 덧붙임말이 필요하겠는가.

독자와 함께 평자는 우리 주인공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을 뜨겁게 축복해줄뿐이며 그들의 후손인 오늘의 청춘들이 그들처럼 조국앞에 떳떳하게, 동지와 전우의 정으로 가장 아름답게 사랑의 꽃을 피워갈것을 간절히 바랄뿐이다.

그리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의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을 애정류리문제에 담아 감명있게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해준 작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할뿐이다.

애정류리문제를 취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생활반영의 진실성보장이며 특히는 감정조직을 진실하게 잘하는것이다.

정치사상적지향성이 뚜렷하고 정책적대가 바로섰다 하더라도 형상이 진실하지 못하면 독자들에게 그 어떤 공감도 감흥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형상이 철두철미 생활의 논리와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류리주제의 작품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감정조직을 진실하게 잘하는것이다.

인간의 참된 사랑은 가장 순결하고 고상하며 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다.

따라서 다른 작품들에서보다 특별히 감정조직을 생활논리에 맞게 잘해야 하며 오직 이렇게 할 때 작품을 정서적으로 색갈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언약》과 함께 《사랑》(리태운 《조선문학》 2013년 3호)은 공감이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소설 《사랑》은 3대혁명소조출신의 처녀관리위원장 리현심과 제대군인출신의 기계화작업반 프락포르운전수 림옥이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모의 도시처녀인 현리관리위원장 현심과 프락포르출신의 프락포르운전수 림옥이가 서로 사랑하

게 되리라고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들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맺게 되었으며 그 사랑은 불같이 뜨겁게 무르익었다.

그것은 결코 작가에 의하여 강요된것이 아니었으며 생활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알찬 열매였다.

그 사랑의 감정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15도까지의 경사밭을 갈 수 있는 비탈밭가는 기계를 기어이 완성해내려는 공동의 열렬한 리상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

림옥은 현심이 자기가 소조원때 연구하던 기계의 완성을 부탁했을 때 《열매도 못 볼 나무에 두엄만 줄가봐》 그런다고 하며 가볍게 힐난한다.

전 관리위원장처럼 도시처녀인 현심이라도 때가 되면 흙 떠나가버리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림옥이 현심을 넘겨다보지 않을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편 현심의 눈에 비친 림옥은 짙하면 우물렁거리고 투덜거리기 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농장을 더 좋은 선경으로 아름답게 꾸리고 마을사람들을 더 잘살게 하려는 그들의 불같은 마음의 공통성은 저도 모르게 점점 가까워지게 하였다.

더우기 현심의 발기로 40여채나 되는 새 문화주택을 건설하는데서 목재문제가 걸려 그가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림옥이가 말없이 선뜻 나서 그것을 풀어 제끼자 현심은 그의 파단성을 두고 확실히 그에게는 자기에게 없는것이 있다고 크게 경탄한다. 바로 그것이 혁명적군인정신인것이다.

림옥은 어제날의 용감한 땅크병이다.

이리하여 림옥은 처녀의 가슴에 조용히 자리잡기 시작한다.

게다가 현심은 눈코 뜰새없는 그 바쁜 일속에서도 때없이 까닭모르게 찾아드는 외로움에 시달릴 때면 마침내 자기가 그 누구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럴 때면 문득 림옥의 얼굴이 떠올랐던것이다.

이 얼마나 진실한 생활의 론리이며 처녀의 감정 발전인가.

마침내 처녀의 사랑은 더더욱 무르익어간다. 유압식다리를 가지러 힘든 길을 갔던 림옥을 마중하려고 현심이 나왔다.

반갑게 만난 그들은 농장의 모든 논밭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 꿈을 나눈다. 올해 농장에서는 1만톤농장의 봉화도 추켜들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미색바지에 까만 소매 짧은 셔츠를 입었을뿐인데 오늘따라 무척 아름답게, 세련되어보이는 처녀의 얼굴을 살피면서 림옥은 노래를 부르라 청하며 노래를 듣고나서는 말한다.

《난 이제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떠난 다음에 마을은 펍 쓸쓸할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였으며 이제 와서는 더는 가슴에 묻어두고만 있을 수 없는 남자의 웅심깊은 심장의 고백이였고 달리는 될 수 없는 감정축적의 당연한 폭발이었다.

한편 현심은 이러한 림옥을 대하며 《...참다운 행복은 뜨거운 사랑을 바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말

뜻을 나는 이제야 알것 같아요.》라고 하며 자기를 관리위원장동무라고 부르지 말고 그저 현심이, 현심동무라고 불러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자기도 영영 련포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였으며 달리는 될수 없는 열렬한 사랑의 화답이였다.

얼마나 미덥고 사랑스러운 청춘들인가.

책을 덮으며 독자들은 스스로 더욱 부강하고 아름다와질 조국과 더불어 부디 행복할 청춘남녀들의 미래를 축복하게 된다.

이처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은 은혜로운 해빛아래 반복이 꽃피는 내 나라, 내 조국, 더없이 보람찬 우리 생활이 가져다준 웅당한 결실이였으며 감정발전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였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고자 하는것은 련포땅의 주인이 된 현심의 형상이 우리 문학에서 흔히 보았던 도시처녀가 농촌에 뿌리내린다는 이야기의 반복이며 도식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자기의 고유한 생활론리에 따라 진실하게 창조된 형상은 반복이 아니라 창조이며 도식이 아니라 독창적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애정류리문제를 취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역시 묘사이다. 단편소설의 묘기도, 생활의 진실한 반영도 구경은 묘사에 의하여 형상적으로 담보된다.

애정류리문제작품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초상묘사, 더우기는 감정의 발단, 발전, 폭발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감정조직을 안반침하는 극히 섬세하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는 심리묘사이다.

사랑이란 원래 말로써가 아니라 누구도 모르게 심장으로 안고사는 감정이여서 여기서는 심리묘사가 자못 중요한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의 두 단편소설은 그 묘사의 묘기를 잘 보여주고있다.

희열과 랑만에 넘쳐 웃고 떠들며 즐거이 일하는 농장사람들을 두고 현심은 가슴그들먹이 차오르는 기쁨을 이렇게 느껴본다.

...참으로 웃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웃을 일이 저리도 많을가. 일은 힘겹고 애로와 난관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그저 태연히 웃는다. 뭐나 다 수월하고 가능할뿐이다. 땅과 빛과 씨앗만 있으면 걱정할것 없다는 배짱인것 같다. 은연중 현심이란테도 그런 버릇이 생겨 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해버린다. 방도는 그다음에야 찾아보게 되고 또 찾는것이다. 책에서는 이런것을 가리켜 《필요성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정식화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리론이 따로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는것이다....

하여 현심은 무던히도 정이 끌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순박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속삭인다.

이제는 이 땅에 소중한것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이제 문득 이 모든것과 헤어지게 된다면 현심은 아마 목놓아울것이다.

묘사의 의미는 참으로 심오하다. 바로 사랑하는 이 땅, 이 정든 사람들을 떠나서는 못살게 된 현심

의 이런 마음속에 그가 련포땅에 영영 뿌리를 내리게 된 생활적바탕이 있고 바로 이 생활바탕이 있어 림옥에 대한 사랑도 처녀의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것이다. 정든 땅, 귀중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떠난 사랑이란 무의미한것이다.

그런가하면 무르익는 사랑속에 두 청춘남녀가 가슴끓여하는 그 깨끗한 순정의 세계를 조용히 엿보기로 하자.

성성 프락또르로 신바람나게 발을 갈며 구성지계 《발갈이노래》를 부르는 림옥을 바라보며 하는 현심의 생각에 대한 묘사.

...뚜껑을 잡아제긴 땅에서는 보얀 김이 피어올랐다. 벌레를 쪼아먹으려 모여온 새들은 그의 두리를 환희롭게 날아돌며 대륜무를 펼쳐놓았다. 그속으로 걸어가느 림옥은 하늘나라의 신선같았다. 아니, 자연을 길들여 자연의 시중을 받으며 자연궁전을 거니는 자연의 왕자같았다. 참으로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것을 확인하는듯 한 저와 같은 상징적인 형상은 도시에서는 물론 어느 예술가도 창조할수 없다는것을 현심은 안다....

이것은 현심의 심장속에 이미 림옥이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심리묘사이다.

그런가하면 보다 작고 섬세한 심리묘사도 있다.

현심이 림옥의 상한 다리부위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아파요?》하고 물었을 때 림옥은 전기에라도 닿은듯 다리를 가늘게 떨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허나 실은 아프다는 감각보다 흡족하고 유쾌한 감정이 더 우세했다....

참으로 생활그대로의 방불하고 진실한 심리묘사이다.

이런 훌륭한 묘사는 단편소설 《연약》에서도 볼수 있다.

치열한 격전속에서 화력부관 조성진이 무엇인가를 쓰는것(그것은 러단장에게 보내는 쪽지편지였다.)을 보고 송경희가 하게 되는 속생각이다.

...최후를 앞둔 맹세문인가. 그래, 결사전을 할 때가 왔다는것이지. 이들은 모두 죽을것이다.

경희는 심장이 비틀리우는듯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숨얼하고 비장한 감격에 휩싸이며 생각했다.

(나도 저 맹세문에 수표할테다. 후날 어느 박물관에서 저걸 보면 사람들은 나같은 처녀도 결사대원으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고 눈물머금고 이야기하리라.)...

이러한 내면세계의 묘사는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그들의 심장속에 끓고있는 사랑은 전화의 그날에나 강성국가건설의 오늘에나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위해서는 그 소중한 사랑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의 정화였다.

이 단편소설들이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작가들은 애정류리주제의 작품뿐아니라 애정류리문제를 반영하는 모든 경우에 그것을 한갓 작품의 정서를 돋구기 위한 양념으로가 아니라 애국충정에 불타는 우리 청년들을 보다 아름다운 삶과 영웅적위훈으로 고무하는 중요한 형상공간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산왕의 제자



리 성 식
그림 김 광 석

붕!—

렐차는 작황좋은 농장벌을 꿰치르며 기운차게 내달렸다.

한여름철의 더위를 가시며 열려진 차창으로 맞바람이 선들선들 불어들었다.

려객들은 즐거운 이야기판을 펼치면서 웃고 떠들었다.

홀로 돌아앉아 차창밖만 내다보던 정선영은 한숨을 시름겹게 내그었다.

(내가 길을 잘못 떠났는가? 일이 왜 자꾸 꼬이기만 한담.)

이러던 선영은 나약해지는 자신을 깨닫고 애써 생각을 고쳐먹었다. 수심에 잠긴 한 군인의 모습이 떠올라 그는 마음이 조금해졌다.

리충성... 선영이가 사는 대판군 덕연리 어영골과 산고개 하나를 사이둔 곳에 주둔한 인민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청년이다.

선영은 우연한 기회에 그를 알게 되었다.

작년 가을 어느날 선영이 집뒤울안에서 늦복숭아를 따들이고있는데 네댓명의 군인이 산고개를 넘기 위해 골안길을 걸어올라왔다. 그들은 어영골막바지에 자리잡은 선영이네 집앞에 있는 박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더니 잠시 앉아 다리섬을 했다.

그 얼굴들이 낮익어 선영은 《마침이구나!》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제 정오무렵 리소재지에 내려갔다 오던 선영은 무기와 배낭을 메고 땀을 철철 흘리면서 산악극복훈련을 하는 한개 소대가량의 군인들을 보았다. 더운 때 정말 수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선영은 얼른 집에 올라가 시원한 오이랭국을 한바چه 쏘푼 다음 고구마까지 한가마 삶아가지고 나왔다. 헌데 그만 한발 늦어 군인들은 이미 떠나간 뒤였고 그들이 골개울에 새로 놓은 돌다

리만이 남아있을뿐이었다.

그날의 아찔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라 선영은 복숭아광주리를 안고 군인들한테로 서둘러 다가가다.

집주변에 가지가 휘늘어지도록 주렁진 잘익은 복숭아들을 희한하게 둘러보던 군인들은 선영이가 주는 복숭아를 사양않고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면서 복숭아를 입으로 가져가던 한줄배기, 두줄배기들은 외파로 떨어져 침울해 앉아있는 사판의 눈치를 볼뿐 선뜻 먹지는 못했다.

그러자 사판은 훌쩍 일어나 자리를 피하는것이였다.

선영은 침울했던 그 사판의 인상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들중의 한 병사가 이튿날 기통수완장을 띠고 산고개를 넘어내리다가 트랙에서 뛰노는 진향이(선영의 둘째딸)한테 왕밤알을 꺼내주며 잠간 숨을 돌리었다. 그한테 삶은 고구마를 내다 권하던 선영은 지나치는 말처럼 한마디 슬쩍 엇짚렸다.

《어제 그 사판 있잖아. 사람이 너무 똑한것 같애.》

그러자 그 병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찾아들었다.

《우리 분대장동진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가정적 불행을 당한 후부터 남과 잘 섞이지 않고 늘 집근심에만 잠겨있습니다.》

《집이 어떻게 됐어요?》

《분대장동지가 군대에 나온 후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고 동생들끼리 살고있다는겁니다.》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맺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그후부터 낮에 가두녀맹원들과 함께 농장

에 지원나가 강냉이이삭따들이기를 할 때도,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들어 창문으로 비쳐드는 달빛을 볼 때도 선영의 눈앞에선 병실밖 산기슭에 홀로 앉아 눈물지을 한 군인의 모습이 자꾸 얼른거렸다. 왜 그런지 남의 일같지 않아 쉬이 스쳐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영은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너댓대표로 산너머 인민군부대에 원호물자를 가지고갔을 때 리충성분대장을 만나 부모와 동생들 문제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친절히 말해주었다.

그랬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곁에서 말이나 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영은 그날 밤 천마전기기계공장 선반공인 남편 박영삼한테 사연을 이야기한 후 충성이네 동생들을 집에 데려올 의향을 내비쳤다.

박영삼은 심각해서 듣기만 했다.

남편의 침묵에서 선영은 《남의 자식을 맡아 제대로 못 키울바엔 차라리 녀름 안 내는게 낫지요. 당신은 늘 앓기만 하는 약골이어서 현재 집에 있는 두 딸애를 키우는것만도 힘들어하질 않소.》 이런 속대사를 느꼈다.

그랬으나 선영은 충성이와 그의 두 동생들한테로 쏠리는 마음을 견줄수가 없었다. 자기네가 만약 충성이네 친부모, 친형제였다면 지금처럼 이런 저런 타산이나 하고 남의 눈치나 보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있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절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래저래 발길이 무겁고 또 겨울나이준비와 러비장만을 하느라 선영은 12월 중순에야 충성이네 고향인 황해북도 봉산으로 향했다.

그러던 그는 러행도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천만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선영은 울면서 당장 집으로 돌아와 조의행사에 참가하였다.

하늘처럼 밟고 파르던 어버이장군님과 영결! 그 비애의 나날에 이 나라 공민들은 때늦게야 철이 든듯싶었다.

새해에 들어와 여러날이 지나 저녁밥상에 마주앉았을 때 박영삼이 자책에 겨운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장군님께서 너무도 일찍 떠나셨소.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장군님께서 생전에 아끼고 사랑하시던 병사들을 위한 일에 모든걸 다 바칩시다. 내가 직장에 출근하며 집살림이랑 애들이랑 돌볼테니 당신은 어서 봉산에 갔다오오.》

《나도 요즘 내내 그 생각이뻘어요.》

선영은 전번처럼 어디 한번 가보고 그곳 형편에 따라 행동한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 무조건 충성이 동생들을 찾아 데려올 결심이었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기일이 오래 걸리고 애들한테

새옷도 사입혀야겠기에 용돈을 든든히 준비했다.

그렇듯 품을 들여 떠난 길이었건만 선영은 헛걸음을 치고말았다.

충성이네 집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니 그 고향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지라 충성이네를 아는 사람을 만날수가 없었다.

선영은 충성이한테 일이 성사되기 전에 입빠르게 말하는것 같아 내막은 감추고 얼핏 집주소나 알아가지고왔던 자신을 탓하며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후 선영은 충성이를 만나 자기 계획을 솔직히 말하고 그한테서 친척들 집주소와 이름, 직장을 알아가지고 6월초에야 다시 황해도로 향했다.

정주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차에서 내려 역구내를 벗어나던 선영은 갑자기 신음을 지르며 풀썩 주저앉았다. 그새 즈뽕하던 관절염이 도졌는지 떠날 때부터 쿡쿡 쑤시며 말썽을 부리던 무릎아픔이 종내 사달을 일으킨것이다.

선영은 안내원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가까이에 있는 진료소로 갔다.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류마치스염으로 넘어간다고 야단을 치는 의사를 겨우 설복해 침 몇대로 림시 아픔이나 멈추고는 역으로 나왔다.

이들만에 봉산땅에 들어선 선영은 충성이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그의 옛 담임선생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녀선생은 어디론가 시집을 가고 없었다.

다시 충성이 고모가 산다는 황주로 갔으나 그 고모는 충성의 부모와 동생들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 선영은 지금 다시 열차를 타고 충성이 외삼촌이 산다는 사리원으로 가는 길이다.

붕—

선영의 애틋한 심정을 위로하듯 앞쪽에서 기적소리가 길다랗게 울리었다.

×

때아닌 밤중에 사리원역전려관에서는 벽작소동이 일어났다.

최근에 3층 1호 고정손님으로 들군 하는 한 젊은 여인이 별안간 배를 그러안고 덩굴며 숨넘어가듯 한 비명소리를 연방 내질렀던것이다.

처음에는 호실사람들만 놀라 뛰쳐일어나 섬병대던것이 점차 열방들과 건너편방 사람 그리고 러관 근무성원들까지 소동에 휘말려들었다.

당장 죽을것만 같던 환자는 경비원이 데려온 의사에 의해 구원되었다.

옛적에 시병원 고려의사로 있다가 현재는 부양으로 들어앉은 늙수그레한 여인이었는데 그는 침질 몇번으로 환자의 쇼크를 멈춘 후 10분어간 더운물 찜질을 하고 손발을 주물러주어 그가 식은땀을 내 쏘고 혼곤히 잠들게 만들었다.

《체기에 의한 급성위경련이에요. 소화기상태가 말이 아니군요.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환자가 어찌나 측은하게 여겨졌던지 늙은 녀의는 이튿날부터 쌀죽을 써가지고 찾아와 먹이면서 그의 배에 뜸을 떠주었다.

그런데 삼일만에 자리를 털고일어난 환자는 《난 가야 해요. 난 애들을 찾아야 해요.》하며 어디론가 경황없이 뛰쳐나가는 바람에 또 한번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 환자가 다름아닌 대판군의 정선영이었다. 그때 황주를 떠나 곧장 사리원으로 온 선영은 충성이 외삼촌부터 찾았다. 그를 만나야 기본목적의 실마리를 건어질수 있었기때문이다.

충성이라도 제 외삼촌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역 근처 아파트에서 산다는것만 얼추 기억하고있었던지라 선영은 별별 고생을 다하다가 겨우 외삼촌되는 사람을 찾아냈다.

헌데 그가 하는 말이 선영을 실망케 했다.

《충혁이녀석 일은 안 나가고 쓸데없는 장난에만 미쳐돌아가기에 욕을 좀 해줬더니 제 동생까지 끌고 훌쩍 나가서는 여직껏 들어오질 않고있네.》

선영은 충혁이네가 어디 먼곳에는 안 갔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구역들을 훑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찾는데만 정신을 팔다나니 끼때를 번지기가 일쑤였다. 가뜩이나 변변치 않던 위가 종내 못쓰게 되고말았다. 결국은 러판에서 밤소동까지 일으키며 뜸치료를 받게 된것이다.

선영은 저러나는 뜸자리를 한쪽손으로 눌러잡고 힘겹게 걸음을 옮겨 동사무소들과 아파트주민지구를 모조리 찾아다니며 물어보았다.

이날도 소득이 없어 맥빠진 걸음으로 돌아오는 선영에게 뜸을 떠준 그 녀의사가 다가와 팔목을 붙잡는것이였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 영양보충이랑 하며 폭취라구. 임자꼴이 말이 아니야.》

선영을 억지로 끌고가 하루밤 재우며 사연을 듣고난 그 녀의사는 잠자코 선영의 얼굴만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넨 왜 혼자 애를 태우나? 남의 도움도 받을줄 알아야지. 도대체 이 나라 땅에서 사는 사람같지 않군 그래. 사람찾는데선 아마 내가 나을거네.》

시병원의 유명한 고려의사로 수십년 일해온 그는 사리원시내에 모르는 곳,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고마운 녀인의 도움으로 선영은 끝내 충혁이네의 거처지를 알아냈고 이어 충성이라도 만나게 되었다. 류달리 눈이 새까만 가냘픈 몸집의 처녀애의 두손목을 꼭 그러쥐며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가 봉산에서 온 리충심이지?》

《?》

《작은오빠 리충혁이고 큰오빠 리충성인데 군대에 나갔고… 맞냐?》

《예.》

후- 안도의 숨을 내뿜던 선영은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이 팔짝 노그라지는감이 들었다. 불시에 의식이 혼미해져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선영은 정신이 없는 속에서도 눈물을 지으며 헛소리를 쳤다.

《충성아- 동생들을 찾았다!》

×

산우에 비구름이 낮게 드리워서인지 어영골은 오늘따라 류달리 낮고 음침해보였다.

대령강을 건너 골안입구에 들어설 때 충심이가 별로 으스스해보이는 골짜기를 겁먹은 눈으로 살피면서 앞서건는 선영이한테 물었다.

《여긴 어디나요?》

《우리 집이 있는 어영골이다.》

《여길 왜 어영골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사람들이 한번 들어갔다간 어영(영원히라는 의미로 쓰이는 지방사투리) 나오지 못한다 해서 그렇게 불렀대. 우리 조상들이 화전을 뚜지고 산짐승잡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던 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정말로 어영 나오기 싫은 곳이 됐거든. 경치 아름답지, 물맛 좋지, 산열매와 약초가 많지… 저기 집집의 뒤울안과 산비탈에 우거진 복숭아나무가 보이지? 옛말에 나오는 무릉도원이 복숭아동산이라는걸 알지. 여긴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란다.》

선영이가 한참 설명을 하며 안심시켜서야 충혁이와 충심이는 골안길로 선뜻 접어들었다.

두 오누이의 손목을 꼭 잡고 걸으며 선영은 속으로 뇌었다.

(내 어떻게 하나 이곳이 너희들한테 나가기 싫은 정든 고향이 되도록 해줄테다.)

…군사임무수행중인 군인들이 목적지로 가느라 산고개를 넘어와 어영골에 내려섰다.

장구류를 착용한 그들이 일렬종대로 줄지어 막바지의 외딴집앞을 지날 때였다.

뜨락에서 뛰놀던 충심이가 맨앞에서 대오를 인솔하는 사관을 향해 불시에 소리치며 달려갔다.

《큰오빠!- 오빠야!-》

놀라 우뚝 굳어졌던 분대장 리충성이라도 두팔을 벌리며 마주 달려왔다.

《충심아!-》

서로 불안고 한고패 핑그르 돌고난 후 충성이가 새웃입어 덜끔해진 충심을 놀라운 눈으로 굽어보며 물었다.

《그새 몰라보게 컸구나. 헌데 네가 어떻게 여길 와있니?》

《아지미가 데려왔어요. 우린 아지미네와 함께 살아. 진향이 엄마 말이야. 참, 작은오빠도 왔어.》

그때 집안에서 충혁이와 선영이가 뛰어나왔다.
충혁이 울먹거리며 충성이앞에 와섰다.

《형, 나야. 충혁이...》

입술을 씹룩이며 말없이 자기보다 키가 더 크고 어깨도 넓어진 충혁이를 쳐다보던 충성은 동생을 외락 그러안았다.

《보고싶었겠다. 정말이지 난...》

충혁이와 충심이도 소리내어 울며 충성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의 상봉을 기쁘게 지켜보던 선영이네도 분대원들도 눈물을 지었다.

이윽하여 그들형제에게 다가간 선영은 따뜻한 어조로 말하였다.

《충성이, 이제 다른 생각 말고 군사복무에만 열중하세요. 난 충심이 큰오빠가 앞으로 입당도 하고 군관학교에도 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진향이 어머니! 전 어머니가...》

충성이가 말을 똑 끊고 얼굴을 붉혔다. 제 감정에 겨워 젊은 녀자를 어머니라 부른것이 멧했던것이다. 그러나 잠시 주저하던 그는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걱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고마운 어머니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충성은 목이 메어 더 잊지 못했다.

그의 분대원들도 걱정예 넘쳐 선영이한테 정말 고맙다고, 자기들도 선영이를 분대장동지네 어머니로 부르겠다고 한결같은 심정을 표현했다.

선영은 저으기 당황했다.

충성이한테서 어머니란 소릴 듣는것만도 점직한데 그의 술한 대원들한테서까지 어머니라고 불리우니 속이 활랑거리고 얼굴이 절로 뜨거워났다.

(병사의 어머니! 아니, 아니야. 나한텐 아직 그런 자격이 없어.)

×

밤...

마가울의 찬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캄캄한 산중을 선영이 여기저기로 오가면서 목갈린 소리로 애들을 찾고있었다.

《충혁아— 충심아—》

선영은 비를 맞아 온몸이 화락하니 젖는것도, 나무가지에 걸리어 옷이 찢어지는것도 모르고 산판을 헤매다가 발이 미끄러지는통에 넘어져 산비탈을 내리굴렀다. 그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손바닥을 입가에 오그려대고 충혁이, 충심이를 소리쳐부르며 산등으로 힘겹게 올라갔다.

초저녁때 집을 뛰쳐나간 그들이 자정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찾으러 나선것이다.

충혁이네를 한집안사람으로 만든 후부터 선영은 전에 없던 고충을 겪었다.

우선 식구가 갑자기 불다나니 식량이 팔리어 늘끼니걱정을 해야 했다. 먹을게 긴장하면 밥주걱을

쥔 주부처럼 박절한 사람은 없다.

선영은 늘 죄지는 심정이 되어 자기는 굶다싶이 하며 식구들한테는 거리를 섞은 밥이나마 그릇이 굵지 않게 담아주었다.

열다섯살난 숙향(맏딸)은 눈치가 말짱한지라 끼 때마다 《난 엄마랑 함께 먹을래.》 이러며 부엌에 나와앉아 제 밥을 선영이한테 절반 덜어주곤 했으나 아직 철부지인 열한살난 둘째딸 진향은 늘 밥이 남남해했다.

파묵한 편인 박영삼은 애들 보는데서는 담아준 밥을 푹푹 다 떠먹고는 일어나다가 슬쩍 점심밥과를 선영이한테 내놓곤 했다.

한창 장난이 세찬 시절이라 숙향이, 진향이, 충심이는 열흘이 멀다하게 바지며 양말, 신발을 못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새것을 사오면 좋은것을 우선 충심이한테 주곤 했다. 그러면 숙향이 진향이는 서러워 눈물을 쥔었다. 그래도 모르는척 하고 좋은 일에는 항상 제 친딸들을 뒤진으로 밀어버렸다.

그런데도 충혁이와 충심은 집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 속을 쉽사리 터놓지 않았고 꺾하면 선입견을 앞세워 집안분위기를 흐려놓곤 했다.

동네에서 입심세기로 소문난 앵두집녀인은 충혁이네를 막 내놓고 욕하며 선영이한테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한다고 말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는걸 인민반장 김명옥이 엄하게 꾸짖었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됐다고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말아안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못쓰네.》

김명옥은 자주 쌀되박이나 과일바구니를 안고 선영이네 집에 올라오곤 했다. 어느날 그는 선영이와 단둘이 있을 때 심각해서 충고를 주었다.

《난 숙향이 엄마가 충혁이네만을 우선시하며 무원칙하니 어자어자 싸고도는게 잘된 일같지 않아요. 진짜 자기 친자식들이야 남이 보겠으면 보고 애들이 고까워하겠으면 하고 막 매도 들고 욕도 하지 않나요.》

그 말에 선영은 귀가 번쩍 띄었다. 자기가 밖에 나가서는 주변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충혁이네를 친딸들과 달리 대하는것은 사실 충혁이네를 남의 자식이라는 편견때문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은것이다.

그때부터 선영은 충혁이, 충심이를 친딸들과 다름없이 여기며 할 말도 다 하고 심부름도 가림없이 시켰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고 제자신의 마음도 편해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충혁이네 본인들스스로가 자기네를 남이라고 생각하며 자꾸 간격을 두는것이였다.

오늘 일만 봐도 그랬다.

사실 선영은 충성이네 부대지휘관들이 나서서 충혁이, 충심이의 거주수속이며 직장과 학교수속을 해주는 덕분에 한결 수월히 그 애들의 문제를 풀어

왔었다. 그러던 나날들에 이웃리의 어느 기관에서
로동자로 근무하던 충혁이가 최근에 피부병이 생겨
집에 와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다.

선영은 피부병에 좋은 약들을 애써 구해다가 여
러날동안 치료해준 후 그의 상태가 어지간히 호전
되자 충혁이에게 이제 직장생활을 하며 잠시간에
치료를 받자고 말했다.

그러자 충혁은 얼굴표정이 달라졌다.

《네가 자기 직중에 하루빨리 익숙되어 일을 막힘
없이 잘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바래 그런다.》

이렇게 선영이가 리해를 시키는데도 충혁은 단박
에 께해서 말했다.

《됐어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그만 아닌
가요.》 그리고는 제 동생을 끌고 훌 떠나버린
것이다.

선영은 비바람이 광란하는 칠칠야밤의 숲속을 자
책에 잠겨 허적허적 걸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충성이가 알면 동생들격
정때문에 근무수행을 제대로 못할텐데.)

…충혁이와 충심은 범산 버럭더미의 동굴안에서
밤을 새우고있었다.

고까움이 살아나는 바람에 동생까지 데리고 뛰쳐
나오긴 했으나 딱히 어데 갈 곳도 없었던것이다.

《오빠, 난 추워.》

꼬부리고앉아 졸던 충심이가 오돌오돌 떨며 충혁
의 품을 파고들었다.

충혁은 웃옷을 벗어 동생을 씌워주었다.

그는 으쓱하니 차거운 밤공기를 느끼며 진저리
를 쳤다.

그는 비로소 자기네가 지금껏 어떠한 보금자리에
깃을 들이고 살아왔으며 얼마나 따뜻한 보살핌속에
추위와 배고픔을 잊고 살아왔는가를 깨달았다. 내
가 배부른 투정을 했구나.

때늦은 후회는 그를 하루밤새에 어른으로 만드
는듯 했다.

《오빠, 집에 내려가자. 나 배고파.》

《집?... 우린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잃었
다.》

나무잎을 때리는 비방울소리, 숲을 통채로 거머
쥐고 휘둘러대는듯 한 바람소리, 먹이를 찾는 산짐
승들의 울음소리...

이때 어둠에 짙 잠긴 산아래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갈린 부름소리가 울려왔다.

《충혁-아- 충심-아-》

《오빠, 진향 엄마야, 우릴 찾아.》

반가와 호다닥 뛰쳐일어나던 충심이가 나무그루
터기처럼 꺾꽂혀 웅박혀있는 충혁을 쫓아들었다.

《빨리 내려가자. 아지민 범산이 무섭다고 했어.
버럭더미로 올라오다가 굴러나면 죽어.》

그 순간 충혁은 알곳은 심사가 꿈틀 요동쳤다.
만약 친어머니라면 아무리 무섭고 설사 죽음이 기
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 기꺼이 걸을

것이다. 그래, 내 오늘 진향이 엄마의 성의가 가식
인지 진정인지를 판가름할테다.

소란한 자연의 광란을 누르며 사람찾는 목선 음
성이 점차 가까와온다. 와삭와삭 잡판목 헤치는 소
리, 우르륵우르륵 버럭돌 밟는 소리...

《앗-》

급작스레 터져오르는 비명소리에 이어 둔중한 물
체가 내리구르는 소리...

충혁은 저도 모르게 자리를 차고 뛰쳐일어나 어
둠의 장막을 짓쳐뚫으며 비탈지로 달려내려갔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는 시꺼먼 형체를 급급히 불
안았다. 끈적한것이 손에 만저지며 피비린내가
확-났다.

《진향 엄마- 정신차리세요-》

선영은 그제서야 눈을 뜨며 일어나앉았다.

《충혁이로구나! 아니, 아직 피부가 아물지 못했
는데 비를 맞으면 어쩌니.》

선영은 잔등에 걸쳤던 비옷을 벗어 충혁이한테
씌워주었다.

충혁은 녀인의 가늘고 차갑게 얼어든 손목을 부
여잡으며 목메인 부름을 터치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어둠의 공간속에서 비소리, 바람소리를 가시며
격렬한 메아리가 웅글게 일어났다.

어머니!-

두달후 표창휴가를 받은 리충성이 어영골을 찾
아왔다.

충성은 얼굴에 그늘 한점없이 활기에 넘쳐 집안
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며 노는 동생들을 눈물겹게
지켜보다가 흰 종이로 정히 포장한것을 선영이앞
에 내놓았다.

《어머니, 중대전우들이 우리 집에 보내는것입
니다.》

포장지를 펼치니 안에 선영이의 웃감과 정교하게
짠 액틀이 들어있었다.

액틀안에선 이런 글발이 빛나고있었다.

《장군님식솔》

×

정선영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심대단결의 화원, 사회주의
사회에서 로동당시대 인간들만이 보여줄수 있는 미
덕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집에 찾아온 도당일꾼으로부터 원수님의 감사를
전달받은 선영은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평양쪽하늘
을 향해 깊숙이 허리숙여 큰절을 했다.

수많은 미덕의 씨앗들을 품안아 자래워 열매를
맺게 해준 사랑의 대지-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이 고마와 삶의 태양이신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인사였다.

탄전 마을녀인들 외 2편

류 정 실

이 나라 어디에 가도 볼수 있으리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허나 고난앞에서는 그리도 강인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녀인들을

하지만 내 넓으나넓은 조국땅
가보지 못한 고장 많아도
태를 물은 고장인듯 정든 고장
내 사는 탄광마을 세상에서 제일인듯

갓 시집온 녀인들도
본가집 그리워 나들이 갔다가도
이틀 못 지나 나들집 그냥 두고 오는 곳
정들면 고향이란 말도
탄광마을 녀인들을 두고 생겨난 말인듯

내 그 어데 가도 유별히 마음끌려
처음보는 녀인보고 어데서 사는가고 물으면
어느 탄광마을에서 산다고 할 때면
통성없이 언니되고 동생되고 시누이되는
탄광마을 녀인들입니다

탄부납편을 위해
밤이 깊어도 창가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마을
그 깨끗하고 알뜰한 마음인듯
마당가엔 하얀 빨래 눈부신 마을
울바자아랜 언제나 피여웃는 꽃

꽃발같은 터발엔 사철 푸른 남새...
토방아랜 하얀 닭무리...
보십시오 언제나 바쁜 수매원아바이
살찐 돼지 몰고나오는 저 집은
도시에서 갓 시집온 검탄공 신혼살림집

나이 많아 집에서 손자손녀만을 돌보라
탄부자식들 위해 적은 힘도 바치자고
스스로 말아나선 도로관리며
부업지마다 풍작이룬 강냉이며 콩
보기만 해도 흐뭇한 탄부마을

어제는 대학졸업생처녀들
탄광마을 학교에 교원으로 배치되어오더니
오늘은 탄전에 대를 이어갈 아들을 안고
산원에서 퇴원하여 마을로 들어서는 녀인
날마다 경사인 복받은 탄전마을이며
복받은 탄전마을 녀인들이여

아, 경애하는 원수님 빛내주시는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갈 불타는 맹세
《조국찬가》에 담아 심장으로 부르고부르며
탄광마을 녀인들은
조국명화를 이 땅우에 그려가고있습니다

갱장가정의 막장지원

오늘은
울해석탄생산계획
두달 앞당겨 끝내는 날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마저
손가락 꼽으며 기다려온
갱장네 막장지원날

남편이 갱장이면
응당 안해는 비편제 《후방부갱장》이라며
갱장의 안해 자진하여 팔걸고나섰으니
넓은 방 넓은 부엌 신바람났구나

뛰니뛰니해도 막장지원엔
없어서는 안될 시원한 탁배기
들큰한 콩국에 사리긴 메밀국수

마당 한구석 우리에서 잠자던 돼지도
한몫 하자고 꿀꿀댄다

한생 해온 막장지원
조직도 빈틈없고 구성도 면밀해라
부업반장 맡며느린 손풍금수
압축기공 들췌며느린 기타수
손녀마저 텅달아 반고 들고 나섰구나

이럴 땐 지휘자는 응당 《후방부갱장》이라나
어깨에 척 북통을 메고나섰으니
경사가 났구나
노래경연무대라도 나선티

박자를 잘못 맞추어 탄부들을 웃긴 실수

그날의 실점을 오늘에 다 보상하려나
 둥이 크기로 소문난 갯장의 안해
 북통을 두드리며 나흘밤 꼬박 밝힌줄
 온 탄전마을 다 아는 사실

아, 고마운 내 나라를 석탄으로 받들자고

온 가정 탄전마을이 정을 묻고사는 막장
 무대라도 이보다 넓고 깊은 곳 무대
 전선이라도 이보다 중요전선 어디에 있담
 온 나라가 지켜보는 석탄전선을 돕는
 갯장내 가정 막장지원날이어

도라지 밭에서

뿌리마다 통통 살찐 도라지
 바구니에 채우는 재미에 하루해 진다
 석이 엄마 탄이 엄마
 이제는 그만들 캐자꾸나

탄부위해 바치는 마음이 기쁨이던가
 동발목 베어낸 여기에
 애기이깔 살랑대던 동발림지에
 탄부안해들 심은 도라지

종구나 오늘은 곱게 자란 애기이깔숲에
 연보라꽃이 만발한 도라지밭
 버들숲속 미나리밭도 버섯공장도
 탄부안해들 펼친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계획 넘쳐한 자랑 안고

풍성한 식탁에 마주앉은 탄부들
 싱글벙글 병그러지는 그 웃음에
 석탄품은 샷갯봉도 마주 웃거니

아, 도라지 도라지 너는
 어제날에 심산속에만 피던 꽃
 오늘은 탄전마을 뒤산에 꽃피고 뿌리내려
 꽃은 피어 축하의 꽃다발되고
 뿌리는 내려 탄부식탁의 식찬으로 되었거니

석이 엄마 탄이 엄마
 이제는 그만 캐고 가자꾸나
 도라지는 산삼의 팔촌이라 하지만
 탄부안해들의 지성을 더하니
 샷갯봉도라지야 산삼도라지!

안해에게 보내는 편지

리 신 환

안해여
 그대의 뜨거운 바램속에
 당부로 더 무거운 배낭 지고
 정든 집 떠난지도 퍼그나 오래구려

사품치는 청천강 길들여가는
 계단식발전소건설의 나날
 위훈도 많았다며 고향에 다녀오라
 지휘관과 동지들 내 등을 떠밀건만

쉬이 떠날수 없구려
 내 잠시라도 건설장을 떠나면
 형제처럼 다정한 돌격대동무들과
 살불이처럼 귀중한 정들은 나의 일터
 낯설어질가봐 나를 기다릴가봐

차마 못 떠나겠소
 한방울 나의 땀 보탬이 될
 청천강이 그리워

내 다지고다지는 혼합물이
 보석처럼 굳어질 언제가 정들어

정말이지 떠밀어도 못 떠나겠소
 경애하는 원수님 친히 보아주신
 계단식발전소설계도의 표고점까지
 혼합물과 내 마음 굳게 다져 엮기 전엔

믿어주오 안해여
 대원수님들유훈 지켜
 원수님의 구상 받들어
 청천강 굽이굽이마다 언제를 쌓을 이 마음

내 안고가겠소 일터에서 수고많을 당신에게
 경애하는 원수님 마련해주신
 인민사랑의 크나큰 선물
 빛을 안고가겠소
 열을 안고가겠소

그림같은 묘향산 외 3편

최 희 정

중중첩첩 묘향산은
천폭만폭 병풍같고

산중휘휘 흰안개는
선녀들 잊고간 옷이런가

내려뛰는 벼랑가의 폭포는
푸른 하늘 안고 내리는듯

명소마다 씻도는 맑은 물에
천길 땅속 비치일듯

아, 그림같은 황홀경에
갈길마저 잃었는데

해빛넘친 향산의 향기에 취해
넋마저 빼앗기겠네

금강문을 지나며

오르면 오를수록
아름다운 상원동
바라보면 볼수록
황홀경의 상원암

유정한 물소리
정다운 새소리에
앞서거니뒤서거니
들어서는 금강문

그 옛날 량반놈들
큰절시켰다는 금강문이야기
풀이 들썩하게
쏟아지는 웃음사태

금강문이 높다한들
어찌 아니 드리랴
당의 은정 고마워
우리모두 큰절하는 금강문

원민다리

그 이름 뜻깊구나
원민다리
모습 또한 멋이로다
원민다리

장군님병사들이
단숨에 건설한
따뜻한 군민의 정
흘러흐르는 원민다리

내 걸어온 사랑의 길
내 걸어갈 행복의 길
억척으로 떠받든
아, 묘향산의 원민다리

금강폭포

푸른 하늘중천에서
흘러내리는 비단필인가
흘러내려 몇천년
흘러내려 몇만필

가는 세월 씨실삼고
오는 세월 날실삼아
짜고짜는 비단필
묘향산의 금강폭포

묘향산의 금강폭포
너를 보니 솟구치는 눈물
인민에게 비단옷 입히시려
대원수님들 바쳐오신 천만사랑

그 사랑 그 은정 못 잊어
짜고짜는 비단필에
인민의 념원담아 산천의 마음담아
영생축원의 글발 수놓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느 평범한 일요일에

변영옥

일요일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날이다.

나도 다가오는 일요일을 무척 기다렸다.

한것은 로병들과 함께 화선선동을 벌리며 건설장들을 찾느라 휴식도 모르던 시아버지가 뜻밖에도 이번 일요일엔 온 가족이 민속거리에 들놀이를 가자고 먼저 제의해나섰던 것이다.

전쟁로병인 시아버지가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은만 생활은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아 맘머느린 나는 늘 원심을 쓰고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손에 일감을 잡아야 마음편해하는 시아버지의 성미였으니 어찌하랴.

그런데 시아버지 스스로가 이번 일요일에 온 가족과 함께 휴식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그 준비를 하느라 몹시 붐비며 돌아갔다. 그리하여 일요일 새벽에는 시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메기회며 김밥에 붕어찜, 미나리채를 비롯한 음식들에 곁들어 시원한 맥주까지 들놀이준비가 착실히 되어가고있었다.

그런데 아침일찍기 옷을 입고 마당가로 나서는 시아버지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은 민속거리로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렴, 약속이야 지켜야지. 그저 내 잠깐 다녀올데가 있어서 그러니 너희들부터 먼저 떠나거라.》

종종걸음으로 멀어져가는 시아버지를 눈길로 바라우며 나는 어찌다 마련한 들놀이인데 혹시 다른 일로 못 오지나 않을까 하는 위구심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닐거야. 오늘은 아버님이 일부러 마련한 날인데...)

나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밤새 준비한 점심팩들을 저자구력에 넣고 새형의 낚시대까지 든채 거리에 나섰다.

파란 주머니에 넣은 낚시대는 막내동서가 마련한 것이었다. 학위학직을 소유한 농업대학 부교수로 교수 및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막내동서는 늘 시간이 바쁘다보니 홀시아버지를 모시고있는 나에게 자기가 며느리구실을 못한다면서 미안함을 표시하곤 했다. 그러더니 며칠전에 보기도문 새형의 낚시대를 한조 가져다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형님, 사람들이 요즘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1211고지에서 용감히 싸운 전쟁로병의 며느리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난 아버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있으니... 그래 생각하다가 이 낚

시대를 마련했어요. 아버님께 드려주세요.》

그 낚시대가 오늘에야 시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바빠 걷는 걸음엔 날개가 돋쳤고 마음은 벌써 민속거리 호수가로 달리며 한껏 부풀어있었다.

바로 그때 등뒤에서 《삼촌어머니!》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막내동서의 가족이 밝고 시원한 옷차림을 하고 걸어오고있었다. 나는 뛰여오는 동서의 아들을 껴안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나?》

《오늘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낚시질하자고 했어요.》

《그래?》

그 말은 나의 기쁨을 배로 커지게 했다.

어느덧 경암산기슭에 자리잡은 민속거리에 들어선 우리는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경암루에 올랐다.

호수가에서 꽃배놀이에 여념이 없는 젊은이들, 웃놀이며 장기를 놀거나 낚시터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 등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나의 가슴에는 오늘과 같은 문명한 생활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찬눈비내리는 공장길, 농장길을 걸으시고 외국방문의 나날에마저도 조국의 인민들이 그림다시며 인민들의 물질문명에 이바지할 참관로정을 걷고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안겨와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더불어 이 행복한 휴식을 즐겨야 할 시아버지를 기다리며 나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 걱정거리를 감추지 않고 동서에게 물었다.

《아버님이 왜 아직 안 나타날가요?》

《글쎄요. 어제 저에게 아버님의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그래서 일이 바빠 들놀이를 갈수 없다고 하였던니 꼭 와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버님이...》

동서는 휴식일의 시간도 아까운 모양이었다. (동서까지 꼭 와야 한다고 한 아버님은 왜 아직...)

의혹에 찬 눈길로 민속거리문을 바라보던 나는 환성을 올렸다. 시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급히 걸어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나와 막내동서에게 미안한 어조로 말했다.

《안됐구나. 한 친구에게 우리 막내며느리에게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렀다 오느라고 좀 늦었다.》

《예? 아니, 그럼...》

막내동서의 눈은 놀라움으로 금시 커졌다.

《며늘애야, 오늘은 입자의 머리를 푹 쉬우자고 마련한 들놀이니 판생각 말고 잘 놀고 가자꾸나. 그때, 이 책이면 참고가 되겠느냐?》

《아버님! 이거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때문에 새벽길을 걸으셨군요. 년로하신 몸에...》

막내동서는 감동으로 하여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얼굴에서 하냥 만족한 웃음을 지우지 않고 말씀했다.

《내 이번에 전승 60돐경축행사에 참가해서 많은 곳을 돌아보면서 느낀것이 나라가 강해지는가 마는가 하는것이 뭐니뭐니해도 과학자들에게 달려 있다는거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과학자들을 금방 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다고 귀하게 내세워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과학자거리도 통채로 안겨주시게 아니겠나?

우리 집에선 막내며느리가 제일 큰일을 하는셈이니 이제부턴 다들 막내네 집일을 팔걸고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내 건강, 건강 하는데 난 그저 이제 남은 여생에 너희들이 원수님을 받들어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도록 뒤받침을 힘껏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손자를 찾았다.

《자, 성원아! 우리 낚시질하러 갈가? 누가 많이 잡나 우리 내기하자.》

《야! 좋구나.》

시아버지는 낚시대를 들고 손자와 함께 씨엉씨

엉 걸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제 이름석자도 쓸줄 모르던 불우한 운명이 해방의 기쁨속에 처음으로 연필을 쥐어보았다는 시아버지, 살아도 인간답게 참되게 살게 해준 고마운 그 품을 지켜 총을 메고 전선으로 제일먼저 달려나가 미제원썹을 쳐부시고 승리를 안아온 로병세대.

그날부터 오늘까지 성실한 땀으로 사회주의터전을 옥토로 가꾸어온 시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며느리의 책을 구해오고 잠시나마 머리섬을 해주고싶어 일요일 들놀이를 조직하며 마음써오는데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그지없는 애정과 최첨단과학기술로 새 세대들이 이 땅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가게 하려는 신념의 의지가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이 땅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리의 업적 영원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무궁번영할 강성국가의 위대한 력사가 도도히 흐르게 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이기도 하리라.

나의 귀전에는 시아버지 한사람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로병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이며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아 부르는 노래소리가 쟁쟁히 울려온다.

나의 마음은 평범한 일요일에 새삼스럽게 받아안은 감동으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미제를 쳐이기고 전승의 7.27을 안아온 수많은 인민군용사들중의 한사람인 나의 시아버지, 우리의 전쟁로병들이 오늘은 사회주의만세소리 울려퍼질 승리의 그날을 안아오는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믿음직한 디딤돌로 우리 세대의 뒤에 억척같이 서있다.

그 정신으로 하여 우리러보이는 영웅세대, 전쟁로병들.

로병세대의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드림없는 기둥과도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 받들어 진군해가는 우리 대오를 억척같이 떠밀어줄것이다.

상 식

국경절제정과 그 의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국경절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있는 의미는 각이하다.

—일부 나라들은 건국의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세계적으로 30여개 나라가 건국의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일부 나라들은 독립된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예를 들면 아이티의 흑인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흑인공화국을 세운 독립의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메히꼬와 가나에서도 독립의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일부 나라들은 국가수반의 생일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이 나라들은 스위스, 단마르크,

네덜란드, 벨지끄, 네팔, 타이, 일본이다.

—수도를 장악한 날을 국경절로 정한 나라도 있다. 쿠바, 캄보쟈 등 나라들에서 바로 그렇게 하였다.

—첫 이주민이 도착한 날을 국경절로 정한 나라도 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첫 영국이주민이 시드니부근의 험부쉬만에 도착한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전제적인 상점물을 파괴해버린 날을 국경절로 정한 나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빠리폭동군중들이 전제왕조의 상징인 바스띠유성을 파괴해버린 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빛은 안녕

엄 호 삼

1

거리를 벗어난 태양빛전지차는 새벽안개가 감도는 교외의 해압산으로 향했다. 차안에는 에네르기 개발중심의 태양에네르기연구실 실장인 지명이가 앉아있었다. 아침일찍 숲속도로로 차를 몰아가는 것이 지명이의 취미이고 습관이였다. 내려진 차창으로 흘러드는 숲속의 고유한 테르핀향기와 갖가지 꽃향기를 맡으면서 푸른 숲과 다종다양한 꽃들, 식물들을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 그러느라면 도시의 소음과 번거로움에 시달리던 심리가 저절로 안정되곤 하였다.

(정말이지 자연은 살뜰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구나.)

자연의 혜택을 새삼스럽게 감득하던 지명은 자기가 자연보호를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먼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동안 지구의 생태계는 얼마나 혹심하게 파괴되었는가. 치부와 욕망, 전쟁과 분쟁으로 지구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다. 상처의 아픔으로 지구는 몸부림쳤다. 때아닌 열파와 한파, 무더기비와 폭설, 기형적인 동식물의 출현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였고 현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긴만 올해 27살인 자신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 현재 완성단계인 《H-1》호복합재료에 의한 태양빛전기 전환효율의 제고연구도 공동연구사인 명옥이가 아니었다면 자연환경보호에 좋지 못한 후파를 초래할 번 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2년전에 있었던 일이 눈앞에 선하다.

...

《지금의 태양빛전지판들은 빛전기전환효율이

30프로라는 한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50프로의 효율을 낼수 있는 새로운 재료인 〈H-1〉호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

태양빛에네르기실의 연구사들은 지명의 연구계획을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대학시절에 다기능박막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뛰어난 수재로 알려진데다 연구소에 배치된 후 3년간 여러종의 다기능박막들을 연구개발하여 20대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명이었던것이다. 더우기 이번의 연구계획은 착상이 기발하고 혁신적인것이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지명의 설명이 끝나자 50대의 영호실장이 모여있는 연구사들에게 물었다.

《다른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게?》

모두가 찬성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실험분석연구사인 명옥이가 주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놀란 눈길로 처녀연구사를 바라보았다. 명옥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실에 배치된지 석달밖에 되지 않는 《햇내기》였던 까닭이다.

모두의 놀란 눈길이 집중되자 긴장되었는지 명옥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쑥지를 뺐다.

《지명동지가 작성한 〈H-1〉호재료에 의한 빛전기전환률제고는 아주 대담하고 혁신적인 연구계획입니다. 그런데 심중하게 고려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선택한 재료들가운데에 자연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위험한 비소화합물도 있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들의 회수재리용의 공정이 지내 복잡하고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는것입니다.

태양에네르기개발은 인류의 난문제인 생태환경보호와 에네르기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인 동

시에 곧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재료들을 선택하며 회수 재료용의 공정에 대한 연구도 좀더 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끝낸 명옥은 일어설 때와는 달리 배심있게 자리에 앉았다.

지명은 자기의 연구계획에 내포된 치명적인 약점들을 밝혀낸 명옥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불쾌감보다 반가움이 더 컸던 것이다. 즉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영호실장에게 자기의 결심을 토로했다.

《실장동지,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명옥동무의 의견을 고맙게 접수합니다. 그런데 명옥동무에게 아직 연구과제가 없는것만큼 〈B-1〉호 복합재료에 의한 태양빛전기전환효율의 제고연구를 저와 함께 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새 재료연구개발을 5년이 아니라 3년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호실장은 빙그레 웃는 얼굴로 지명과 명옥을 번갈아보았다.

《글쎄 나는 찬성한다치고 명옥동무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반갑게 접수하겠습니다.》

명옥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슴없이 대답했다.

지명과 명옥은 서로 마주보았다. 두사람의 눈빛들에는 신뢰와 기대, 뭐라고 이름할수 없는 뜨겁고도 열렬한것이 비껴있었다.

...

그후 공동연구를 하면서 두사람사이에는 사랑의 감정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청춘의 사랑은 조국을 위한 불타는 정열과 탐구심과 함께 그들이 2년만에 빛전기전환효율이 70프로인 《B-1》호재료의 시제품을 연구개발할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추동력이 되어주었다.

문득 그의 사색을 깨뜨리며 손전화기의 호출음이 울렸다. 번호를 보니 명옥이었다. 그는 제껴 수신 단추를 눌렀다. 지명은 액정화면에 나타난 사랑하느 처녀의 모습을 다정히 바라보며 물었다.

《명옥동무, 아침일찍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장동지, 미안하지만 오는 길에 제게 특식을 가져다주지 않겠어요?》

《특식?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이제 더 말하다가는 내 배가 등에 가 붙겠어요.》

《알겠소. 내 동무가 좋아하는 김밥을 가져다주시지.》

도로옆의 수직리착륙장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포장한 김밥을 산 지명은 즉시 태양빛전지차의 날개

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현대문명이 그들의 사랑에 날개를 달아준셈이다.

2

대동강기슭에 우뚝 솟아있는 해압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금방 머리를 감은 아릿다운 녀인이 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듯 한 형국이다.

에네르기개발중심은 바로 이 산기슭의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고있다.

지명이와 명옥이가 일하는 태양에네르기연구실은 산의 정점에 있었다. 정점우에 우뚝 솟은 녀인의 옥비녀를 편상시키는 천연바위의 자연미를 살리면서 건설된 연구실은 아담한 살림집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직원도 실장 겸 재료연구사인 지명과 분석실험연구사인 명옥외에 3명의 연구사를 포함하여 총 5명이였다. 현대적인 연구설비와 실험장치들이 갖추어져있어 많은 인원이 필요없었던것이다.

명옥이가 자기가 가져온 아침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을 보니 지명의 마음은 즐거웠다. 그는 고뿌에 물을 따라주며 가볍게 편찬했다.

《다 큰 처녀가 꼭 응석꾸러기같다니까.》

김밥을 입에 가져가던 명옥이가 눈을 곱게 흘긴다.

《뭘라고요. 그럼 내가 아직 소녀애란 말이에요?》

《아 아, 그런건 아니요.》

지명은 제껴 명옥의 비위를 맞춰주었다.

《그런데 집에는 안 가고 밤새 무슨 일을 했소? 부모님들이 무척 걱정했겠는데...》

《그런게 아니예요. 지금 마감하고있는 논문의 몇군데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피뚱 들길래 새벽에 좀 일찌기 나왔겠지요 뭐. 이젠 완성됐어요. 오늘 중으로 검토해보세요.》

지명은 자기들의 연구를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명옥을 보니 부끄러웠다. 연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지만 지금 지명의 심정은 1년전에 실장으로 임명받았을 때처럼 무겁기만 했다.

《B-1》호재료의 완성과 더불어 태양빛에네르기에 의한 전기생산량이 2배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국가의 총전력생산에서 70프로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들의 존재명분에 대한 문제가 상정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와 함께 국가의 경제발전전망과 경제구조,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물론 이 거대한 변화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이다. 허나 만일 사소한 문제거리라도 생긴다면 나

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것은 물론이고 무슨 면목으로 명옥이와 그의 부모들앞에 나서겠는가. 더우기 명옥이의 아버지는 원자력분야의 권위자이다. 그래서 연구론문의 발표를 선뜻 결심하지 못하고있는 지명이었다.

지명의 마음속 고충을 알리없는 명옥이가 방그레 웃으며 놀라운 소리만 한다.

《참, 우리 아버지가 실장동지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지명의 두눈이 대번에 휘둥그래졌다.

《왜 말이요?》

《실장동지와 나야 원자력발전소 지배인인 아버지의 지위를 위협하는 〈적수〉가 아닌가요. 아마 기회를 보다가 정면대결을 할 작정인것 같아요.》

그 말에 불안감을 느낀 지명은 우정 화제를 돌렸다.

《이거 동무의 아버지와 〈적수〉가 되었으니 내가 사위감으로 합격되기는 코집이 굴렀군.》

《흥,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비위가 떡판갈군요.》

25살이지만 아직도 애티가 엿보이는 명옥이가 눈을 곱게 흘기며 시까스른다. 지명이는 한쪽눈을 깜빡해보이며 그냥 능청을 부렸다.

《누군가가 나보구 김치국부터 마셔야 떡 줄 생각도 나는 법이라고 하더군.》

《피-엉터리!》

《정말이요. 허허허.》

이때 지명의 손전화기에서 호호음이 울렸다. 지명은 명옥에게 어서 식사를 하라고 손짓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지명은 회색이 만면하여 방에 들어섰다. 명옥이가 눈이 휘둥그래져 물었다.

《왜 웃어요?》

《기쁜 소식이요. 방금 초전도체연구실의 정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상온초전도체의 연구개발에서 돌파구가 열렸다는만. 동무가 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소.》

그런데 기뻐할줄 알았던 명옥이가 갑자기 시무룩해했다.

《아니, 왜 그러오?》

《전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 실장동지가 복합형다기능박막에 의해 러파된 빛파장들과 원소 또는 화합물들의 호상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초전도체연구실에 보내주라고 말했지만 전 아쉬워하면서 망설이기만 했어요. 그래 자료들을 종합하고서도 한주일이나 지나서야 보냈거든요.》

《자기의 노력이 깃든 연구자료들을 넘겨주자니

무척 아쉬웠을거요. 그래두 어쨌든 자료는 보냈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지 않았소. 그러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오.》

《아니, 아니예요. 저의 리기심때문에 조국의 발전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죄스럽기만 해요.》

명옥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지명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연구소의 수직리착륙장에서 다른 연구사들의 비행차들이 착륙하는 동음이 들려왔다. 어느새 출근시간이 되었던것이다.

3

점심때였다. 모두가 야외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있는데 23살난 호준이가 옆의 명옥에게 물었다.

《명옥동지, 녀성들은 다 식사량이 적은가요?》

너무도 왕청같은 질문이어서 명옥은 당황해졌다.

《글쎄요. 그건 왜 물어요?》

《명옥동지가 늘 조금씩 식사를 하니 묻는겁니다. 혹시 식사전에 우리 물래 보약을 먹는게 아님니까?》

《아니 이 동무가, 호호, 호호호...》

어이가 없어 명옥은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호준이가 우정 그런다는것을 눈치챈 몸집 좋은 동수 연구사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여 호준동무, 이제 동무가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돼.》

입맛을 다시며 호준이는 수림쪽을 향해 머리를 끄덕인다.

《예, 예. 잘 알았어요. 할아버지.》

《하하하...》

《호호호...》

식사가 끝난 후 연구사들은 머리털도 할점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며 기술협조로 해외에 갔다가 며칠전에 돌아온 호준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이지 한달동안 난 조국이 그리워 혼났습니다. 사무실에선 아무리 땀뽀기가 돌아가고 정제한 바다물이 아니라 비싼 값으로 사오는 샘물을 마셨어도 우리 연구소의 생신한 공기, 이 웅달샘의 맑은 물보다는 못하더군요.》

여기까지 말하고는 줌전에 물을 마신것 같은데 물 한그릇을 또 입에 가져갔다. 호준이가 얼마나 걸탐스럽게 물을 마시는지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젓까지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다. 입종이로 입가의 물기를 닦은 그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모두 그 나라의 력사나 사회환경, 생활풍습

에 대해서는 잘 알고계실겁니다. 20세기 중엽부터 21세기초까지만 해도 그 나라는 원유자원을 가지고 잘 살아왔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원유의 고갈로 인해 세계경제가 원유위주로부터 벗어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것은 에네르기의 부족이었습니다. 원유의 고갈로 화력발전소들은 폐허로 변했고 90년대에 에네르기의 다각화를 제창하면서 수입한 태양빛발전소들도 수명이 다 되어 전기생산량이 거의 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기는 몇몇 부호들에게만 공급되고 한때는 세계문명의 본보기라고 떠들던 대도시들까지 밤이면 암흑에 잠겨버립니다.

얼마전에는 한다하는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전기수입계획을 작성한다, 태양빛발전소를 개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 하며 새 에네르기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어쨌든 내가 기본 말하자는것은 실장동지와 명옥동지가 공동으로 개발한 〈H-1〉 호재료가 세계 에네르기개발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킬것이며 막대한 자금을 벌수 있다는겁니다.》

모두가 공감인듯 머리를 끄덕이는데 동수연구사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우고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이자 보니 우리 호준동무에겐 기업가가 되면 순식간에 부호가 될수 있는 자질이 있었구만.》

《까짓거 못될것도 없지요. 현시대는 착상과 연구개발, 생산과 판매가 통합되는 시대이니까요.》

호준이도 늘 자기를 유모아의 대상으로 삼곤 하는 동수연구사의 기질을 잘 알고있는지라 호기있게 소리쳤다. 그 바람에 모두가 폭소를 터치였다.

지명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했다.

《호준동무, 그런데 기업가한테 흥행리용과 투기가 업이라면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지속성과 정확성이 기본이라는것을 잊지 마오.》

《알았습니다.》

호준이가 밝은 얼굴로 시원하게 대답했다. 언제봐야 자기가 사업과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들을 간단명료하게 제때에 알려주는 실장이었던것이다.

4

마침내 명옥이가 다매체형식으로 작성한 연구론문의 검토를 끝낸 지명은 컴퓨터화면에서 눈길을 땀다. 연구목적과 연구과정, 방대한 실험분석자료들, 투자금과 리득금, 사회경제적의의 등 논문의 모든것이 구체적이고 론리정연하여 빈틈이 없었다. 이 정도로 완성하느라 명옥이가 며칠밤을 새웠던

것이다.

(그동안 이 연구의 발기자인 나는 무엇을 하였던가...)

깊은 자책감에 빠져있는데 소장의 비행차가 수직 리착륙장에 내려서는것이 눈에 안겨왔다.

(무슨 일이 생겼길래 소장동지가 직접 오시는 걸가?)

그의 의혹에 부채질하는듯 비행차에서는 소장의 예도 낮모를 두명의 풍채좋은 사람들이 내렸다. 한 사람의 얼굴은 어디에선가 본듯 한 느낌이 들기도 했으나 명백치 않았다. 잠시 기억을 더듬는데 벌써 세사람이 그의 방에 들어섰다. 지명은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동무, 안녕하요? 이분들은 동무들이 개발한 〈H-1〉 호재료의 성능과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찾아온 전력공업성의 부상동지와 국장동지요.》

지명은 긴장해졌다. 이들의 견해에 의해 《H-1》 호재료의 운명이 결정되는것이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명옥이와 다른 연구사들이 있는 방쪽으로 향해졌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명옥이의 행동거지였다. 칸막이 유리창에서 이쪽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입에 대고 머리를 가볍게 흔들어보이던 명옥이가 자기와 눈길이 마주치자 갑자기 코등을 굽는척 하며 아닌 보살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는 어이가 없어 허거프게 웃고는 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력공업성 부상이 빙그레 웃으며 묻는다.

《저 처녀동무가 혹시 실장동무와 〈H-1〉 호재료를 공동개발한 연구사가 아니요?》

《예, 맞습니다.》

얼결에 대답을 하며 부상의 얼굴을 살펴본 지명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딘가 낮이 익어보이는 부상의 얼굴이 다름아닌 명옥의 모습과 엇비슷했던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전력공업성 부상 겸 원자력발전소 지배인이라고 한 명옥의 말이 생각났다. 사업상문제로 딸이 일하는 연구소에 찾아온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지 않게 모르는척 하는것이 분명했다.

마음속으로 지명은 아침에 명옥이가 얼핏 말했을 때에 흘려들은 자신을 질책했다. 그러나 이미 쏘아놓은 죽이었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있을수는 없었다. 오늘사업을 주동적으로 잘 결속하자면 자기도 끝까지 모르는척 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그는 소장에게 말했다.

《참, 〈H-1〉 호재료에 대한 설명은 명옥동무가 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실장동무의 결심대로 하오.》

소장이 찬성하자 지명은 제격 명옥을 호출했다.

잠시후 명옥이가 의자에 앉은 네사람의 앞에 나섰다. 그는 대형액정판에 나타나는 화면들을 원격봉으로 가리키며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전시기에는 태양빛에 의한 전력생산에 심중한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발전소들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부지가 요구되고 빛전지판의 태양빛전기전환효율이 낮아데다가 밤과 날씨의 영향에 의한 전력생산의 지속성과 정상전압의 유지문제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 약점들을 퇴치할수 있는 방도들을 모색하던중 빛전기전환효율이 높고 전력계통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H-1〉 호복합재료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기목표는 〈H-1〉 호의 빛전기전환효율이 50프로였지만 새로운 집광장치와 실리콘 대신 복합형다기능박막을 도입하여 70프로까지 높였습니다.

...

〈H-1〉 호재료의 개발에 의해 앞으로 태양빛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이 국가적인 전력수요의 70프로까지 담당하게 될것입니다.》

명옥이의 설명이 끝나자 부상이 질문했다.

《음- 흥미있소. 그러니 앞으로는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생산이 필요없겠구만.》

낮색 한번 달리하지 않고 명옥이가 부상의 말을 긍정했다.

《섭섭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초전도체연구실 동무들이 상온초전도체를 개발한것만큼 여유전력저축과 번개를 리용한 전력생산도...》

《실장동무, 가만 보니 동무네는 원자력부문 일군들을 너무 흠시하는것 같구만.》

기분이 상한듯 부상의 옆에 앉은 국장이 이번에는 질문의 예봉을 지명에게 돌렸다.

명옥에게 의미있는 눈길을 보낸 지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용서해주시오.》

《용서까지야 뭘. 그런데 어째서 연구론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소? 혹시 〈H-1〉 호재료의 생산원가때문이 아니요?》

지명은 약간 주춤했다. 비록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보다는 적지만 《H-1》 호재료의 생산을 공업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것은 사실이었던것이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실험실단계에서도 적지 않은 자금을 소비하였습니다. 〈H-1〉 호재료는 합

금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합금재료를 만들자면 높은 열과 높은 압력, 높은 진공상태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런것만큼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발전소의 전망문제도 새롭게...》

《가만...》 갑자기 국장이 말허리를 자르는 바람에 지명은 말을 채 끝맺을수 없었다. 《아무래도 실장동무는 지내 책임성이 높은것 같구만. 그런 문제들이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요.》

지명은 말문이 막혔다. 궁지에 빠진 그를 부상이 구원해주었다.

《국장동무, 원자력발전소들의 전망에 대한 실장동무의 의견을 마저 듣는것이 좋을것 같소.》

《예, 그렇시다. 실장동무, 내 말을 나뻘 생각지 마시오. 동무들이 개발한 〈H-1〉 호복합재료의 경제적의의가 하도 크기에 내가 좀 흥분한것 같소.》

국장이 호인답게 미소를 지으며 랑해를 구했다. 지명은 그것이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자신이 민망스럽기만 했다.

《괜찮습니다. 국장동지의 말이 오히려 저에게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똑똑히 하게 해주었습니다.》

《하, 그렇소. 이거 실장동무하고는 말할 재미가 있구만.》

빙그레 미소를 짓는 부상과 국장의 얼굴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지명은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솔직히 이야기했다.

《지구생태계의 보호문제가 첨예하고 인간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태양빛과 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리용기술의 발전속도와 그에 의한 전력생산의 증가속도로 보아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들은 지구로부터 달이나 우주정류소로 옮겨질것 같습니다. 달에서의 야금공장건설, 소행성에서의 원료채취 등 인류의 우주진출이 적극화되고있는것만큼 그에 필요한 전력과 동력을 보장하는데는 원자력발전소들을 따를만 한 대상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 부상과 국장은 몇가지 질문을 했다.

얼마후 돌아가면서 부상은 지명에게 작별인사로 몇마디 했다.

《실장동무, 오늘 정말 많은것을 배웠소.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도 〈H-1〉 호재료의 생산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지구의 환경보호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것만큼 어느 일개인이나 연구소의 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될수록 빨리 내각에 제출

하는것이 좋을것 같소.

자, 그럼 잘있소.》

손님들을 배려하며 지명은 《ㄴ-1》호재료의 실용화가 곧 진행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대신 자책감은 더욱 커졌다.

5

지명은 옥비녀바위우에 올라 산뒀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을 내려다보았다.

오늘일을 돌이켜보느라니 참으로 깨닫는바가 많았다. 밝은 앞날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열렬한가. 그러나 리기적타산에 눈을 팔다보니 나 자신은 그것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성과를 실용화하는 투쟁에서 주저하고 동요했던것이다. 이것은 해독행위나 같은것이였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현실에 만족하고 제자리걸음만 한다면 어찌 밝은 앞날을 볼수 있으랴.

지명은 런던히 뻗어간 산뒀이며 서해의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문득 인기척을 느낀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명옥이였다. 바람결에 머리칼이 가볍게 날리는 명옥의 자태는 볼수록 아름다웠다.

《명옥동무,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소.》

《수고야 뭐.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댜어요?》

《웅졸했던 자신을 반성해보았소. 정말이지 동무를 볼 면목이 없소. 날 용서하오.》

《아이, 그만하세요. 우리에게엔 앞날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처녀의 고무를 받으니 지명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웅어리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래, 앞으로 계속 달려야지. 모든 일에서 대담하게 사색하고 통이 크게 실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거요.》

《어마나, 시인이라도 된것 같군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ㄴ-1〉호재료보다 빛전기전환효율이 더 높고 누름세기와 마찰력도 큰 〈ㄴ-2〉호재료를 연구할 생각이요. 그러면 빛전지판들을 태양빛발전소만이 아니라 도로나 비행장의 활주로에도 설치할수 있거던.》

《야, 멋진 착상이예요. 물론 이번에도 저와 공동연구를 하겠지요?》

명옥은 소녀애처럼 손뼉을 치며 정기가 넘치는 두눈을 깜박거렸다.

지명은 장난기가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그 문제는 지금 생각중이요. 자기 아버

지도 가르치려드는 동무인데 나를 어떻게 대하겠는지 도무지 가능할수 없거던.》

《아이참, 그러니 아까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았군요.》

《그렇소. 자, 시간도 지났는데 우리 퇴근하면서 이야기하기요.》

지명이와 명옥은 수직리착륙장으로 향했다. 그들을 환영하는듯 태양빛전지차의 유리창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잠시후 두사람을 태운 태양빛전지차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행차의 자동조종체계에 목적지를 기억시킨 후 지명은 명옥에게 《ㄴ-2》호재료의 연구개발계획을 간단히 설명했다.

《명옥동무, 〈ㄴ-1〉호재료를 연구할 때 우리는 지구상에서 재료의 순도를 높이고 초고진공을 조성하느라 지내 많은 시간과 자금을 낭비했소.

그래 이번 연구는 원가와 개발기일을 줄이면서도 〈ㄴ-2〉호재료의 순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우주공장에서 진행하려고 하오. 우주공장이 있는 달기지의 환경이 엄혹하고 〈ㄴ-1〉호재료의 실용화가 막두한것만큼 동무는 여기에 남아야겠소.》

《〈ㄴ-1〉호재료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지도는 실시간대화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은가요?》

《어쨌든 내 말대로 하오. 그곳 환경이 얼마나 엄혹한지 동무는 잘 모를거요.》

《뭐, 환경이 엄혹하다구요. 그래 내가 녀자라고 업수이 보는건가요. 나를 위해준다는것이 고작 그것뿐인가 말이에요. 그래도 난 실장동지를... 정말 분하군요.》

명옥은 입술을 꼭 깨문채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의 두볼로는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자기를 다잡느라 가볍게 두어깨를 떠는 명옥을 보며 지명은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한생의 길 동무가 되자면 행복도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명옥의 팔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다.

《내 생각이 짧았댜소. 명옥동무, 우리 함께 가거요.》

《정말이에요?》

눈물과 놀라움, 환희가 엇갈린 속에 명옥이가 밝게 웃으며 지명을 바라본다. 지명은 대답대신 미소를 짓고 머리를 끄덕였다.

서쪽의 산봉우리에 걸린 가을해는 하루일을 즐겁게 돌이켜보며 눈부신 미소를 보내고있다. 황금빛 노을이 비끼기 시작한 빛전지판들이며 집집의 창문들은 래일의 상봉을 그려보듯 환하게 웃으며 화답한다.

원형주로우에쉬

송 명 근

—하하...

—호호...

웃음이 넘쳐나는

새로 생긴 로라스케트장

손녀의 성화에

어쩐지 들뜨는 마음

이 할아버지도 나섰다

로라스케트를 신고

어린이 젊은이 청춘남녀

쌍쌍 내달는 원형주로따라

손녀의 손잡고 한걸음두걸음

아차 그만에 쥘는 엉덩방아

와그르 쏟아지는 웃음소리

저쪽에선 다섯살잡이 스케트재주에

짜그르 터져오르는 박수소리

몇바퀴 도는 사이

어느덧 성수가 난다

손을 놓으렴 속도를 높이자

빙빙 돈다

새로 세운 유희장

새로 꾸린 공원의 꽃밭

새로 심은 잔디밭 푸른 주단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온 나라 도시와 마을을

하나의 공원처럼 꾸리시어

가는 곳마다 새 풍경

피어나는 웃음꽃도 떨기떨기 천만송이

한껏 젊어지는 내 나라 강산이여

힘껏 달려라 한바퀴 또 한바퀴

꼬마들은 때를 지어

청춘들은 쌍을 지어

온 나라에 넘치는 체육열풍에

피가 끓고 힘이 솟는

로동당세월의 행복의 원무다

웃음을 뿌리며

만복을 안으며

돌고 또 돌자

출발점은 있어도

끝은 없는 행복의 원형주로를

가 사

나는야 세포치녀

리 은 향

청춘을 꽃피울 일터는 많아도

꽃나이 첫자옥 여기에 찍었네

눈바람 비바람 길들여가며

더운 땀 바쳐가는 나는야 세포치녀

청춘의 푸른 꿈 세월이 꽃피우고

강성부흥러명이 저절로 밝아오라

사나운 대자연을 정복해가며

래일을 마중해가는 나는야 세포치녀

청춘의 위훈도 아름다운 삶도

원수님 높은 뜻 받드는 길에 있네

먼 후날 청춘시절 즐겁게 추억할 때

멋뎠이 자랑할 나는야 세포치녀

시 초

나는 신청한다

백 리 향

나는 왜 력기를 시작하였는가

이제는
자주 들군 하는 물음
쳐너인데
어떻게 력기를 시작하였는가
마치 그 무슨 사연을 몰듯

생각해보면 떠오릅니다
45분수업이 끝날무렵
담임선생님과 함께 들어온 과외체육소조선생님
력기선수를 뽑는다는 말에
문득 내 한발 나서 손을 들던 날이
남동무들 제가 무슨 힘장수라고 하며
끌려주던 웃음

왜 그랬던지
그저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동무들과 정신없이 뛰놀다가도
멀리서 어머니 띄어보면 나는듯 달려가
한귀통이 엄마의 등짐을 받쳐주던
그 힘이 나를 떠밀었던지

초소의 어머니로 불리우며
병사들을 위해 이고지는 짐이
행복의 무게인양
땀흐르던 얼굴에 늘 웃음짓던 어머니
그래서 그 무게를
다는 몰랐던 철없던 시절

잊을수 없습니다 그날을
아픈 몸 일으켜세운 어머니
나의 어린 힘을 빌어

등에 지어다오 나직한 목소리
쉽게 들수 있을것만 같았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가

모를겁니다
그때의 그 안타까움
어째서 난 그리도 약할가
그래서 내 시작하였던 력기
힘을 키우고싶어
어머니의 짐을 내 들고싶어

했어도 한키로 한키로
내 드는 무게가 늘어갈수록 깊어지는 생각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싶을 때도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

그것은 아, 그것은
땀흐르던 얼굴에 웃음을 짓던
어머니의 모습인가
그 모습속에 안겨오는
장군님의 야전복
천만자식 한품에 안아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
모습
그 어깨에 실린 짐에 대한 생각

나는 력기를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싶어
어머니조국의 어깨에 실린 그 짐을
내가 이 딸이 들고싶어
아, 나는 력기를 시작하였다

쇠덩이! 너와 겨루며

오늘 아침도 훈련장에 나서니
배심종계 울방자를 틀고앉은 구간들
나와 겨루어보자고
기다린듯

저쪽에선 벌써 시작인가
챙챙 철이 부딪치는 소리
이제는 정다운 저 소리
우리 타는 기타의 즐거운 선율인듯

시작하자
준비운동은 적당히 구간을 쫓자
한키로 한키로 극한점을 지나

오늘도 새 기록 돌파할 때까지
쇠덩이! 너와 겨루어보자

오십 칠십 백키로...
내 힘겹게 돌파한 저 무게들
나는 지금 준비운동삼아 가볍게 들거니
때로 키로가 아닌 그램으로라도
기록을 돌파하며
너와 겨룬 나날이어

그때는 무거웠어라
욕망으로 마음 가볍던 나날
차고 선풍한것

산악처럼 내 목우에서 네가 무겁던 그 나날에는
그 안타까운 날들에 너는 무죄채찍되어
나를 일으켜세우지 않았더나

보아라 나의 손을
이렇듯 손바닥에 장알을 박아
너 나에게 훈장을 준것은 아니나
내 흘린 땀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너 가벼워지던 그 나날에

내 이렇듯 너와 겨루며
너를 들어올리는 순간에
나의 머리우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장하다 내 딸아
아, 조국의 말을!

소 낙 비

톡톡 시원한 비방울이
나를 건드리더니
짜르릉— 우뢰의 웅원소리와 함께
소낙비가 나에게 승벽을 거누나

아하, 소낙비
너는 돌도 없는 나의 대상훈련자
반갑다 소낙비야
좀더 세게 내려라
그러다 나한테 지고말겠다

왜 늦추는거냐 보슬보슬
벌써 기권이나
아니면 룡상선수 아니라고 날 갈보는거냐
속도에선 룡상보다 빨라야 하는
우리 종목 력기임을
내 오늘 가르쳐주지

좋아 짜락짜락...
나의 잔등 후려치며 내뒤통을 바싹 물더니
쭈욱쭈욱 대줄기같이
어느새 앞서 내 얼굴을 후려치누나
앞서거니뒤서거니
줄줄 흘러내리는 비방울 흠칠새없이
너와 달린다 조금만 더

줄기차게 나를 앞서 있는 힘껏 달리더니
숨이 딱 멎었구나 소낙비가
서서히 장막걸린 하늘에
해님이 떠올라
해빛 함뿔 뿌리며 결승선을 비친다
소낙비가 끊지 못한 무지개결승테프
억센 나의 가슴에 걸린듯 하다!

나의 신청

나는 신청한다 내가 들 무게를
들면 올림픽신기록
숨을 모으고 경기장에 나서니
가슴조이며 바라보는
눈빛들 눈빛들

내 몰랐어라
열살의 고개도 넘기 전에
집 떠나 훈련장에서 사는 나를 위해
어째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이웃들이
산꼴을 안고 자주 찾아왔는지

몰랐어라
어찌다 집에 들린 그런 날이면
우리 마을 새 소식란에
내가 들어올린 새 기록이 씌여있고
어머니가 보낸줄 알았던 그 토끼곰들이
얼굴도 채 익히지 못한 이웃들 보낸줄은

왜 그랬던가 거리에 나서도
체육인이면 제 딸인듯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고 고무해주는 사람들
훈련하다 상한 나를 위해
어머니마냥 내 머리맡을 못 떠나던
그 간호원은

몰랐어라 다는 몰랐어라

조국의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훈의 소식들

강선의 구내길에 쌓인 강철의 무게가
대동강반에 펼쳐진 유원지들과 오락장
왜 그렇듯
올림픽을 향하는 나의 걸음에
힘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는데

나는 신청한다
내가 들 무게를
들면 올림픽신기록
허나 이 순간부터
신청하는 내 목소리는
나의것이 아니거늘!

나는 신청한다
우리 이웃들 나에게 준 사랑의 무게를
나를 바래워준 그 정다운 목소리로
오늘도 구내까지 강철을 쌓은 나의 아버지
성실한 로동계급의 땀젖은 목소리로

나의 작은 가슴에
조국을 떠맡겨
세계의 눈빛앞에 떨어어준
온 나라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합쳐
나는 신청한다
우리의 《애국가》 그 존엄높은 무게를!

감독동지!

한가정의 안해였으면
행복했을가
한 자식만 고이 키웠으면
저렇듯 아름다울가
나의 감독동지!

지금도 눈에 선해라
총각애들과 달리기내기를 하는
나를 불러세워
자식 찾는 어머니처럼
나를 앞으로 뒤로 돌려보시던 모습
그때부터 감독동지의 자식은
내가 아니었던가

엄하기는 아버지보다 더하여서
힘에 부친 쇠덩이
목에 올려놓은 구간봉에
피부가 밀려 피가 나고
손바닥 물집이 터져 구간봉잡기를 주저하며
동정을 바라는 내 눈에
눈물도 못 흘리도록 질책하던 목소리어

아, 잊을수 없어라 그밤
잠든 머리맡에 다가와
살며시 꽃이불 펼치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던 그밤
뜨거웁속에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 세월에

금메달은 내 가슴에서 절그렇대건만
감독동진 여전히 단발머리
처녀라는 애뜻함보다
엄한 아버지같은 감독동지!

내 오늘도
잊을수 없어라 그날을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우리들의 손을
정애하는 원수님 뜨겁게 잡아주시며
수고하였다고 동무들의 경기모습을 보고
자신께서도 눈물을 흘렸다시며
다음번 올림픽고지를 가리켜주신 그날을

그날 나는 보았어라
나의 감독동지 눈물젖은 모습을
금메달을 단 나를
원수님앞에 제 자식인양 세우고
환희에 넘쳐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을 때의
그 행복한 모습을!

오늘도 감독동지 훈련장을 못 뜨신다
원수님 가리키신 승리에서 또 다음승리
다음번 올림픽고지로
나를 이끌며 떠밀며...

나에겐 생각되여라
이 가슴에 주렁진 금메달들
감독동지의 자식처럼
감독동진 나의 어머니처럼...

신 기록

—더 높은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훈련장 전투소보의 붉은 일력을
그대론 넘길수 없나니
우리의 새 기록으로 일력을 번지나니

오늘 아침도
매일 그러한 것처럼 새 기록이 있으리라
아직 구간을 들지 않아도
서로 주고받는 고무의 눈빛에
벌써 붕대가 휘는듯 하다
얏— 힘있게 소리도 쳐주며
숨죽이고 성공을 기대하는데

숨죽은듯 고요한 훈련장
훈련장에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울려다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를 날았다는 소식
이 얼마나 환희로운 순간인가
우리의 위성!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훈련모습을 내려다본다는것이
이제 밤이면
밤하늘 별을 세는 아이들 셈속에
또 하나의 우리의 별이 늘어난다는것이!

오, 얼마나 가슴벅찬 순간이나
조국이 또 한걸음 전진했다는 이런 소식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대신 못하리니
축하를 드리노라 어머니조국이여
우리 체육인들의 신기록을 받아다오

자 숨을 모으자
우리의 위성으로 더 무거워진 조국을
우리는 어엿싸— 들어올리리
온 세상사람들 부러워 바라보게!

예술화되어가는 축구

날이 갈수록 축구는 더욱더 성숙되고 기교성이 풍부해지고 예술화되어간다.

축구가 환영받고있는것은 그것이 일종의 예술로 되었기때문이다.

상상해보면 푸른 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수준의 경기에서 두 팀이 벌리는 멋진 공전락과 선수결합은 마치 노래속의 장쾌하고 은은한 선율과 시편속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예술과도 같다.

하기에 사람들은 축구경기가 하나의 예술화된 축전마당으로 되었다고들 말하고있다.

머리받기와 미끄러져 공빼앗기, 조약하여 휘둘러차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너머로 차기는 마치 동서방의 가극이나 춤무대와 같이 일정한 방법과 형식을 갖추고있으면서 우아성까지 가지고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술에 매혹되어 숨을 죽이고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고 환희로 들끓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기도 하고 박자에 맞추어 소리치기도 한다.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말하였다.

《우리의 지식은 모두 감각에서 기원된다.》

감각은 예술의 출발점이고 지어 예술의 생명이다. 예술가는 감각에 의거하여 창작을 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은 감각의 도움을 빌어 감상을 한다. 감각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축구를 최고의 수준에서 할 때 그것은 감각의 최대한의 발현으로 된다.

축구왕 펠레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머리를 쓰지 않고 다만 미친듯이 달리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

더 빨리 달릴수 있는것도 역시 감각이 아주 좋은 결과였다.

축구를 구경하는 수준이 일정한 단계에 오르고 경기를 구경하면서 비결을 찾아볼줄 아는것도 오랜 과정속에 감각을 통해 형성되는것이다.

감각은 사람들에게 축구를 손금보듯 환히 꿰뚫어볼수 있는 눈을 준다. 푸른 축구경기장에서 사람들은 밀물, 썰물과 같이 밀려들어왔다가 밀려나가는가 하면 축구볼이 허공에 오르거나 땅에 떨어지면 번개같이 내달리곤 한다. 축구는 하나의 정신적이며 책임적인 운동이다.

이름난 어느 한 축구선수는 《내가 사는것은 오직 축구를 위해서이다.》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바 있다.

로런한 한 축구명수는 《나는 축구를 통해 인간의 도덕과 의무를 정확히 인식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생활속에는 모처럼 조성된 기회가 아쉽게 스쳐지나는 때도 있다. 축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기장의 형세는 변화무쌍한것이다.

한 축구애호가하는 모처럼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분통한김에 《기회를 놓치는것은 생활의 수순깨끼중의 하나이다.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옳게 리용하지 못하는것이 바로 생활이다.》라고 말하였다.

축구경기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교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예술화되는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11호 (루계 제793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11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11월 5일

ㄱ-36706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